



4

1981

문예출판사

동지애의 노래

가는 길 험난하다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리러보네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리러보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4호

(루계 402)

◆◆◆◆◆◆◆◆◆◆ 차 례 ◆◆◆◆◆◆◆◆◆◆

조선의 행복.....	4
위대한 이름!	6
뜨거운 태양.....	7
인민의 축원.....	18
만경대고향집.....	22
만경대의 목란꽃.....	23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드립니다.....	24
별이 빛난다.....	25
가시는 길은 눈길 삼백리.....	26
과원은 노을에 물들어.....	27
봄날의 과일동산.....	28
과원이여 만발하라.....	31
건설자들.....	34
떠난후 인상.....	42
별에 대한 담시 (외 1 편).....	47
내 읊기는 걸음걸음은... ..	48
작전연필 (외 1 편).....	49
백두산의 샘물.....	49
생활과 신념.....	50

세대를 이어	59
아버지와 아들	66
내 사랑 뽕상모아.....	69
우리의 정방차	69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에 대한 철학적탐구	70
그대 울리는 차바퀴소리	74
서정시에서의 감정의 진실성.....	75
이 쇠물 조국에 바치여.....	77
뽕상모 새싹들이 속삭였네	78
땅과 봄.....	79

조선의 행복

오�필천

피여오르는 노을도
이 땅우에 먼저 피고
올려가는 행복의 노래도
이 땅에서 시작되여라

바라보면
눈부신 하늘
홍성이는 강산
밝아온 희망의 새 언덕우에서
가슴에 안아보는
우리 행복의 끝은 어디나

그 한끝을 가늠하며
마음속깊이
가득차오르는 생각은
아 우리 수령님
만면에 지으시는 그 미소

당대회
승리를 경축하던 그 밤
광장의 불빛을 받으시며
수령님 지으시던
그 기쁨의 미소를
우리 잊을수 없어라

기쁘시여
하늘 한끝까지 날아오르는
축포의 꽃보라를 바라보시고
못내 기쁘시여
다시 환영의 춤물결을 바라보시며
깊어가는 밤을
우리와 함께 계신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쌓이셨던 그 로고도
다 잊으시고
밝게 지으시던 웃음
수령님의 그 영상을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
그 얼마나 감격에 목메였던가

당대회의 연단에서
보고의 갈피갈피를 번져가시며
우리 당이 있어
혁명의 미래는 양양하다고
그리도 힘주어 말씀하시던
우리 수령님

아 그 기쁨
그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던가
환호하는
백만의 시위행렬우에
뜨거이 답례하시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을 두고
그리도 장하시여
오래오래 손길을 높이 드시던
우리 수령님

한생의 기쁨을
오늘에 다 맞으신듯
수령님 미소지으실 때
우리 당을 받들어가는
인민의 가슴속에선
행복의 눈물이
소리없이 흘렀나니

아 그 기쁨
저 하늘에 노을로 비껴
강산은 이리도 밝고
마음은 이리도 설레이는가

새 조선의 개선광장에서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감격에 울고웃던 가슴을 터쳐
80년대의 하늘가에 빛나는
향도성을 우러러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마음이어

예지로 빛나는
우리 당이 있고
당의 령도를 심장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이 있기에

우리 수령님
10대전망의 높은 목표도
그처럼 확신에 넘치시여
그처럼 자랑차게
우리앞에 펼쳐주신것 아닌가

그 언제나
열정에 넘치신 걸음으로
로고의 천만리길을
기쁨을 안으시고 걸으시는
수령님의 그 자욱자욱

밤하늘에 반짝이는
산원의 밝은 불빛을 보시고도
소문없이 일떠선
수도의 새 거리를 걸으시면서도
우리 당을 두고
못내 만족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미소

아 한마음
우리 당을 받들어온
인민의 긍지
인민의 행복을
수령님의 미소에서
가슴뜨겁게 느끼나니

조국의 통일도
공산주의 새세상도
우리 대에 다 이룩하시려는
수령님의 결심을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를 받들어갈
뜨거운 맹세로 가슴끓여라

한시대에
위대한 태양을 모시고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반만년 력사우에
민족이 지닌 이 경사
인민이 받아안은 행복이여

수령님 계시여
우리 당이 있고
우리 당이 있어
끝없이 번영하는 조국땅에
행복한 인민이 살아가나니

이 아침
해빛밝은 창문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귀엽게 웃음짓는
아이들의 그 눈빛에도
이 행복 어리고

고향의 역두에서
꽃다발을 받아안고
간석지건설장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그 가슴에도
아름다운 꿈이 있어라

이제 가당을
80년대의 령마루
휘황한 10대봉우리에 올라
우리 다시 안아볼
래일의 그 기쁨
래일의 그 행복은
얼마나 더 클것이라

가슴 부풀도록
찬란한 미래를 안고
이 땅
이 하늘을 안아보는
인민의 영광
아 조선의 영원한 행복이여

어버이수령님 높이 모시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은 꽃피고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
이 땅우에 공산주의 새 아침은 밝아오거니
수령님의 기쁨속에
수령님의 미소속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있어라

위대한 이름!

김학연

세계가 우러러 부르노라

억만의 가슴과 가슴들이

하나의 심장

하나의 음향으로 부르노라

그 이름 경건히

그 이름 친근히

대륙과 대양을 넘어

위도와 경도의 계선을 넘어

아직도 지구우 어둠이 서린 창문들에

량심과 리성이 불타는 그 모든 눈길들에

영원한 봄노을 찬연히 비쳐주는

그 이름

나라 잃고 집 잃고

정든 땅 그리안고

눈물보다 더한 피를 삼키던

겨레의 그 비통한 운명

조선의 그 참혹한 운명을 맡기며

수천년력사가 처음 부른 그 이름

싸늘히 식은 엄마의 가슴에서

온 밤 젖을 찾다가

세기의 가난과 주림을 안고 간

그 어머니 그 아이

누리의 그 모든 꺼져가던 숨결에

새 삶의 빛을 준 그 이름

그 이름은

철쇠와 명예를 마스는

무한대의 힘

그 이름은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변혁하는

우주의 뇌수, 세계의 예지

그 이름에서

새세기의 별이 뜨고 해가 솟았고

그 이름에서

우리 사는 이 시대와 미래가 탄생되고

그 이름에서

가장 숭엄한 인간송가가 울려나오나니

수억만 가슴들이 우러러 부르노라

인간 자주의 빛발

인류해방의 기치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 존함을 경건히

그 존함을 친근히...

뜨거운 태양

엄단웅

7군인민위원회위원장 김봉준이 지휘하는 인민유격대가 재진격하는 인민군대와 협동하여 군소재지를 해방한것은 1950년 12월 초순이었다.

그는 군소재지에 들어가서 사무실도 미처 잡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때 공화국북반부에 깊이 침입했던 미제침략자들을 력사적인 제3계단작전을 펼치시여 단숨에 림진강이남계선까지 쓸어버리신 다음 차후작전을 위해 고산진으로부터 평양근방으로 지휘부를 옮기신 때였다.

(장군님께서 친히 나를 부르시다니...)

그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을 누를길이 없었다. 후퇴의 엄혹한 시련의 나날, 아, 얼마나 뵈고 싶고 그리웁던 수령님이신가.

김봉준이 미국놈들한테서 빼앗은 승용차에 앉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자》마을근방에 이른것은 날이 흰히 밝아오는 새벽녘이었다.

길가에는 마사진 미제침략자들의 포며 땅크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놈들의 강점으로 인하여 들판에는 미처 걷어들이지 못한 벼단이며 가을남새들이 널려있기도 하였다.

차는 《자》마을을 지나 최고사령관동지의 지휘소가 자리잡고있는 산골짜기에 접어들었다. 골짜기를 흘러내리던 개울물이 두껍게 얼어붙어있었는데 허영게 얼어붙은 그 개울 건너 둔덕우에 네댓채의 초가집들이 떠떠떠떠 늘어서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보초소를 통과하자 젊은 부관이 나와 그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숙소로 안내하였다.

김봉준은 가슴을 울렁거리며 부관을 따라 절룩절룩(그때 그는 후퇴때 입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였었다.) 걸음을 옮기었다.

《먼저 저 집에 올라가서 좀 기다리십시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발에 나가계십니다. 이제 가서 곧 보고를 올리지요.》

부관이 걸음을 멈추고 김봉준에게 말하였다.

《발이라니요? 먼곳입니까?》

《아, 아닙니다.》

젊은 부관은 의문에 잠긴 김봉준의 얼굴을 돌아다보며 시선으로 한곳을 가리켰다.

김봉준은 그제사 그들이 서있는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발가운데 대어섯명의 군인들이 앉아서 무엇인가 하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부관은 김봉준의 걸을 떠나려다가 걸음을 멈춰세웠다.

《우리도 어제밤에 이리로 옮겨왔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시여 마당을 쓰시다가 저것을 발견하셨지요. 발가운데 드문드문 서있는 저 사과나무 묘목들말입니다. 올해날씨가 유별나게 추운데 벼짚으로 싸주지 않고 저것들이 동상을 견뎌내겠느냐고 근심하시더군요. 그리고 발가운데 남아있는 저 배추이삭들을 보시고 빨찌산때는 냉이를 캐서 식량보통을 했는데 저걸로 김치도 담글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더군요. 전쟁을 겪느라고 지금 인민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운데 그만큼 인민들의 부담을 덜어줄게 아니냐고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손수 벼짚단을 들고 발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 모두 따라나섰지요.》

부관은 간단히 말하고나서 이제 더 지체해선 안되겠다는듯이 급히 사라져버렸다.

김봉준은 그제사 주위를 둘러보고 발이랑에 드문드문 서있는 사과나무 묘목이며 땅바닥에 얼어붙어있는 캐다 남은 썩바귀만한 작은 이삭배추들을 발견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자기가 여직 그 이삭배추 한포기를 밟고 서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김봉준은 그 어떤 죄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조심스럽게 발고랑을 타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신곳으로 걸어나갔다.

장군님께서도 부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자 벼짚으로 묘목들을 감싸주시던 일손을 멈추시고 그를 향해 마주 걸어오시었다.

견장이 달리지 않은 수수한 군복차림에 장화를 신으시고 걸으실 때 팔을 약간 뒤로 젖히시는 특징적인 활달한 걸음걸이로 마주오시는 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김봉준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김봉준은 모자를 벗어 들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오느라고 수고했소. 안됐소. 내 손이 이래서.》

그이께서는 손을 펼쳐보이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다정한 그 웃음으로 하여 김봉준은 갑자기 얼어붙은 대지우에 따사로운 봄빛이 내리쬐이는 것 같은 부드러운 친근감을 느끼었다.

《밤을 꼬박 새웠겠구만. 자 어서 들어갑시다. 그래 상처는 좀 어떻소?》

《일없습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김봉준은 대답을 올리면서 그이를 따라 걸음을 옮겨짚었다. 그러다가 자기가 아까처럼 혹시 땅

바닥에 얼어붙은 이삭배추를 밟지나 않는가 하여 신경은 켜다.

수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걸으시며 이것저것 물으시였으나 김봉준은 벅차오르는 흥분으로 하여 조리있게 대답을 올릴수가 없었다.

초가집 앞마당에서는 전사들과 군관들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신 방을 꾸리느라고 떠들썩거리고있었다.

한쪽에서는 톱질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벽에다 흙매질을 하기도 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부관을 부르시여 오래 머무름곳도 아닌데 지휘소를 꾸리느라고 공연히 품을 들이지 말고 동무들을 빨리 휴식시키라고 타이르시였다.

나이 어린 웬 전사 하나가 마당에서 녹이 쓴 쇠침대에다 무엇을 바르고있었다.

《그것은 무엇이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사에게 물으시였다.

나이가 열일곱이나 여덟쯤 돼보이는 귀엽게 생긴 어린 전사였다.

《흰뽕끼입니다.》

《뽕끼를? 그건 어디서 났소?》

《최고사령관동지의 침대가 너무... 그래 시내에 갔던길에 좀 구해왔습니다.》

전사는 한손에 술을 잔채 자랑스럽게 몸을 바로잡고 대답하였다.

《칠하지 마오. 귀한 뽕끼를 침대에 칠해선 뭘하겠소. 두었다가 이담에 다른데 씹시다.》

그이께서는 장난꾸러기 어린 아이에게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그래도 이대로는 너무 보기 뭇합니다. 거기다 녹까지 쓸어서 옷에도 묻습니다.》

《글쎄 일없다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거듭 타이르시였다.

《알았습니다.》

응석받이 어린 전사는 몸을 꺾듯이 바로잡았으나 얼굴에는 서운해하는 기색이 력력히 드러나보였다.

장군님께서는 풀이 죽어 서있는 전사를 보시자 딱한듯이 한숨을 내쉬시였다.

《동무의 심정은 나도 알만하오. 그러나 지금 인민들의 처지가 어떻소? 인민들은 지금 폭격에 집을 잃고 토굴속에서 자고들있소. 그런데 내가 최고사령관이라고 흰뽕끼칠을 한 침대에 누우면 잠이 잘 오겠소? 인민들이 조밥을 먹으면 우리도 같이 조밥을 먹고 인민들이 한지에서 잘 땀 우리도 한지에서 같이 자야 될게 아니요? 그렇지 않소?》

《알겠습니다.》

어린 전사는 그제야 모든것을 잘 알겠다는듯이 활기있게 대답올리고 뒤로 자빠질듯이 절도있게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제사 마음이 놓이시는듯 곁에 서있는 김봉준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김봉준은 두눈을 내리관체 마당에 놓인 그 쇠침대를 지켜보고 서있었다. 어쩐 일인지 아까부터 자기도 모르게 젖어드는 두눈을 쳐들기 면구했던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를 방안으로 안내하신 다음 아침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시면서 그를 급히 부르게 된 사연을 말씀하시였다.

《나오면서 보니 놈들의 만행으로 인민들의 처지가 말이 아니요. 가슴이 아파서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소. 다른것보다 우선 인민들의 생활부터 안착시켜야겠소. 내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오. 그래 실정을 더 깊이 료해하고 같이 상론해보려고 동무를 이렇게 급히 부르게 됐소.》

언제나 환한 미소가 어리시였던 그이의 안면은 비통하게 흐려지기도 하시고 단호한 결단성으로 강의하게 번쩍이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내 전재고아들의 수자며 주민들의 식량사정이며 환자들의 형편이며 전재민들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서 수첩에 적어넣기도 하시고 대책을 같이 상론도 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이전에 군에 내려갔을 때 말썽이 있었던 어느 한 로인에 대하여 상기하시며 그가 후퇴기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시였다.

《한인규로인말입니까?》

김봉준은 그 어떤 벅찬 감회에 휩싸이였다. 그는 수령님의 물으심앞에 대답을 올리기 위하여 후퇴기간에 자기가 겪은 사연을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

1950년 10월 김봉준은 군빨찌산부대를 지휘하여 《ㄷ》면소재지를 강점하고있던 미국놈들을 기습소탕한 다음 유격근거지로 돌아오다가 뜻밖의 정황에 부딪쳤다.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저녁녘이었다. 그들이 예정된 철수로정인 신작로를 따라 방금 산굽이 하나를 돌아섰을 때 한개 련대가량의 미제침략군 기계화부대와 정면으로, 그것도 지척에서 마주쳤던것이다.

갑자기 귀청을 켜는듯한 요란한 기관포소리와 함께 탄알이 발밑의 땅바닥을 파헤치며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대오는 급히 흩어져 산기슭으로 올리붙었다. 전투원들은 땅에 엎드려 사격진지를 차지할 사이

도 없이 총을 휘두르며 집전을 하였다. 대오를 책임진 김봉준은 대원들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달려드는 놈들에게 마지막까지 총탄을 퍼부었다...

그가 정신을 차린것은 사위가 이미 어둠에 깔렸던 밤이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하였다. 그는 처음에 눈을 뜨고도 그것이 별이 아니라 수많은 개뿔벌레들이 아물아물 날아다니는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으며 한참만에 그것이 하늘에 떠있는 별무리들임을 깨달았다.

어데선지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스쳐지나면서 나무잎들이 우수수 설레었다.

(그런데 내가 왜 깊은 이 수림속에 홀로 누워있을가?)

그는 분명치 못한 의식을 가다듬느라고 애를 썼다.

마침내 그는 적들과 불의적으로 조우하던 일이며 자기가 적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던 일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그는 갑자기 상을 쩡그리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포탄파편에 맞은 왼쪽옆구리가 칼로 저미는듯 쭈서났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총알이 뚫고나간 오른쪽다리가 나무토막처럼 무겁게 매달려 움직일수 없었다. 피와 땀에 젖어 가죽처럼 찢찢해진 옷이 갑옷처럼 몸을 조이였다.

《제길... 동무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가?》

그는 숨을 피롭게 몰아쉬며 초저녁에 겪었던 조우전투를 더듬어나가다가 불현듯 숨을 죽여버렸다. 컴컴한 어둠이 흰히 밝아지면서 자동차의 발동기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불빛은 갈수록 차츰 더 밝아지면서 마침내 그가 누워있는 주위를 대낮처럼 환히 드러내었다. 김봉준은 그제야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곳이 수림속이 아니라 행길가의 강냉이밭속임을 깨달았다. 불빛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잦아들때마다 우르릉거리는 차소리도 커졌다가 다시 멀어지곤하였다. 놈들의 자동차행렬은 꼬리를 물고 한동안 끊어질줄 몰랐다. 그는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강냉이밭이 신작로로부터 불과 10미터도 되나마나한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깨닫고 새삼스럽게 긴장을 느끼였다. 그는 손더듬으로 허벅짐에 끼워있는 권총을 만져보고 차거운 감각을 손에 느끼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차소리와 불빛이 잦아들고 또다시 사위가 조용해지자 김봉준은 행동을 개시하였다.

날이 밝기전에 이곳을 벗어나 동무들이 있는곳으로 가야만 했다.

그는 두손으로 강냉이대를 움켜쥐고 성한 한쪽다리로 일어서려다가 꺾어진 강냉이그루대를 안은채 발가운데 나가넘어졌다. 그는 발고랑우에 쓰러진채 한동안 죽은듯 움직일줄 몰랐다. 상처에서 오는 무서운 아픔으로 숨이 막히는듯하였다. 곁에서 누가 부축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걸음도 움직일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락심하게 하였다.

타고난 고집스런 성미로 하여 여직 40이 다된 오늘까지 한번도 비판을 모르고 살아온 그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수만명 군내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진 군인민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약한 마음을 물리치게 하였다.

그는 두손으로 땅을 짚고 성한 한쪽다리로 땅을 차밀면서 한치한치 앞으로 기여나갔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김봉준은 어느 깊은 산골짜기를 기여가고있었다. 그는 방향을 분간하기 위해 북두칠성을 찾느라고 이따금 하늘을 쳐다보곤하였다.

그때마다 하늘이 푸른 강물처럼 울려다보이였다. 그 강물에는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별들도 그를 따라 움직이는것 같았다. 컴컴한 어둠속에 반디불같은 작은 불빛 하나가 바라보였다. 마치 그의 머리우의 작은별 하나가 외따로 떨어져내려와서 땅우에 내려앉은듯이... 까딱 움직이지 않는것으로 보아 어느 산전막인가? 어쨌든 불빛이 있는곳에는 집이 있게 마련이고 집이 있는곳에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는 불빛을 향해 기기 시작하였다. 반디불만하던 작은 그 불빛은 차츰 손거울만한 크기로 커졌다가 다시 보름달만치 커졌으며 마침내 흰한 창문들을 가려볼수 있을만치 가까와졌다.

이 깊은 수림속에 외판집이 무슨 집일가? 그는 굵은 나무등결에 등을 대고 잠시 숨을 돌렸다.

갑자기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을 몰아뜰을듯 짖어대는 개소리는 갈수록 요란해졌다.

김봉준은 권총잡에 손을 갖다댄채 긴장한 시선으로 불빛이 새나오는 창문을 지켜보았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가?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쯤 와있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유격대가 있는 절골골짜기를 찾아간다는것이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절골어귀에는 이런 외판집이 있을수 없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그 어떤 착각에서 소스라쳐 깨어났다. 요란하게 짖는 개소리가 그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였던것이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새삼스럽게 어둠속을 다시 둘러보았다. 김봉준은 그제사 여기가 수림속이 아니라 파수원이라는것과 자기가 지금 파수원집의 주인인 한인규로인집앞에 와있음을 깨달았다.

원췌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김봉준은 그 어떤 심술כות은 운명의 장난질앞에서 자기도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필 이리 올진 뭐람! 그는 어둠속에서 사과나무등결에 몸을 기대채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

김봉준이 한인규를 알게 된것은 해방전 어렸을 때부터이다.

그가 살던 고장일대에서는 한인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왜놈들을 미워하고 민족적지조와 절개가 굳은 반일유지로서,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로서 명망이 높았다. 그는 먹는것, 입는것, 쓰고 사는 모든것을 왜놈들의 물건이라면 경멸하였고 몸에 붙이려 하지 않았다.

지어 그는 볼 일이 있어 평양이나 서울에 올라갈 때도 왜놈철도회사에 리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수백리길을 기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는 읍에다 수공업적으로 전구요 사이다병이요 하는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은 유리공장과 초물상점을 차려놓고있었는데 초물상점에서는 농민들이 만드는 노전이요, 돛자리요, 키요, 삼태기요 하는것들을 사다 팔았다. 그의 지론에 의하면 조선사람들이 빨리 민족산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가 부흥해야 이 땅에서 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는 왜놈앞에서 굽신거리는것을 가장 큰 민족적수치로 모욕으로 여겼다. 한번은 왜놈순사가 그의 초물상점에 들어와서 청결을 잘 안했다고 모욕적으로 그를 대하였다.

《뭇이 어째? 이 쪽박이놈아.》

한인규는 주먹으로 왜놈순사의 턱주가리를 툭 툭 건드리며 당장 때려눕힐듯이 위협을 하였다. 험악한 그 기상앞에서 순사놈은 비실비실 쫓겨나기는 하였으나 가뜰이나 그를 미워하던 왜놈들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경찰을 구타했다는 죄명으로 그를 잡아다가 도지방법원에서 재판놀음까지 벌리였다.

한인규는 일본말을 모르지만 한문에는 유식하였다. 그는 사실을 과장하여 죄를 날조한 왜놈들을 규탄하면서 자기는 결코 경찰을 구타한적이 없으며 다만 그놈의 턱주가리를 건드렸을뿐이니 말하자면 이는 구타가 아니라 축박이였다고 변론하였다.

축박!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구타가 아니라 축박인것만은 사실이다. 재판관놈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왜놈들의 룹법전서에는 구타죄는 있어도 축박죄는 없다.

재판관들은 하는수없이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고 한다.

그후부터 왜놈들도 그를 감히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지 못했다. 해방이 될 때까지 굴함없이 도고하게 살아온 그였다.

해방후 땅마지기나 있고 돈냥이나 있는 일부사람들은 남으로 많이 나갔으나 그는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과 20개조정강에 감동되어 제고장에 뿌리를 박았다.

한생을 지하막장에서 탄을 캐내며 고역과 천대속에서 살아오던 김봉준이 한인규로인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는것은 그가 해방후 면인민위원장으로서 그후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를 받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때 나이가 60이 다 된 한인규는 읍에다 유리공장을 가지고있었다. 5, 6명의 노동자들이 사이다병이며 전구머를 생산하는 수공업적인 작은 유리공장이였다.

그런데 한번은 재정부로부터 그가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모리탈세행위를 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김봉준은 본인을 군인민위원회에 호출하였다.

련락을 받은 한인규는 여느때나 다름없이 도고한 자세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실에 찾아들어왔다. 그는 김봉준이 자리를 권하자 주저없이 모시두루마기가락을 걸어들리며 안락의자에 가서 걸터앉았다.

김봉준은 재정부에서 보고된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았다.

《령감, 병모양이나 좀 다르게 만들어놓구 엄청나게 병값을 올렸다면서요...》

《그래 그게 못할짓이요?》

한인규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병값을 올린것만큼 세금을 더 물어야 하지 않겠소... 더우기 군인민위원회 승인도 없어 제마음대로 가격을 제정해서 팔아먹는게 잘한짓이요?》

김봉준은 그에게 잘못을 일깨워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민주주의정권하에서 그만한 자유도 없이 어떻게 기업활동을 할수 있소.》

로인은 마지막까지 완고하였다.

(민주주의? 그래 우리의 민주주의가 기업가들에게 모리행위나 하자고 제정된 민주주의인줄 아는 모양이지?)

김봉준은 기가 막혀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 상공인들이 기업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범에 대해서 그리고 모두 힘을 합쳐 건국사업에 펼쳐나서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해설을 하였다.

《새삼스럽게 나한테 선전교양사업을 할 작정인가?》

한인규는 책상우에 벗어놓았던 중절모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봉준은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말없이 그의 거동을 지켜보고있었다.

(이 령감이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가 어떤것인지 맛을 좀 봐야 알겠는가?)

그는 높아지는 음성을 누르며 말하였다.
《거기 앉으시오. 그렇지 않다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니? 그럼 나를 법으로 다스리겠단말인가? 좋네, 자네 마음대로 해보게!》

한인규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버렸다.

김봉준은 유리창문너머로 서두르지 않고 유유히 돌층계를 밟아내려가는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고 서있었다.

그는 참을수 없는 모욕감으로 두눈이 콧꽃해졌다.

(정 그렇게 배짱놀음을 하겠단말이지? 좋아.)

김봉준은 선자리에서 전화로 내무서장을 찾았다. 그리고 한인규의 위법행위를 사법기관에서 법적으로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나서 도에다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이 사건으로 하여 수령님께까지 심려를 끼치게 될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 일이 있는지 며칠후의 일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도에 내려오셨다가 평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군인민위원회사무실에 친히 들리신것이었다. 김봉준은 평양에서 진행되는 중앙회의에 참가하여 회의를 지도하시는 장군님을 더러 뵈은 일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 몸가까이 모셔보기는 그때 처음이었다.

그토록 흠모하여 마지않던 장군님을 사무실에서 맞이하게 된 감격은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도에 들러오시느라고 몹시 피곤하신 몸이었으나 려로의 피로도 푸실념 않으시고 김봉준에게 군내실정을 하나하나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도 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한인규라는 로인이 어떤 사람이며 그를 어떻게 되어 구류하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김봉준은 속이 뜨끔하였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계실까?

그가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장군님께 보고된것이 틀림없었다.

김봉준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벌어진 사실을 꾸밈없이 자세히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이틀전에 한인규로인이 앉았던 바로 그 의자에 앉으시여 김봉준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시며 듣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김봉준의 자세한 보고를 주의깊게 다 들으신 다음 한인규로인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경위며 군내인민들속에서의 그에 대한 반영이며 여러모로 파고들어 물어보시였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나신 그이께서

는 생각에 잠기시여 좁은 사무실안을 천천히 거닐고계시였다.

날씨가 쌀쌀한 초겨울밤 저녁녘이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외투도 입지 않으시고 수수한 곤색양복만을 입고계시였다.

장군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이께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사무실의 마루바닥이 삐걱거리며 김봉준의 가슴을 죄어들게 하였다.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한인규로인이 생각할수록 패씹하기 짝이 없었다. 전등불밑에 서계신 장군님의 안색은 이전에 그가 중앙회의에 올라가서 뵈었던 그때보다 썩 축가보이였다.

작은 군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머리아픈데 크나큰 나라일을 돌보시자니 얼마나 바쁘시겠는가. 왜놈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백두의 험한 산속에서 오랜 세월 그토록 고생하신 장군님께 오늘은 우리들이 이런 근심까지 끼쳐드려서야 되겠는가, 김봉준은 죄스럽고 송구스런 마음으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말없이 오래동안 생각에 잠기셨던 장군님께서서는 아까부터 몸이 굳어져 서있는 김봉준에게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신 다음 자신께서도 의자에 가서 앉으시였다.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김봉준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동무가 말한것처럼 그 로인은 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탈세행위를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런 위법행위를 하게 되였는가 그 동기도 자세히 알아보고 그가 나라의 법규범을 잘못 이해하고있다면 그것을 깨닫도록 잘 일깨워도 주고 해서 건국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손잡아 이끌어 나가는것이 인민위원장이 아닙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덮어놓고 잡아가두기나 한다면 우리 인민의 법이 왜놈들의 법과 다른것이 어데 있습니까? 이것은 인민들로부터 선거를 받은 우리 인민위원회일군들의 사업작풍이 아닙니다.》

장군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시였으나 김봉준은 낮이 뜨겁도록 자책을 느끼였다.

《모든 문제를 언제나 크게 정치적으로 볼줄 알아야 합니다. 동무가 말한것처럼 그 로인으로 말하면 일제때 왜놈들을 미워했고 민족적절개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꾀꾀하게 살아온 애국적인 상공인입니다. 해방전 일제나 싸울 때 나는 이런 민족적이고 량심적인 기업가들에게 우리와 손잡고 힘을 합쳐 왜놈들과 싸우자고 호소하였고 그들은 또한 우리를 도와 잘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왜놈들을 쳐부시고 정권을 잡은 오늘에 와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

의 운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돌봐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손잡고 싸우던 로인이 자기가 선거한 정권기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만든다든가 그들과의 사업을 잘못해서 법을 위반하게 만들었다는 그것자체가 벌써 잘못된 일입니다. 군인민위원장이라고 하면 군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생활을 돌봐주며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군의 호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문제를 그렇게 경솔하게 다뤄서야 되겠습니까? 군위원장이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것은 가장 어려울 때 인민들이 얼마나 따르고 지지하는가를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일을 잘하느라고 애를 썼어도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을 잘못한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민정권에 대한 사업평가는 나나 동무가 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들이 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동무!》

김봉준은 너무도 정당하신 그 말씀앞에서 감히 얼굴을 쳐들수가 없었다.

《장군님,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책으로 하여 얼굴이 벌개가지고 어쩔바를 몰라하는 김봉준을 보시고 장군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음을 지어보이시였다.

《장군님, 지금 나라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요즘 군내 일부 상공업자들속에서 탈세행위가 나타나고있습니다. 나라의 고마운 시책이나 혜택을 받을줄만 알았지 나라를 돕고 보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준다는 것이 그만...》

김봉준은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를 장군님 앞에 어떻게 말씀올려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여 뒤말을 흐려버렸다.

장군님께서는 너그럽게 미소를 지으시였다.

《말하지 않아도 동무의 심정을 다 알만합니다. 나도 오늘 도에 들렀다가 여러가지 일들을 조직해놓고 자금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 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토의해볼 작정을 하고 돌아오는길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인민들에게 해주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재정사정때문에 그것을 못해주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당분간 좀 구차하게라도 살수는 있지만 우리가 군중과 리탈하고 인민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정권의 영원한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중들과 리탈하고 인민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제아무리 발악을 해도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왜놈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미제와 리승만이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김봉준은 감동되어 눈물까지 글썽해졌다.

장군님께서는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웃으시였다.

《이것은 다만 그 로인 한사람에게 한한 일이 아닙니다. 군사업전반을 검토해보시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한인규로인을 잘 타일러 내보내라고 말씀하신후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김봉준은 저녁식사를 준비해놓았음을 말씀올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녁은 가면서 차안에서라도 할수 있으니 근심말라고 말씀하시며 시원한 땀수나 한그릇 떠다달라고 청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김봉준이 정성껏 떠가지고 들어온 땀수 한사발을 다 드시고 차에 오르시다 말고 다시 돌아서시였다.

《위원장동무, 농민이 씨를 잘못 뿌리면 그해 농사에서 손해를 볼뿐이지만 나나 동무가 일을 잘못하면 피로써 세워놓은 우리 정권이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것을 명심하십시오.》

장군님의 음성은 절절하시였다.

김봉준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멀리 사라진후에도 김봉준은 오래도록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김봉준은 그때 저녁때가 훨씬 지났는데 장군님께서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끼니를 건느시게 한일이 두고두고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다녀가신후 그는 자신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편향을 바로잡으며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시정대책을 세워나갔다.

군인민위원회와 인민들과의 혈연적인 관계는 더욱 깊어만졌다. 그러나 오직 한사람, 한인규로인과 그와 사이에 맺힌 개인적인 반목은 옹매인 노곤처럼 풀려지지 않았다. 김봉준은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한인규로인을 즉시 석방하였다.

그는 로인에게 말하였다.

《내보낸다고 해서 령감에게 잘못이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어야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난 장군님의 본부가 아니었다면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겠소...》

김봉준은 로인이 정신을 차리도록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인규로인은 말없이 김봉준을 쏘아볼뿐이였다. 그후 김봉준이 길가에서 그를 만났을 때 지난날의 불쾌한 감정을 풀자고 먼저 인

사를 하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로인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못마땅한듯이 외면을 하고 말 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걸을 지나가버렸다.

김봉준은 군인민위원장으로 사업한 이래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가 일을 저질러 장군님께까지 심려를 끼치게 한 일을 생각할수록 로인의 소행이 패썹하기 짝이 없는데 이렇듯 모욕까지 당하고나니 참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저녁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이 가슴깊이 새겨진 김봉준에게는 오직 그 모욕을 참고 감수하는수밖에 없었다. 김봉준은 그후에도 로인을 만날 때면 먼저 인사를 하였으나 한인규는 완고하게 입을 다물고 변함없이 외면을 하였다.

5.1절 명절을 앞두고 한번은 군에서 처음으로 차판에다 수산물물 잔뜩 실어들여다 풀어놓았을 때 일이었다. 읍소비조합상점을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한인규가 해방이 되니 얼마나 좋은가, 1년 가도 고기교랑탕이 하나 구경할수 없었던 이 산골에 이젠 생선이 차판으로 쏟아져들어오다니 하고 못내 감탄을 하면서도 김봉준이란 사람은 이 좋은 세월에 옷사람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고 공공연히 악담을 퍼부으면서 어디 두고보자고 버든다지 않는가.

《두고보자!》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오직 인민정권에 앙심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버르는 계급적원썹들만이 하는 소리가 아닌가?

좋다, 어디 두고볼테면 보라지! 김봉준도 속으로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특히 정세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자 계급적원썹들이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군내무서에서는 후퇴직전에 때를 기다리며 준동하던 반동놈을 적발속청하였는데 그놈의 손에서 압수한 《군자치회》명단에는 한인규의 이름도 들어가있었다. 한인규로인자신이 직접 가담했는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놈들이 세운 계획인지 그것은 알수 없으나 어쨌든 놈들은 장차 미국놈들이 쳐들어오면 한인규를 《명예회장》으로 하는 《군자치회》를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원썹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자신이 이렇게 운신할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운명적으로 그와 마주치게 될 줄은?...

집안에서 킁킁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봉준은 그 소리에 정신을 가다듬었다. 개는 한참 짖어대다가 그쳤다.

...운명이란 이렇게 알곳고 피할길 없는것인가? 인간의 운명이 이렇듯 피할길 없는것이라면 그것을 피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받아나아가보자! 어쨌든 이대로는 살수 없는 몸이 아닌가. 그는 불

빛이 환한 창문을 향해 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가서 자기도모르게 앓! 하고 비명을 지르며 킁킁한 과수원석축밑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고말았다.

어둠속에서 개가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짖어대고 있었다.

×

김봉준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가다듬었다. 맨먼저 눈에 띈것은 노란 줄무늬가 간 도배지를 바른 낫선 천정이였다. 방 한쪽구석에는 서랍이 달린 앉은뱅이책상이 놓여있는데 그앞에 한인규로인이 책상우의 초불을 지켜보며 말없이 담배대를 물고 앉아있었다. 김봉준은 본능적으로 옆구리에 찬 권총을 손더듬해보았다. 그는 권총이 그대로 있을뿐아니라 폭신한 요가 밑에 깔려있는것을 깨달았다. 집안에도 들여놓지 않을것으로만 생각했던 로인이다. 어쨌든 고마운 일이다. 어쨌면 이 로인을 통해 대오와의 연계를 맺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겨났다.

밖에서는 좌- 하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이 펄럭거리면서 초불이 이리저리 흔들거렸다. 흔들거리는 초불은 갑자기 김봉준에게 어지럼증과 아픔을 느끼게 하였다. 그는 자기도모르게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갔다. 묵묵히 돌아앉아 담배를 빨고있던 로인이 그를 돌아다보았다. 다음순간 김봉준은 가슴이 섬쩍 내려앉았다.

로인의 랭담한 얼굴과 차거운 그 눈빛에는 지어 적의에 찬 비웃음까지 어른거리고있는듯싶었다.

(흠... 그럴테지...) 김봉준은 진한 눈섭을 찌프리며 생각을 굴리었다.

그는 로인에게 무슨 말인지 먼저 말을 걸고싶었으나 평소에 인사를 해도 외면을 하면서 범접할수 없게 원썹 치부하던 그에게 적당한 인사말을 골라낼수가 없었다.

《이렇게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다가 혹시 댁에 화라도 미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들이 욕실거리는 이란에말입니다.》

김봉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자 로인은 못마땅한 눈길로 그를 잠시 지켜보다가 끔! 하고 목을 갈며 외면해버렸다. 그리고 돌아앉은채 재털이에다 곰방대가 부러질듯 탕탕 재를 털더니 썸지에서 담배를 한줄 꺼내어 새로 다져넣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있었다.

김봉준은 흰 명주바지저고리에 공단조끼를 입고 버선에다 깍듯이 대담까지 매고 울방자를 틀

고앉아있는 한인규를 지켜보다가 그의 오른팔소매자락과 바지에 드문드문 피자국이 묻어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아마도 자기를 방안에 끌어들이다가 묻은 자국인듯싶다.

《령감님은 지나간 일때문에 저한테 아직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계시는것 같군요. 아니면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요. <이놈, 아직도 내앞에서 큰소리를 칠테냐? > 하고말입니다.》

김봉준은 룡담을 섞어가며 다시 말을 걸었다. 그러나 로인은 들은체도 안하고 돌아앉아 여전히 담배만 뽕뽕 빨고 앉아있었다. 다만 이따금씩 끄! 하고 목을 갈기도 하고 헛기침을 하기도 하였는데 보매 속이 몹시 뒤틀리는것을 가까스로 참고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김봉준은 또다시 상처자리가 쭈셔나서 신음소리가 터지려하는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숨을 헐떡이다가 열띤소리로 말을 이었다.

《령감님이 말하지 않겠다면 내가 까놓고 말하지요. 나는 우리 인민정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김봉준은 하던 말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로인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듯이 그를 향해 횡돌아앉았던것이다. 그는 입에 문 담배대를 빼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난 여직 인민정권을 반대한 일이 없네. 그러나 자네에 대해서만은 나도 도와주고싶은 생각이 없네, 없다니까!》

《그럼 나를 방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지요.》

《언제 내가 끌어들었나, 제발로 들어오구선-》

로인은 아니꼬운듯이 혀를 찼다.

김봉준은 입을 다물고 령감의 옷에 묻은 피자국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내가 정말 정신없이 제발로 들어온것이 아닐가? 그는 킁킁한 어둠속으로 굴러떨어지던 일이 되살아날뿐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봉준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을 걸었다.

《내 발로 기여들어왔단말이지요? 그럼 좋수다. 이제 내 발로 나가지요. 한데 보다싶이 난 돌아누울 기력조차 없는 몸이웨다. 그러니...》

김봉준은 숨이 가빠 말을 중도에 끊고 헐떡거리다가 다시 안간힘을 써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니 밖에 누구든 오게 해주시우. 령감님도 아다싶이 아래마을에 가면... 미국놈들이 있고 그 반대로 산에 가면 우리 동무들이 있지요. 치안대를 끌어오건 우리 동무들을 데려오건 그건 룡대로 하시오.

령감님도 알겠지만 나는 해방직후부터 오직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인민정권기관에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해방후 지난 5년간 우리 인민정권이 해온 모든 일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저를 도와주실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다르게 처리할것이고 그건 령감님의 생각대로 할 노릇이지요. 어쨌든 나를 빨리 내보내는 길은 그 길뿐이지요. 나도 더 폐를 끼칠 생각은 없수다. 내가 령감님의 성미를 잘 알듯이 령감님도 내 성미를 잘 알지 않소. 난 일생 놀리우고 천대받으며 살아온 몸이지만 남의 집에 가서 억지신세를 저본적은 아직 없는 사람이우다.》

김봉준은 예까지 말하고나니 숨이 턱에 닿아 씨근거렸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땀에 한벌 덮여있었다.

한인규는 입을 봉한채 말이 없었다. 퍼그나 오래동안...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진채 움직일줄 몰랐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고 한마디 하였다

《좋네, 정 그것이 소원이라면 그거야 못들어주겠나.》

로인은 결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닫이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뒤이어 안방에서 가족들과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좀있어 대문이 여닫기는 빠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김봉준은 자기도 모르게 후-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경솔하게 처신한것이나 아닐가? 만약 령감이 미국놈들을 끌고온다면...) 그는 만약의 경우, 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기다리려고 몸을 추슬러일으키다가 그자리에 다시 꺼꾸러지고말았다.

×

김봉준은 다시 혼수상태에서 벗어나자 빈방에 홀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숨을 가빠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시계는 이미 새벽5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로인이 떠난지도 이미 4시간이나 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도대체 이 로인이 어느쪽으로 갔을것인가. 미국놈들과 치안대놈들이 우글거리는 아래마을쪽으로? 아니면 우리 동무들이 있는 절골골짜기를 헤매고있는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덧쌓이고 마음은 더욱 초조하였다.

이따금씩 밖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마다 김봉준은 권총집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죽이며 창밖에다 귀를 기울이곤하였다.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안도의 숨을 내쉬고 다시 생각에 파묻혀있다.

로인의 발길이 어느쪽으로 갔을것인가.

로인이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을까?

그는 어떤 일인지 로인이 절 끝에 가서 우리 동무들을 찾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체되는것만 같았다.

설마 그가 정세가 변했다고 우리 인민정권을 반대하여 미국놈을 맞이하러 갔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포악한 그 왜놈들앞에서도 머리 한번 굽히지 않고 자기의 량심과 지조를 지키며 떳떳이 살아온 로인이다.

해방후 돈냥이나 가지고 잘살던놈들이 북반부 인민정권을 반대하여 이남으로 건너가갈 때도 김일성장군님을 지지하며 제고장에 발을 붙인 그가 아닌가?

비록 성미가 과격하고 고집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금사건을 제외하고는 언제 한번 우리 민주주의제도에 대해 불평을 부리거나 불만을 가져본 일 없이 변함없이 지지해준 그다. 그레놓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로인을 의심하는것이 공연한 신경과민인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그가 어째서 나를 그렇듯 원쑤처럼 적대시하고 끝끝내 곁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는가?

《두고보자!》고 버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비록 민족적량심은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그는 기본군중과는 다른 착취적근성을 가진 민족부르조이다.

우리 민주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음흉한 계급적 원쑤들이 언제 자기를 드러내놓고 정면으로 도전해나선적이 있었는가.

하물며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적들이 그를 리용하려고 하였는지 그것은 알수 없으나 어쨌든 《군자치회 회장》으로 지목되고있는 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를 의심하는것이 결코 공연한 의심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가 과연 어느쪽으로 가서 누구를 데려올것인가? 그의 머리속에서는 한인규로인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두 생각이 서로 머리를 추켜들고 었치락뒤치락 격투를 벌리었다.

그는 머지 않아 닥쳐올 자신의 준엄한 운명의 저울대우에서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가지 생각에 부딪쳤다. 그것은 자기가 만약 한인규로인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일을 옳게 처리하고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더 잘하였더라면 이런 시련의 고비를 겪지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이였다.

그레놓고 생각해보면 로인과의 관계에서 여직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인민위원장인 자신에게 보다 많은 책임이 있는것도 같았다.

그는 문득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살아났다.

《군위원장이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것은 가장 어려울 때 인민들이 얼마나 따르고 지지하는가를 두고봐야 알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일을 잘하느라고 애를 썼어도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을 잘못된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민정권에 대한 사업평가는 나나 동무가 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들이 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봉준은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한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진리를 절절하게 몸으로 느끼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려운 전쟁을 통해 군인민위원장이라는 자기 사업을 검열받고있는것 같은 련상에 사로잡혀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렇다. 그는 지금 이 시각 한인규로인을 비롯한 군내 수많은 각계각층 인민들로부터 지난기간의 자기 사업을 검열받으며 이제 생사운명이 좌우되는 준엄한 그들의 판결을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전쟁이라는 준엄한 심판대우에 자신을 세워놓고 해방후 지난 5년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았다.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법령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의 실시, 군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취급된 학교건설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그후 련이어 벌어졌던 수많은 회의들과 결정들, 사업계획과 총화사업들, 그것들은 그 어느 하나도 인민들의 행복과 떼어놓을수 없는 나무랄데 없이 귀중하고 보람찬 일들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방후 군에 처음으로 수산물들을 차판으로 실어들여왔을 때 읍소비조합상점에 모여들어 떠들썩거리던 인민들의 웃음어린 얼굴들이며 고심어린 노력끝에 군영화관이 건설되어 군에서 처음으로 《내 고향》이 상영되였을 때 영화관앞마당에 줄지어 들어서서 웃고 돌아가던 인민들의 행복한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되살아나는것은 다만 인민들의 행복에 겨운 웃음어린 얼굴들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군내인민들의 전변되는 생활을 묵묵히 그리고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던 한인규로인의 얼굴이였다. 만약 그때 일을 좀 더 잘했더라면...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인민들을 잘 돌보지 못하다보니 갖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찾아왔던 손님들도 있지 않았는가. 군인민위원장인 자기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어찌 한인규로인 한사람이라고만 단정할수 있겠는가?

그는 이 땅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그렇듯 한결같이 장군님을 흠모하고 높이 받들어모시는지, 그이께서 지니신 비범한 그 위대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것인지 이제야 비로소 어렵כות이나마 깨닫는듯싶었다.

보통사람들이 입고다니는 수수한 양복차림, 처음 대하는 낯선 사람들도 한가족처럼 품에 안기고싶어지는 미소어린 안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듯싶은 우렁우렁하신 친근한 음성,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지는듯싶은 환한 웃음, 시장기를 참으시려고 땀수 한그릇을 청하시여 맛있게 드시고 인민들로부터 다시 인민들속으로 떠나가시는 장군님! ...

김봉준에게는 그때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던 말씀이 다시금 가슴뜨겁게 울려왔다.

《...나나 동무가 일을 잘못하면 피로써 세워놓은 우리 정권이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것을 명심하시요.》

김봉준은 금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세상이 일찍 모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뜻을 높이 받들어 일해오지 못한것이 또다시 죄송스럽고 가슴아프게 뉘우쳐졌다.

갑자기 밖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는 갈수록 더욱 요란하게 더욱 사납게 무엇인가 당장 물어뜯을듯 으르렁거리며 짖어대었다.

긴장하게 창밖에다 신경을 도사리던 김봉준은 어둠속에서 요란하게 짖어대는 개의 짖음속에서 땅을 밟는 사람들의 발걸음소리와 말소리가 한데 섞여있음을 감촉하자 자기도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추슬러일으켰다.

그의 두눈은 열병환자처럼 번뜩거리고 심장이 터질듯이 방망이질을 하며 숨이 차올랐다. 권총을 거머쥔 그의 손이 소리없이 푸들푸들 떨리고 있었다.

이윽고 높아지는 발걸음소리와 함께 대문 열리는 삐걱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다시한번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저벅거리는 발자욱소리와 함께 가까이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으나 지나친 긴장으로 하여 그는 듣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이 순간 다만 그의 청각신경을 자극한것은 귀에 익은 《동무》라는 말이었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방문을 열고 맨먼저 얼굴을 들이민것은 군인민위원회 량정파장이였으나 그는 자기에게 그토록 낯이 익은 얼굴을 보고도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그를 지켜보고만있었다.

뒤를 편이여 교육과 지도원이며 상업과 지도원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맨마감에 방안에 들어선

것은 한인규로인이었는데 그의 코수염밑에는 고드름이 매달려있었다. 추운 밤길을 걷느라고 떠날 때와는 달리 밤새 절반으로 축이 간듯싶은 로인의 얼굴을 보자 김봉준은 웬일인지 갑자기 눈물이 콧 솟아올라왔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두눈을 습벽이며 자기도모르게 차거운 로인의 손을 꼭 움켜잡았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령감님은 아까 나만은 절대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김봉준은 눈물을 감추느라고 똥담을 하였으나 목소리는 떨리었다.

《나를 알길 어떻게 알아!》

로인은 성이 나서 버럭 고함까지 질렀다. 그는 김봉준에게 잡힌 자기의 한쪽손을 뿌리치며 고집스럽게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화를 냈다고 후회했던지 아까보다는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여전히 비뚤어진 소리를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그래 자네때문에 이 고생을 한줄 아나? ...장군님, 장군님이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김봉준은 그 소리를 들으니 웬일인지 더욱 목이 짹 메고 눈물이 불쑥 솟아올랐다...

(장군님!)

X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한인규로인에 대한 김봉준의 이야기를 깊은 관심속에 듣고계시었다. 김봉준은 이야기를 계속지으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군소재지를 해방하고 들어가보니 그새 그 로인이 수태 고생을 했습니다. 〈군자치회〉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적들이 팔세를 하다가 마감에는 잡아가두어놓았었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튿날 한쪽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새 수고를 했다고 인사를 했더니 대답도 없이 한동안 앉아있다가 장군님께서 무고하신지 안부를 묻더군요. 그래 아는대로 이야기해줬더니 감격하여 두눈을 습벽이며 몹시 기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전쟁을 겪느라고 사처에 쇠붙이들이 널려있는데 그것들을 건어다가 철제일용품을 생산하는 철제품공장을 경영해보겠으니 승인해달라는겁니다. 그래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적들과는 잘 싸웠지만 이 령감 머리속에는 아직도 자본주의가 콧 들어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입가에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주의깊게 그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갑자기 하하 하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흰 비말을 대공에 흩날리며 천길 바위우에서 쏟아져내리는 폭포처럼 웅엄하고 장쾌한 그이의 웃음소리에 주위가 갑자기 기쁨으로 출렁이는것 같았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यो. 일제때에는 민족자본가들이 우리와 손잡고 일제와 싸웠다면 오늘은 또 우리와 함께 미국놈들과 싸우고있지 않소. 뿐만아니라 이 어려울 때 미국놈들의 폭탄깎지를 주어다가 인민들의 밥가마나 전식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쟁기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소.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추락된 미국놈들의 비행기를 뜯어다가 훌륭한 생활필수품들을 만들고있더군, 요만한 국사발도 만들고 이만한 세수소랭이도 만들고 숟가락 저가락 별의별것들을 다 만들고들있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두손으로 크기와 모양을 형용해가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자고 술한 대포와 탱크 비행기를 끌고 왔지만 결국 그것들은 모두 우리 인민들의 국사발이 되고말았소. 그 로인이 아주 좋은것을 제기했소. 탓하지 말고 로인을 잘 도와주시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김봉준과 오래동안 이야기를 더 나누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우에서 취해질 대책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의 힘으로 풀수 있는것은 풀어 시급히 인민생활을 안정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할수 있겠느냐고 물으시였다.

《할수 있습니다.》

김봉준은 주저없이 대답을 올리였다.

《할수 있단말이지요?... 어떻게?》

그이의 안면에는 친근한 미소가 어리시였다.

김봉준은 잠간 생각하고나서 대답을 올리였다.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서 흥금을 터놓고 나라사정을 설명하면서 방도를 찾아내면 꽤 해낼것 같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말없이 김봉준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고계시였다.

《웁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인민들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할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일군입니다.》

조반식사가 끝난후 김봉준이 작별인사를 올리자 그이께서는 그를 배웅하시려고 장화를 신고 밖으로 따라나오시였다.

작별에 앞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한인규로인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였다.

《돌아가거던 로인에게 내 인사를 꼭 전해주시요.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어서 감사하다고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무가 그 로인을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사람이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로인을 공산주의사회까지 꼭 손잡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의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령님!》

김봉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수령님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앞마당을 지나오다가 흰뺨끼칠을 하다가 만 최고사령관동지의 침대를 다시한번 돌아다보았다.

(얼마나 검소하신분이신가.)

그는 절룩절룩 밟고랑을 밟고 걸어가면서 자기가 혹시 이삭배추를 다시 다치지나 않을가 조심스럽게 발밑을 살피고군하였다.

이 땅위에 돌아난 풀 한포기, 묘목 한그루, 이삭배추 한포기를 그저 무심히 스쳐지내지 않으시고 오직 인민을 생각하고 나라일을 헤아리시는 우리의 수령님!

김봉준은 수령님께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고 그이의 성스러운 발자국이 찍힌 이 땅우를 자기는 여직 무심히 밟고 걸어다닌 일이,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이 땅우에서 살고있는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여직 무심히 대하는 일이 한없이 죄스럽게 생각되였다.

그는 골짜기바닥에 내려서자 그이께서 서계신 둔덕우를 다시 우러러보았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으시고 한자리에 그냥 서계시였다.

이 순간 김봉준은 검정장화에, 수수한 솜외투를 걸치고 서계시는 그이의 거룩하신 영상이 마치 대지우에 뿌리를 박고 일떠선 산악처럼 거연히 우러러보였다.

그렇다. 지금 그이께서 딛고 서계신 땅밑으로 우리 인민정권의 억센 뿌리가 뻗어내렸고 수수한 솜외투를 걸치신 그이의 두어깨우에 수천만 우리 인민의 운명이 떠받들려있다.

아침해가 산마루에 솟아올라 대지우에 금빛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눈부신 후광에 휩싸여 서계신 거룩한 그 영상앞에 김봉준은 다시한번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인민의 축원

권창일

4월이 왔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4월의 명절이 왔다.

민족최대의 경사인 이날을 맞아 이 나라 집집의 창문들은 만경대를 향하여 열리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노래, 축원의 노래 설레는 아침바다와 같이 강산에 굽이쳐흐른다.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

속도전의 불바람 휘몰아치는 대건설장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노을이 하늘에, 땅에 온통 기폭처럼 펼쳐진 대야금기지에서 그리고 세세년년 흐뭇한 만풍년이 깃드는 조국의 풍요한 대지우에서 위훈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이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정 뜨거이 솟구친다.

축원의 꽃바다 영광의 꽃물결이 4월의 이 아침 만경대, 만경대로 굽이친다.

우리 인민의 명절중에서도 제일 기쁜 명절, 우리 생활의 기쁨중에서도 제일 기쁜 이날, 사람들의 꽃물결이 감사의 정, 축원의 정을 안고 달려가는 마음의 고향 4월의 만경대.

파쑈의 광풍 휘몰아치는 남녘땅에서 굴함없이 싸우는 혁명가들과 인민들, 이역의 하늘아래서 조국의 이름 목메이게 부르며 새로운 결의 가다듬는 해외동포들, 지구의 각이한 위도에 살아가도 자주성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세계수억만인민들의 마음이 어버이수령님 품으로 4월의 만경대로 달려온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 어찌하여 이렇듯 두터워만지는가. 수령님께 드리는 인민의 찬가, 만수축원의 노래 어찌하여 누리에 더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것인가.

력사적인 우리 당 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민들의 대군중시위를 본 유럽의 어느 한 집권당의 대표단 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혹시 어떤 나라에서 저처럼 많은 군중을 동원할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주석단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의 얼굴에서 읽을수 있는 저러한 진실한 감정, 뜨겁고 감동적인 신뢰와 흠모의 정은 결코 만 들어낼수도 없고 동원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리고 수십만군중이 한사람같이 것처럼 진심으로 당과 수령을 열렬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한다는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볼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 오랜 세월 대륙의 한끝에서 고아처럼 험벗고 추위에 떨던 조선, 압제의 사슬에 얽매이고 침략의 칼에 맞아 피흘리던 이 땅에 해방의 새 봄을 안아오시여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한 시대에 가장 흉악한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로정-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날로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손길아래, 지난날 《식민지적아시아》의 일각에 오래동안 락후한 나라로 남아있던 조선이 찬연히 빛나오르고 존엄과 긍지에 넘치는 우리 인민은 행복의 락원에서 부럼없는 새삶을 누리고있거니.

아,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이 영광, 이 행복을 그 어디에 견줄수 있으랴. 우리 혁명의 려명기,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따르고 모시려는 2천만동포의 열화같은 마음을 그대로 옮겨 혁명시인 김혁이 《조선의 별》을 지었던 그때로부터, 해방된 조국땅 3천리강산에 차넘치는 겨레의 심정을 그대로 시행에 담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지었던 그 나날을 거쳐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고 따르려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지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 향한 인민의 마음 변함없이 더 더욱 뜨거워만지거니.

노래하자! 이 강산에 넘치는 위대한 태양의 빛
발을.

노래하자! 이 땅에 차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리 인민에 대한 은혜로운 사랑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
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구가 생기고 사회발전의 력사가
시작되어 수수천년, 세기에 세기를 이어 인류는
진리를 찾아 사색을 계속하여왔으나 사람을 세계
의 주인으로 우주의 중심에 세우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
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천
명하심으로써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
사람의 역할을 밝히시였으니.

세상만물이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이 있음으로
하여 생을 받고 꽃피고 열매맺는것처럼 근로하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상으로
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찾고 보람찬 삶을 누
리며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사회정치적으로
버림받던 우리 인민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
고 근로하는 인민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력
사무대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시였거니 그 사랑의
력사를 어찌 말로나 글로써 다 할수 있으랴.

…해방직후에 있는 일이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들은 일제가
마쓰고 달아난 1호평로를 복구하고 첫 쇠물을 뽑
게 되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
서 그들을 찾아주시였다.

주홍빛 쇠물이 천만의 불꽃을 날리며 남비로
폭포쳐흘러드는 광경을 못내 만족한 기색으로 바
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어느분이
추상수동무요?》하고 한 로동자의 이름을 부르
시였다.

그때 모여섰던 로동자들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
다. 온 나라 만백성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께
서 한 평범한 로동자의 이름을 부르신것이다. 그
로동자 자신도 분명 제이름을 듣기는 하였으나 꿈
이 아닌가싶어 머뭇거리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해방전 수난의 나날엔 이름이 있어도 이름으로
불리우지 못하고 악착같은 왜놈들에게 《야》,

《오이》로 멸시의 발길질만 당하던 그였었다. 이
윅고 그 로동자가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올리자
수령님께서는 《아! 동무요? 정말 대단히 수고를
했습니다.》라고 하시며 땀에 절고 불에 그슬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자, 보라구. 우리 로동자들이 쇠물을 뽑
소. 왜놈들은 10년이 걸려도 복구할수 없다고 했
는데 우리 로동자들은 1년도 못되어 벌써 저렇게
쇠물을 뽑거든. 라고 하시며

《대단히 수고를 했습니다. 동무들의 손을 잡는
내가 행복하오. 이 평로를 복구한 동무들의 손을
잡으니 말이요…》하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아, 그때 우리 로동계급의 심정이 어떠하였으
랴. 근로하는 사람들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손을 잡으시는 자신께서 행복하다고 하실
때 우리 로동계급의 구리빛 얼굴로는 쇠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태우며 흘러내렸다!

바로 그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짓눌리고 억압
받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력사밖에서 버림받던
인민들에게, 학대와 모멸, 굴욕과 멸시밖에 모르
고 살던 근로대중에게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과
참된 삶을 찾아주시였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의 나날, 삼석의 한 마을을
찾으시여 지난날 제일 고생한 사람에게 좋은 집
을 주고 그의 이름을 문패에 큼직하게 써서 붙이
라고 가르쳐주시던 그 사랑속에서.

1948년여름 양덕휴양소에서 휴양은 한 로동녀
성이 사람다운 이름도 없이 그저 김애기로 불리
우는 사실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김복순이라고
지어주시던 그 크나큰 은정속에서 우리 인민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태
여났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도 같이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그이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있으며 수
령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위대한 정치적단결을 이
루고있는것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의 년대기를 돌이켜보면
준엄한 시련의 날도 많았다.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시련의 시기, 조국앞에
닥쳐온 너무도 엄혹한 현실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의 량심을 날날이 검열받아야 할 그 순간에도 로
동자, 농민은 물론 오랜 지식인들까지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장군님을 위하여 달려왔다.

락동강기슭에서, 태백산골짜기에서 짙은감발
을 하고 오직 수령님 품으로 수천리길을 달려오

던 그 흐름, 수천갈래 시내가 하나의 강줄기에 합쳐지듯이 오직 수령님 품으로만 달려오는 이 도도한 흐름을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막지 못하였다.

1959년, 이해에 만리 이역땅으로부터 조국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인류력사에는 전쟁과 기아로 민족들이 이동한 실례가 적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도 해방전 암담한 비운의 날에 수십만겨레가 살길을 찾아 고국을 떠났다. 그렇게 설음과 눈물을 안고 떠나만 가던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며 조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버이수령님 품으로! 수령님 계신 조국으로! 만경창과를 헤가르는 민족의 대이동을 20세기의 사가들이 목격했으니 정녕 만민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얼마나 따사롭고 거룩한 것인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간에 대한 더없이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우리 나라 최서북단에 가면 비단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다. 원래 여기에는 웬만한 지도에서는 흔히 생략되곤하던 몇개의 손바닥만한 진펄섬이 널려져 밀물에 잠겼다 썰물에 드러났다 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생활에 복무할 비단원료기지를 조성하시려 섬과 섬들을 편결하여 새 땅을 찾아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조국의 서해에 이전에 없던 새 섬이 생겨났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속에서 태어나 조국의 지도우에 새겨진 섬-그 비단섬에 갈바다 설레이던 어느해 8월이였다.

며칠전부터 내리던 비는 그치지 않고 세찬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섬기슭을 치던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길로 이 섬에 오시였다. 동쪽에 오르시여 끝없이 설레이는 갈바다를 바라보시며 갈밭건설의 새 전망을 밝혀주시던 어버이 수령님께서서는 섬을 돌아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당황하였다.

비내리는 섬길, 너무 질여 자동차도 들어설수 없는 그 길로 한없이 존귀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어떻게 모신단말인가!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절히 바라는 일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땅이 질면 걸어서라도 가보자고 하시며 비내리는 섬길을 걸으시였다.

인민의 행복과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이슬내리는 들길, 안개흐르는 구내길... 인민이 살며 일하는곳이면 그 어디든 다 찾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언젠가는 조국땅의 맨 동쪽 웅기땅에 가시여 우리가 농촌에 나와서 좋은 길로만 다니겠는가 하시며 진창에 빠진 승용차를 함께 미시며 거룩한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오늘은 또 조국땅 맨 서쪽의 섬에 오시여 내리는 비속에 사랑의 자욱을 옮겨주시니 정녕 이 세상 그 무슨 노래에 위대한 그 사랑의 사연다 담을수 있을 것인가.

백리청춘과원으로 이름난 과일군 북창분장에 가면 전설같은 이야기 스며있는 14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몸소 마련하여주시신 백리과원에서 일하는 행복과 영광을 금치 못하고있던 이곳 로동자들은 어느해 가을 평양에서 내려온 일꾼들이 수령님택 정원에 심을 사과나무를 떠가겠다고 하였을 때 너무도 기뻐서 그중 잘 자란 6년생사과 나무 14그루를 정성담아 떴다.

그런데 이 사연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땀을 흘려 키운 재부들을 이렇게 뽑아오면 되겠는가, 도로 가져다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야 새로 어린 나무모를 구해다 심으면 될것이 아닌가.

이 얼마나 인민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신가. 백리과원에 설레이는 수천그루의 나무중에 14그루의 사과나무가 무엇이랴. 그러나 거기서 열리는 열매마저 모두 인민에게 돌려주시려 도로 가져다 심어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북받쳐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여기에 오스트랄리아의 기자이며 평화인사인 스탠리 무어의 시가 놓여있다.

이 시는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꾸려주시신 평양과수농장에 나가보고 쓴 것이다. 그는 농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꽃피는 과원에 뜻하지 않은 폭풍이 다가오던 날 밤, 혁명과 건설의 전반을 보살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도 몸소 전화를 걸어오시였다.

《수령님! 과원이 중하다 한들 이 한 과원이 뭐길래 새벽닭이 우는 이 밤에도 잠을 못이루십니까!》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에 목메여 이렇게 부르짖는 이곳 로동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사나운 폭풍도 꺾을수 없었다.

과원에서 들은 이 이야기는 스탠리 무어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켰다. 그는 펜을 달리었다.

그대여

보라! 들으라.

폭풍을 헤가르며 우리를 뚫고 올려오는 저 소리

그대, 농장사무실에 올려오는 전화종소리 듣는가?

엄하고 단호하고 사랑에 넘친 저 음성.

-폭풍은 지나갈것ियो.

우리의 과원은 폭풍을 이겨낼것ियो.

동무들, 용기를 내시오.

저 목소리, 저 눈길에

비구름은 산산이 흩어지고

번개와 우리는 황황히 제소굴로 돌아가고

마침내 자연은 사나운 날개를 접고야말았도다.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은

폭풍을 막아내고 우리를 밀어가셨나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발에 비하면

번개불은 반디불과도 같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의 음성에 비하면

우리는 풀벌레소리와도 같고

수령님의 크나큰 권위와 위신에 비하면

폭우는 오히려 아침이슬과도 같나이다.

지금은 아침,

폭풍이 지나간 과원엔 해발이 눈부시고

주렁진 과일을 떠받든 나무들은

환희에 넘쳐 노래하고있어라

설레이며 노래하고있어라

위대한 사랑의 노래

태양의 노래를.

정녕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심려에는 끝이 없으시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을 력사의 창조자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영원한 은인이시며 끝없이 행복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하기에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어떤 역경, 어떤 시련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다하려는 열화같은 맹세 뜨겁게 흐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세차게 끓어번지는 한 우리의 전진을 멈춰세울 그 어떤 힘도 이 세상에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광스러운 당 제6차대회에서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투쟁강령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우리를 영웅적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대회가 내놓은 휘황한 설계도를 안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가까운 앞날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아, 혁명의 봄, 만민의 가슴에 찾아온 4월의 봄명절, 강산에 넘치는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노래, 충성의 노래여,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영원히 울려퍼지라.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렵니다

위대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인민들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만경대고향집

정호수

언제나 그리워
조국땅을 밟았을 때
먼저 찾은 고향집이건만
다가서는 이 걸음
왜 이다지도 더딘것인가

고향집 사립문은
나를 부르는듯
저기 열려있건만
울렁이는 가슴
어찌하여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것인가

두툼한 초가이영
낮익은 추녀
키낮은 울바자
눈을 감아도 보여오고
눈을 감고서도 들어설 고향집이건만-

바로 이 집이여라
찬바람 부는 이국땅
기침 깃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리어
집 없이 헤매일 때도
만경대고향집이 있어
우리에게는 집이 있었노라

바로 이 집이었어라
눈깊은 북해도
공화국기 날리는 우리 학교
눈에 묻힌 30 리 먼 길이어도
만경대고향집으로 가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눈바람 헤치고 헤치었어라

산을 올라도
만경봉에 오르는

그 마음으로 올랐고
하늘에 비낀 무지개를 보아도
저 만경봉 푸른소나무에 올라선
그 마음으로 보았노라

아, 만경대고향집
고향집으로 달리는 우리 마음
그 누가 막아설수 있었으랴
우리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의 조국으로 가는 그 길을

만경대고향집
그것은 준엄한 날에
우리 간직했던
조국의 따사로운 품이였고
찬바람 부는 이역의 하늘아래서
우리 간직한
한없이 은혜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품이었어라

우리러 바라보는
저 만경대고향집이
우리에게 있어
이역땅 어디를 살아도
가슴을 펴고 살아가노라

저 만경대고향집이 있어
칠십만 재일동포
하나의 지붕아래
웃으며 살아가노라

만경대고향집
아, 조선의 고향집이여!

만경대의 목란꽃

안 룽 호

사람들은 누구나 꽃을 사랑한다.

아름답고 순결하고 향기로운 꽃의 속성에서만
이 아니라 자기의 희망과 생활과 앞날이 꽃처럼
영원히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으려는데서부터 꽃을 사랑한다.

더우기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꽃을 관상용
으로나 장식으로가 아니라 아름답게 만발하여 향
기를 뿜어 영원히 끝없는 영광과 충성의 마음으
로 피우는것이다.

이처럼 우리 시대 사람들의 꽃에 대한 감정과
취미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이다. 하거늘
꽃은 그대로 자연의 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성
과 충성의 마음을 담은 상징이다.

나는 이것을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
대에 심어진 두그루의 목란꽃을 놓고 더욱 새삼
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황해북도의 소년들이 떠다심은 목란꽃
이었다.

만경대를 찾아오는 사람들모두가 혁명사적관
좌우 입구에 유묘나게 설레며 만발한 두그루의
목란꽃을 유정하게 바라보며 잊을수 없는 인상으
로 받아안게 되리라.

오른쪽의 나무는 10점최우등생들이 눈내린 겨
울날에 떠서 수백리길을 크나큰 영광과 기쁨 속
에 와서 심었다는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왼쪽의 목란꽃나무다.
이 나무는 여름에 떠다심은것이라는것이였다.
예로부터 여름철에는 나무심기를 못하는것으로 일
러왔다. 그러나 나무가 요구하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여름에도 나무를 옮길수 있다는것
을 안 그들은 수십권의 생물학과 원예학 책을 읽
기도 하고 전문가들을 찾아가 알아보기도 하며
뜨락에 심어놓고 옹근 한달동안 관찰하여 확신을
얻은끝에 떠다심은것이였다.

물론 이것이 그 어떤 빛나는 혁신적위훈이나
영웅적미거는 아니라해도 생각할수록 감동을 자
아내는 이야기였다.

훈풍에 연록색 잎사귀를 살랑거리며 즐거움에
춤을 추는듯 목란꽃은 소담스럽게 눈같이 흰 꽃
송이로 혁명의 요람지를 더욱더 아름답게 수놓아

주며 만사람의 마음속에서 더욱 활짝 피어나는것
이었다.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발걸음을 옮길줄 모르는
사람들가운데 서있던 외국의 한 벗은 이 사연을
듣고는 열정에 넘쳐 말하였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조선의 아이들인가! 붉은
넥타이 날리며 철부지나이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
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그 자그마한
가슴속에 목란꽃을 안고 수백리를 행군해와서 심
었다니 세계에 이런 기록한 소년들이 또 어디 있
겠는가.

아니 그 애들의 심장은 작은것이 아니다. 한발
자국 걸어도 충성의 높은 뜻으로 크게 고동치고
한순간을 살아도 주체의 숨결로 억세계 맥박치는
그 애들의 심장은 벌써 년령과 체격의 한계를 뛰
여넘어 혁명전사의 불타는 심장으로 커가고있
다!》

예로부터 조선민족을 《맑은 아침의 나라》의
다정다감한 감정정서를 가진 인민으로 일러왔지
만 오늘과 같이 사상도덕적품격과 가장 숭고한
감정세계의 상상봉에서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
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다는 없다. 진정 무엇이 어린이들의 마음마저 그
처럼 활짝 트이고 자라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행복이 너무도 크고 받아안은 영광이 너무도 은
혜로와 축복속에 자라온 주체형의 붉은 피만이
끓어넘치는 혁명의 새세대들이 아버지수령님께
바치는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표현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의 열도이다.

그것은 또한 항일혁명투사들이 조국진군의 나
날에 향기로운 연분홍진달래를 꺾어 아버지 수령
님께 정중히 올리던 그 뜨거운 마음과 숨결을 받
아안은 우리 인민의 깨끗한 마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역사와 인류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
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지
지와 신임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는 하늘과 땅을 다 합친대도 비길수 없이 크고 자애로운것이다.

하기에 일편단심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것이다.

그러고보니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앞에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는 명절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며 행복이 차넘치는 집집의 해보마다에 한뼘한뼘 목란꽃무늬가 곱게 수놓아지는 그 깊은 뜻에 대하여 다시금 뜨겁게 느끼게 된다.

봉건의 예측과 굴욕 속에서 행복을 그리며 우리 녀인들이 정가로운 우물가에 앉아 봉선화 꽃잎을 손톱눈에 물들이며 수집계 얼굴을 붉히던 지난 시대의 감정이 아니었다.

나라가 망국노의 설움에 피눈물을 뿌릴 때 겨레의 슬픔을 안고 뜻있는 지사들이 고국산천을 바라보며 울밀의 무궁화꽃나무를 부여안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던 시대의 감정은 더욱 아니다.

봄이면 산기슭에 울긋불긋 피어난 연분홍진달래를 즐겨했고 가을이면 바위부리에 단풍이 붉게

타는 수려한 조국강산을 노래하기도 한 인민, 그토록 꽃을 사랑하는 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꽃에 대한 그 소박한 미감과 정서는 은혜로운 태양이 빛을 뿌리는 오늘에 이르러 행복과 환희로운 삶을 두고 벽찬 시대를 두고 고마움과 감사의 념을 담은 고상하고 숭엄한 감정으로 더욱 활짝 자라났다.

아름다운 꽃이 망울지고 부풀어 있을 활짝 피고 향기를 풍기듯이 우리 인민들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흠모의 감정은 변함이 없는 목란꽃같이 깨끗하고 밝게 피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그대로 온 나라가 충성의 꽃바다로 되는것이다.

만경대에 핀 꽃송이, 그것은 곧 우리 인민의 얼굴이며 마음인것이다. 이 마음들은 벽찬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행복과 번영의 락원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거창하고 도도한 충성의 흐름으로 굽이칠것이다.

조선의 꽃! 충성의 꽃이어! 주체조국의 빛발을 안고 수려한 강산에 억년토록 꽃피라.

영생하는 꽃으로 무성하게 설레이라.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드립니다

기리수 사르마

아, 위대하신 수령님이시여
인민의 경애하는 령도자이시여
당신께 천만번 인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주체사상을 안겨주시였기에
인류는 영원한 삶을 누리나니

당신께서는 말씀하시였어라
인류는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고
당신께서는 가르쳐주시였어라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당신의 사상과 실천 사이에는
한치의 드림도 없나니
하여 인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끝없이 귀중한 재부로
백과전서적인 사상, 최고봉의 사상으로 칭송하노라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실현하여
인류의 새세상, 인민의 락원 일떠세웠나니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전세계 인민들도
자기 나라 건설에 구현할 그날을 앞당기리
하여 인류에게 이바지하신
당신의 공적 영원히 빛나리라

아 위대한 수령님
당신께 천만번 인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자는 인디아 주간지 《잔산자》 주필임-

별이 빛난다

남대현

무릇 사람들은 예로부터 간절한 소망이나 기원이 있을 때면 그 뜻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에 붙여왔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고작은 이영우에 흰 박꽃이 초불처럼 피어난 여름밤 구수한 모기불냄새를 맡으며 명석우에 드러누워 이렇게 외워보던 동요시절의 애뜻한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을것이다. 별처럼 많은 복이 차례졌으면 하는 천진한 기대와 멀고먼 앞날에 부디 별같은 광망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순진한 마음으로.

별!

그처럼 막연한 동경으로만 쳐다보던 별이 점점 뚜렷한 의미를 가지게 된것은 우리의 가슴속에 더없이 애절한 꿈이 새겨진 때부터였다.

암운에 뒤덮여 신음하던 조국땅, 어디를 바라보아도 한줄기의 광명조차 찾아볼길 없었던 칠칠혹야 그 수난의 나날에야 무슨 기쁨이 있었고 무슨 보람이 있었으랴. 하지만 사람들은 설움에 멎든 가슴을 부여안고 피눈물을 뿌리면서도 멀리 북쪽 하늘에서 새별이 반짝일 때면 환희에 차서 부르짖었다.

《야- 별! 백두산장수별이예요. 저 별이 비치는 데선 왜놈들이 그저 무리로 녹아난대요.》

애오라지 바라던 우리 인민들의 이 념원, 그것은 벌써 별에 붙이는 단순한 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국땅을 칭칭 감고 악착스레 피를 빨아대는 독사-일본제국주의를 서슬푸른 장검으로 동강내시는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감사였고 다함없는 고마움이었으며 하루빨리 휘황한 앞날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였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 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

짓밟힌 조국에 동이를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2천만동포가 애타게 바라보던 조선의 별-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믿음은 이리도 간절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민족의 천추의 념원과 함께 그 소망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원수를 쫓아 백두의 산밭을 주름잡으시던 **김일성**장

군님께서 로야령귀틀집의 한 로인에게 하신 말씀이 가슴뜨겁게 사무쳐온다.

살길을 찾아온 이국땅에서까지도 이처럼 해빛도 보지 못하고 숨어살아야 하시니 젊은 조선의 아들들의 죄가 큼니다. 그러나 꼭 믿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조선의 남녀로소들이 밝은 땅에서 기를 펴고 살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그때부터 해빛밝은 락원의 강산에서 꿈처럼 살아가게 될 그날을 그리며 머리에 반짝이는 새별을 더욱더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되새겨보자. 정녕 그때 그이께 바치던 우리 인민의 열망이 단지 별빛에 지나지 않았었던가. 아니, 위대한 장군님께 향하는 인민들의 소망은 그보다 천백배 더 뜨거웠 것이었다. 오죽이나 그 마음이 열렬하고 오죽이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이를 한별에만 비하랴싶어 태양으로 우러러 모시였을가.

《이 나라를 밝히시는 밝은 태양이 되여주시옵소서.》

겨레의 불같은 념원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압제의 쇠사슬을 영영 끊어버리시고 이 땅에 찬란한 금빛해살을 뿌려주신 그날, 바로 그날에야 우리 인민들은 난생처음 설음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어제날엔 《별 하나 나 하나》하며 앞날에 대한 애뜻한 기원을 별에 붙이던 어린이들이 오늘은 별보다도 더 많이 차례지는 행복에 넘쳐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냐》 하고 노래 높이 부르고있으며 바로 그러기에 것처럼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 묶여 피눈물을 흘리던 이 나라 인민들이 오늘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주체조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높이높이 서있는것이 아닌가!

그날의 새별이 태양으로 솟아올라 광휘로운 빛을 뿌리고있는 우리 조국!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의 태양
내 조국 찾아주신 해방의 은인
.....

우리는 이 노래를 즐겨부를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하나의 소중한 생각이 저절로 솟구쳐오른다. 그것은 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이 땅에 솟아오

른 태양이 생각되듯이 태양에 대한 이 송가를 부를 때면 그 태양의 품안에서 태어난 오늘의 별을 두고, 백두산장수별이 태양으로 솟아나 찬연한 빛발을 펼쳐주듯이 미구하여 우리 조국을 더욱 온 누리에 펼쳐줄 그 향도의 별에 대해.

은혜로운 태양의 빛을 이어 빛나는 영광의 별! 위대한 태양과 함께 찬연히 빛나는 영원한 별!

사람들은 예로부터 만물에 빛을 주고 생을 주며 앞길을 밝혀주는 해와 별을 두고 자기의 운명을 의탁할수 있는 위대한 상징으로 우러러왔다. 하지만 낮을 밝히는 해와 밤에 빛나는 별을 한하

늘에서 같이 볼수는 없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인민만은 오늘 한없이 파사로운 태양과 함께 휘황찬란한 그 별을 보고있다. 찬란한 향도성, 그 별빛을 우러러 행복에 넘친 자랑찬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이다.

어제날엔 간절한 소망과 기원을 안고 바라본 별이라면 오늘은 더욱 휘황할 래일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과 신심에 넘쳐 뚫어오르는 경모의 정을 안고 뜨겁게 뜨겁게 우러러보는 별이다.

아- 별이 빛난다. 우리의 향도의 별이.

가시는 길은 눈길 삼백리

변흥영

눈덮인 광야우에 해는 짧은데
가도가도 기다린듯 다가만서서
태고의 밀림속
눈길 300 리

한대의 소발구에
가난한 이사짐을 실으시고
무송을 떠나시여
눈길 300 리

어디바루냐, 아득한 저 한끝
사나운 칼바람을 맞으시며
강반석어머님 가시는 안도땅은
그 어느 울울창창한 수림지대인가

거기엔 없었다
어머님을 맞아줄 일가친척도
거기는 낯선 땅
산천도 사람도 생소한 고장

거기엔 없었다
봄이면 살구꽃에 묻히던
추녀 낮은 정든 집도
백양나무 설레이는 정겨운 생불터도

아,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시려
만경대를 함께 떠나신 김형직선생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먼데
무송땅에서 너무도 일찌기 영결하시고

아버님의 뜻이 어린 두자루의 권총을
소중히 품으시고
만주광야를 넘나드시던 아드님
차디찬 길림의 철창속에 계시고

앞에선 알길 없는
시련의 침침 산발이
눈보라를 휘뿌리며 다가서건만
어머님께선 선뜻 떠나셨구나

그것이 눈서리 덮인 강산에
양춘을 불러오는 길이었기에
그것이 조국해방을 이룩하실
아드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기에

나라 잃고 헤매이는 겨레들에게
조국을 안겨주는 길이 된다면
천리인들 못가랴
만리인들 주저하랴

천만의 혁명대오로 백두산아를 떨치실
아드님의 큰 구상을 받드시여
어머님 가시는 눈길
300 리

어머님께선 이제
밀림속 정적만이 고요하던 안도땅에
성스런 해방의 불길을 지피시고
그리운 아드님을 찾으시리니

사나운 칼바람을 헤치시며
눈길 300 리
강반석어머님 안고가신
그 뜨거운 념원, 숭고한 뜻은

아, 력사의 봄을 맞은 안도땅
장군님께서 창건하신
조선혁명의 첫 무장대오우에
아침해발로 찬연히 빛나고있으랴

과원은 노을에 물들어

황승명

과원은 노을에 물들어
층계층계 하늘가에 치달아오르고
나는 목메이는 향기에 젖어
층계층계 걸음마다 생각을 안고
이고장의 산발을 더듬는다

장자산 봉화재 두루봉
끝없이 잇닿은
비탈에도 언덕에도
주렁진 과일을 한껏 익히며
끝없이 설레이는 북청의 산발이여!

나의 머리우에
오늘도 그 해빛은 따사롭고
너의 부드러운 흙발엔
오늘도 그 사랑이 스며흘러
못견디게 속삭여주는
과일숲의 그 말을 나는 듣는다

봄비에 찬이슬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산비탈 풀숲을 헤쳐가시던 어버이수령님
어제날 산이 많아 한이 많던 이 땅을
오늘은 산이 많아 기쁨도 자랑도 많은
살기 좋은 락원으로 꽃피워주신 그 사연...

산자락에 소문없이 피어나던
몇송이 과일꽃에서도
온 나라에 피여날 과일동산을 안아보시며
오래오래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아, 여기
이름없던 한 마을
산기슭 작은 선전실에서
당중앙위원회의 큰 회의를 여시고
계단식과원의 새 역사를 펼치시며
위대한 결정을 내리셨구나!

과일나무 심는 일을
후대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이라고 하시며
크나큰 전변으로 부르시던 그 말씀

-산을 잘 리용하여
온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꾸립시다!

마치도 이날을 기다려
이 땅우에 산과 산이 솟아있었고
조국의 푸른 하늘이 열려있든...
온 나라 강산이 품을 벌리고
그날 여기로 달려오지 않았던가

한알의 사과에서도 조국의 향기를 안겨주시며
아동단에 보내주시던 그 사랑
이 산발우에 해빛으로 쏟아지고
남진의 길 불타는 도화장에서
나무모바리먼저 건네여주시던
그 믿음이 여기에 꽃으로 폈거니

저봐라
산은 산마다 하늘높이 솟아
우리의 기쁨을 노래하는가
층층이 치달아오른 산중턱에서
삭도를 타고 붉은 열매 땅우로 내려온다

그 사랑 그 은덕 길이 전하려
이 땅의 산발들은
그대로 억년 드림없을 사적비로 솟은듯
거연히 머리들었구나
그대로 영광에 찬 비문의 글발인듯
주렁진 과일들은 빛을 뽐는구나

아름다운 과원, 은혜 받은 땅이여
어버이수령님 사랑의 손길에
설레이며 봄이면 꽃들이 피고
홍치며 가을이면 백과 주렁지는
내 나라는 과수의 나라

아, 지난 세월엔 돌이 많아 설음 많던 산발도
오늘엔 행복의 열매 무르익히며
인민의 크나큰 자랑과 기쁨으로 솟아
온 나라에 끝없이 이어졌구나
온 나라에 끝없이 설레이누나.

시초

봄날의 과일동산

김재원

비내리는 봄날에

나무마다 뽀야니
봄물을 올리려나
보슬보슬 봄비 내리는
과원의 이 아침

봄외투 가벼이 젖히신
어버이수령님
젖어드는 백리과원 정거이 보시며
천천히 과원길을 걸으시여라

길우에 드리운 나무아지
손수 즐거이 받쳐드리고
아직은 아지속에 스며있는
꽃눈 잎눈도 세여보시는듯

보슬비는 축축히
과원길에 내리는데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또 멈추시며
아지마다 주렁질 과일열매 그려보시는가

아, 과원백리에 사과향기 넘쳐날 때
나무나무 과일나무 열매로 주렁질 때
어버이수령님 기쁨속에 모시려
과원은 빨강게 물들어있었던

기다리고기다리던
가을날엔 못오시고
보슬비 내리는 봄길에 오신
우리 수령님

따르는 과원의 마음
꽃으로 피고
우러르는 간절한 마음
열매 되어 가을날에 모시고싶어

사랑의 앞길에 머리 숙여
삼가 심정을 올리여라
가을날에 가을날에
어버이수령님 꼭 오셔달라고!

그 마음 속속들이 헤아리시는듯
우리 수령님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무르익는 가을의 백리과원을 그려보시며
봄비 내리는 과원길을 걸으시니

아아! 어버이 그 사랑에
꽃눈이 피어나는 백리과원이여
인민들에게 가을날의 기쁨을 주시려
이른봄, 수령님께서 봄비속을 걸으시여라!

과일동산처녀들

류달리도 하늘 맑아
아지랑이 아물대는 화창한 봄날
휴가배낭 풀자마자
삽자루 잡고 나는 나섰네, 백리과원에

나무마다 듬뿍듬뿍 거름을 내던
과일동산처녀들

초소의 휴가병사 나왔다고
삽자루 빼앗으려네, 저마다 앞을 다뒀

그럴수록 폭폭 거름더미 축내니
병사의 일숨씨가 다르다고
처녀들이 보내는 정다운 말
그 마음들에 내 일손은 더욱 흥겨워

처녀들이 웃으면
 어쩐지 나도모르게 따라웃고
 일손이 즐거워 코노래 흥얼대면
 어쩐지 처녀들도 하나처럼 따라부르고
 웃음 많고 룡도 잘해
 명랑하고 유쾌한 과일동산처녀들
 일손은 얼마나 날래고 깐지고
 정성은 그 얼마나 알뜰하고 지극한가

해종일 웃음속에 노래속에
 나무둘레 멀리멀리 잔뿌리 하나 다칠세라
 알뜰살뜰 흙을 파며 거름을 주며
 땀을 심네 마음을 심네

땅이란 무엇이고
 흙이란 무엇이라
 바치는 사랑
 가꾸는 그 정성

걷는다는것은
 얼마나 좋으나
 사과꽃 만발한
 해질녘 과원길
 휴가병사 나는야
 걸어가네, 흥에 겨워

과원길은 좁은 길 넓은 길
 길마다 향기로다
 마음인듯 정성인듯
 떨기떨기 꽃떨기
 바라보면 수집어
 땅에 떨어질듯

걷는 길 모두가
 황홀경이니
 꽃에 반해
 향기에 취해

처녀들의 그 마음 그 정성이
 뿌리마다 스며들어
 사랑거리는 가지끝에 꽃은 피고
 꽃핀곳에 열매는 달리는것 아니라

그렇건만 내 초소의 명절날
 식탁에 향기롭게 오른 사과를 놓고
 고향의 과원 자라는 하면서도
 자랑 못했더라, 고향처녀들의 숨은 그 마음

아니라, 백리과원에 구름같은 꽃
 내 고향 처녀들의 아릿다운 모습이
 청춘과원에 알알이 주렁진 열매
 과일동산처녀들의 어여쁜 얼굴이

아, 가을날 어디나 풍기는 과일향기는
 과일동산처녀들이
 봄철에 심는 살뜰한 마음
 그 마음 병사의 이 가슴 후덥게 하네

과 원 길

동쪽이라 서쪽이라
 향방 없이 걷는 걸음

문득 등뒤에서
 야무지게 야무지게
 울리는 호각소리
 내뒤를 따르며 달려오며
 다급하게 불어대는
 호각소리 호각소리

어리둥절 돌아서니
 머리수건 빨간 어여쁜 처녀
 미안한듯 머리 다소곳이
 얼굴 붉히며 속삭이는 말
 ...저, 사과꽃이! ...
 그리고 고는 친절히 넓은 길 가리켜주네

그 한마디 남기고

처녀는 걸어가네
 마치 하늘선녀 구름길을 가는듯
 스치는 옷자락에
 꽃잎이 떨어질세라
 디디는듯 마는듯 사뿐사뿐 걸어가네

내 꽃에 반해 향기에 취해
 미처 몰랐구나 과원의 마음
 가을날 백리과원 어디 가나
 지켜보는 사과지기 하나 없어도

꽃피는 봄날엔 가꾸는 마음
 백리과원을 안고 사는줄

처녀는 사라졌어도
 내 귀엔 들려오네 그 호각소리
 아아, 그 소리 가을날 씁없이 울리는
 기적소리 경적소리로
 매대앞에 흥성이는 웃음소리로
 내 귀엔 들려오네, 정답게 기쁘게-

과원에서 부르는 노래

병사가 왔다고
 아들이 왔다고
 이리도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느냐
 고향이여, 백리과원이여

내 너를 떠나 멀리
 그 어디 갔어도
 잊지를 앓았노라 너의 향기
 잊지를 못했노라 너의 빛갈

내 초소로 가던 날
 마을사람들은 안겨주었지
 고향을 떠난다고, 안고 가라고
 사과 한배낭

그리고도 떠날 때
 나를 따라 렬차를 따라
 너르나너른 백리과원
 통채로 설레며 끝없이 따라섰고

근무와 훈련의 나날에도
 너는 자주 나를 찾아왔었다
 신입병사의 곤한 꿈속에
 젊은 하사관의 다감한 공상속에

은정에 설레며 백리
 사랑에 설레며 천리

더듬어도 더듬어도 기슭이 없는
 행복의 동산!

핑굴며 뛰놀며 안겨살 때엔
 미처 알지 못했던것
 떠나 멀리서 깨달으니
 더욱 귀중한것

내 강행군길에 목이 탈 때
 길가집어머니 손에 쥐여준 사과
 그때 그 사과 가슴 뭉클
 나의 집, 정든 고향 생각케 하지 않았더나

하기에 그 손에 수류탄 거머잡으면
 내 힘 백배로 용맹해지더라
 칼벼랑도 단숨에
 강얼음도 단숨에

과원이여, 고향이여
 떠날 때 배낭 하나 지고갔던 병사
 돌아올 땐 너에 대한 불같은 애정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왔으니

아 사랑의 과원에서
 내 부르는 노래
 과일이여, 너는 고향을 안겨주는 향기더라
 과일이여, 너는 조국을 알게 하는 빛이더라!

과원이여 만발하라

-북청군 통전리 문화협동농장을 찾아서-

방정강

4월의 싱그러운 바람결에 옷자락을 날리는 청춘과원의 첫기슭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북청땅!

정중히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른 다음 곧바로 그 이름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북청군 통전리 문화협동농장을 찾은 우리의 마음은 사뭇 설레이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변한 십년을 두번째로 맞이하는 감격은 자못 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자그마한 외진 마을에서 우리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여신 그날로부터 실로 20년세월이 흘러왔으니 그 어찌 감회깊지 않으랴.

산천도 그 모습을 몰라보게 바꾸고 사람들도 그 얼굴을 새로이 하였다.

무성한 사과나무의 년륜처럼 온 나라의 산밭을 과일동산으로 주름주름 잡으며 돌기돌기 과원의 년륜을 새겨온 자랑찬 20년!

새로운 한세대가 조국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자각하고 성장한 이 영광찬 스무해세월들은 우리 조국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밝게 수놓아온 빛나는 해들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청회의는 우리 나라의 과수업발전에서 커다란 역사적의의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가슴을 붕긋이 부풀게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한자한자 새기며 푸른 봄하늘아래 버들개지 햇숨을 날리는 통전마을어구에 들어서니 울해따라 과일꽃은 유별나게 피여 만발하였다.

장가산, 시루봉, 두루봉...

사과꽃, 배꽃으로 산마다 봉이마다 꽃병풍을 펴놓은듯싶다.

그 꽃물결은 연연히 뻗어간 산밭을 타고 고즈넉이 일렁이고있다.

비단우에 꽃을 더하면 그 아름다움 손꼽힌다 했건만 이 마을은 꽃바다우에 창광거리 새집들을 닮은듯한 탑식 새집들이 울긋불긋 솟아있어 그 아름다움 상으뜸으로 여겨진다. 거기에 빨간 이마를 높이 든 프락프락들이 꽃속에 숨었다 나타났다 숨박꼭질하고있어 참으로 볼만하였다.

꽃속에 솟은 마을!

꽃에 이끌리어 걸음걸음 옮겨 우리가 처음 닿은곳은 역시 꽃과 탐스럽게 주렁진 사과를 부각하여 새겨넣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

지지도사적비앞이었다. 머나먼 후날의 과일동산까지 꾸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자자손손 전하려고 시대의 아름다운 서사시로 새겨넣은 비문의 글발을 읽어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은 숭엄하였다.

우리는 사적비앞에서 산이 많아 사람못살곳으로 버림받은 이 마을에 나라일이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고 과일동산으로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곳 리당비서동무로부터 들으며 스무해전 4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열리였던 문화선전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 높지 않고 크지도 않은 집.

창밖으로는 프락에 심은 과일나무꽃가지들이 비껴드리우고 과원의 풍경도 내다보이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곳에서 력사적인 회의를 여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이 그들먹이 가슴에 안겨왔다.

주석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수수한 널마루 바닥, 보통책상, 나무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앉아계신 자리는 너무도 겸소하였다.

30대의 한창 젊은 나이에 당비서로 부임되어 온 이래 20여년간 줄곧 사업하여온 리당비서동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실적마다 수령님을 뵈가까이 모셨던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북청회의가 열리였던 당시를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아마도 우리 통전마을의 과일동산의 전변의 계기는 아니 우리 나라 과원의 획기적전변의 계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북청땅에 처음 오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뻗는 그는 인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머리를 쓸어들리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57년 3월.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청땅의 추녀 낮은 농가집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을 의논하시고계시었다. 수령님께서 농업생산을 여러모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일나무를 그 생물학적특성과 우리 나라 기후, 땅 성질에 맞게 심고 가꿀데 대한 주체적인 과수업발전의 길을 밝혀주시었다.

그때로부터 두해가 지난 1959년 10월, 룡전리를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먼길을 오신 피로도 푸시지 않으시고 곧바로 경사지파원에 오르시였다.

수령님께서 산밭들을 둘러보시며 산을 잘 리용하여야 우리 나라가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하시며 나라의 모든 산을 하루빨리 이렇게 만들자고 하시였다.

파수원터전도 더 넓게 잡아주시고 과일밭을 계단식으로 만드는 방법과 가지자르기법, 갖가지 품종배치 등 과일농사의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눈앞에는 복받은 산의 옛모습이 떠올랐다.

수령님께서 오시기 몇해전만 해도 저 장가산 비탈에 몇뼤기의 과일밭이 떠떠떠떠 널려있었다 한다.

그때의 산은 말그대로 상고머리산이었으리라. 수천년 잠든 산밭을 깎아내고 나무뿌리, 풀뿌리를 뽑아던지고 만년 끄떡없을 계단을 쌓아간 이고장사람들.

머리우에 붉고푸른 기밭들을 물결치듯 날리며 곡괭이로 푹푹 구덩이를 파고 한그루한그루 애된 과일나무를 심은 그들의 구리빛 얼굴들에 흐르던 땀방울들이 과일꽃우에 어려온다. 잊지 못할 그 가을로부터 두해가 지난 1961년 4월 4일, 아버지수령님께서 룡전마을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그날따라 왜 이처럼 질금질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지요.》

리당비서는 수령님께서 맞으신 그날의 그 찬비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내려가지 않아 닳빛을 흐리였다.

환호하는 군중은 수령님께서 찬비를 맞으시는 것을 걱정하고 수령님께서 군중이 오히려 걱정되시여 어서 들어들가라고 거듭 이르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인민과 함께 비를 맞으시며 한 일군이 우리는 우산도 마다하시였다.

후둑후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비발속에 그냥 계시며 군중의 뿜어넘치는 환호에 답례하시였다.

이윽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파수재배경험자들과의 협의회를 갈노전을 깬 기와 집방안에서 가지시였다.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어서들 좋은 경험을 나눠보자고 그리도 마음속을 넓혀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앞에서 농장원들은 앞을 다투어 소박한 경험들을 말씀드렸다. 인민의 지혜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아버지수령님 앞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목이 메였다...

그렇다.

력사적인 북청회의는 이렇게 마련되였다.

항일의 간고하던 나날에 삼천리 조국땅우에 백파수령진 인민의 락원을 세우실것을 무르익혀오신 그 원대한 구상, 파수업발전의 휘황한 미래와 함께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 과일나무를 싹은 차를 앞세워준 그 뜨거운 은정에 이어 북청땅의 산밭들을 수없이 밟고밟으신 그 거룩하신 자욱을 따라 마침내 력사적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마련된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더듬고있는데 조용히 묻어는 소리가 나더니 한 로인이 들어섰다.

알고보니 그가 바로 당시 파수작업반장으로서 수령님을 모신 북청회의때에 첫 토론을 한 농장원 오아바이였다.

때마침 잘 만났다고 생각한 우리는 그에게서 그날의 감격을 방불하게 들을수 있었다.

《정말 그때가 어젠가싶는데 내 머리도 반백이 되였습니다. 우리 수령님 앞에 서면 왜 그리도 어려움도 잊게 되고 말도 술술 잘 나가던지요. 나는 수령님 가르쳐주신 그 방법으로 과일농사 지은 경험을 이야기했지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토론을 주의깊이 들으시고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해야 기사, 기수가 되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바로 저런 동무들이 기사, 기수이며 박사라고 높이 평가하여 주시였다.

그날의 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파원을 지켜 곳곳이 일하여온 로인.

정녕 그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그날의 감격을 안고 젊음속에 사는것이다.

넓지 않은 방안 가득히 창문을 우렁우렁 울리시며 온 나라를 20만정보의 파수원조성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렁이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고장에 지피신 한점의 불꽃은 천만산밭들을 잠깨우며 룡원의 불길처럼 온 조국땅에 한꺼번에 번져갔다.

가까이로는 북청땅의 당우, 지만, 봉의... 멀리로는 송화땅의 백리파원 그리고 산세 험한 북방의 령밑에도 과일꽃물결은 빨리도 번져갔다.

우리는 력사의 그날, 이곳에서 울려 퍼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인민의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 귀가에 쟁쟁히 듣는듯싶었다.

우리는 집을 나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먼저 장가산마루로 향하였다.

봄꽃을 옷처럼 떨쳐입고 봉긋이 솟은 아름다운 장가산!

아버지수령님께서 처음 오르실 때는 새초며 떠풀, 엉겅퀴따위들로 덮여있었던 오일은 마치 온 나라 파원으로 들어서는 대통로처럼 길이 넓게 열려있었다.

장가산기슭에 이르니 한그루의 사과나무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한 일군은 이 나무가 바로 1898년생 나무라고 알려주었다.

1959년 가을, 불품없이 된 이 나무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나무가(당시 62년생) 바로 우리 나라 사과나무의 조상이겠다고 하시면서 100년을 기르자고 뜨거이 가르치시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 나무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이 한그루의 늙은 나무에서 우리 나라 기후와 땅의 성질에 적용되어 계속 꽃을 피우려는 그 곳곳함을 대뜸 찾아보신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만년 피여날 뿌리로 되고 가지로 뻗어 그후 이 사과나무는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날을 따라 젊어지는 사과나무로 되였다. 두번다시 청춘기를 맞이하였다.

지난해에도 이 나무는 탐스럽고 향기로운 사과를 수많은 주렁지웠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밀그루를 안아주신 나무를 비롯하여 만져주시고 가꾸주신 나무만 해도 이루 헤일수 없다.

진정 그 은정으로 이 마을 과일동산은 청춘과원의 영원한 본보기로 되고있는것이다.

아이들처럼 사과나무의 꽃송이도 세여보며 언덕으로 오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떨어진 사과 한알을 손에 드시고 손수 손수건으로 닦으시며 락파로는 엇과 짬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말씀하신 그 잊지 못할 자리도 보인다.

언덕이 가파로와 드문드문 층을 이뤄놓은 세멘트계단을 따라 한참 올라서야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차레나 오르셨던 장가산 정자에 올랐다.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와 이마의 땀을 식혀준다. 산마루에서 굽어보는 과일밭 풍경은 참으로 선경이였다.

이 아근의 과일밭뿐아니라 머나먼 백리과원의 꽃숲도 보이는듯싶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북청에 오면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앞에는 논판이고 뒤에는 과일동산이니 얼마나 좋은가고 말씀하신곳이 바로 이 장가산마루이다.

이 산마루에 오르시면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만족해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기뻐하실 때면 우리 인민은 가장 큰 행복속에 잠긴다.

우리의 생각을 깨칠가보아 오래도록 서있던 일군은 이윽해서야 맞은편 산비탈을 가리키였다.

《보십시오. 우리 농장에서는 거의 모든 과일밭작업이 기계화되고있습니다. 남천강 맑은 물이 양수기로 저 산등성이까지 오르고 43도를 오르

는 산밭로 저 삭도줄을 타고 비료와 농약이 절로 날라집니다.》

사실 그러하였다. 굵이굵이 뻗어오른 과일밭길로는 자동차, 트랙트르들이 줄지어 달릴수 있게 되었고 과일나무사이를 따라가며 비닐관들이 묻혀있어 약뽑는 일도 기계화되였다.

이윽도록 과일밭을 보고있느라니 어데선가 처녀들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그리로 걸음을 다우쳐가보니 꽃수건을 머리에 쓴 꽃다운 처녀들이 손에손에 꽃병과 붓을 들고 꽃가루 묻혀주기를 하고있었다. 한쪽에서는 붕붕 꿀벌들이 꽃가루를 나르고 한쪽에서는 처녀들이 꿀벌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있었다. 또 좀 가까이에서는 청년들이 계단을 따라 봄잔디도 곱게 입히고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통성을 하니 과수 2작업반 청년들이였다.

우리는 문득 생각되는바가 있어 청년들에게 나이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흥조를 띠우며 스물한살 혹은 스물두살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를 안내하던 일군이 기미를 알아차리고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저 젊은 남녀청춘들은 바로 력사적인 북청회의를 전후하여 태어난 청년들이라는것이였다.

우리의 가슴은 흥분으로 뛴뛰였다.

과원을 믿음직하게 맡아나선 청춘들!

어버이수령님께서 20여년전 바로 이고장의 자그마한 탁아소에 들리시였을 때 요람속에 있던 아이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 속에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새 대오로 시대앞에 활짝 꽃핀 젊은이들이였다.

우리는 장가산을 내려 영동탁아소와 위대한 수령님을 환호하는 군중모임터인 버드나무터 그리고 손수 물독과 밥사발까지 열어보시며 농장원들의 살림살이도 보살펴준 농가집들도 돌아보았다.

이고장에 걸음걸음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을 어찌 말과 글로 다하랴.

북청회의후만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마을에 여러번 찾아오시였고 때로는 멀리서도 잊지 않으시고 과원을 길이 가꿀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

산을 다 돌아보고도 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이제 또다시 이 좋은 4월의 봄날, 이 과일동산에 또 어떤 행복이 차례질것인가!

우리는 룡전마을의 과일꽃숲을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이곳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였다.

과원이여 만발하라.

만발하라 수령님 피워주신 꽃이여!

건설자들

-취재수첩에서-

한웅빈

...화학공장건설장으로 가는 도로는 지난밤에 내린 비때문에 그닥 좋지 못했다. 차바퀴자리와 물고였던 자리들이 움푹움푹 패여있었다. 그러나 걷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자동차운전사들이 들으면 분개할 일이지만 그 길이 나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다. 날씨도 무척 좋았다. 길에서는 벌써 먼지가 일고있었다. 오후시간이었다.

《건설장 1km》라고 쓴 이정표가 심각한 모양으로 서있는 산굽이를 돌아 건설장이 나타났다. 우뚝우뚝 일어난 건물의 억센 골격들, 기둥기둥, 은회색의 탑... 탕크와 배관들이 번쩍거렸다.

그때 길아래에서

《야- 정말, 왜 자꾸 이렇가.》

하는 안타까움에 젖은 말소리가 들려와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려다보니 한 처녀가 판자 두장을 어깨에 메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있었다. 너비와 길이가 서로 달라서 메고 일어나려 하면 판자들은 제멋대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며 차단표식처럼 X자로 되군했다.

처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다시 판자를 겹쳐서 일으켜세웠다. 긴장하게 어깨를 들이대며 웃머리가 제대로 붙어있는가를 조심조심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내려다보는 나의 시선과 부딪쳤다.

《어마나!》

판자는 다시 벌어지며 떨어졌다.

《야아- 정말...》

처녀는 한숨을 푹 쉬고 원망스레 판자를 내려다보았다.

《속상해 죽겠네.》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한숨을 쉬며 락심하는 것이 재미있었으나 웃을수는 없어서 엄숙하게 물었다.

《어데 가져갈거요?》

《건설장이지요 뭐.》

그는 호기심을 품고 나를 살폈다.

《우리 건설장에 가세요? ...》

우리는 판자를 한장씩 사이좋게 나누어메고 걸었다. 판자에서는 쌀쌀한 톱밥냄새가 풍겼다.

《...우리 건설장이 처음이지요?》

《처음이요.》

길다란 판자는 휘청휘청하면서 뒤꼬리가 땅에 닿아 누가 따라오는듯한 소리를 내군했다. 처녀

는 몇번이나 돌아보더니 속은것이 즐거운듯 나직이 웃었다.

《이 판자는 어데 쓸거요? 휘를 만들거요?》

《휘틀도 만들구, 참 어떻게 오세요?》

이런 재미있는 길동무에게 말하려면 어색해하는것이 나의 직업이다.

기자에게는 공식적인 말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일하러 오지요.》

《지원 와요? 그러잖음 배치됐나요?》

어느쪽이 더 그의 마음에 들가를 가늠해보고 나는 후자를 택했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쪽이 나자신으로도 더 마음에 들었다. 언덕길에 올라서며 나는 대답했다.

《배치됐소.》

《아이! 그래요? 정말 잘 왔어요! 정말 좋은데 왔어요!》

그의 말은 감탄사로 가득찼다. 그러나 나는 건설장에서 특별하게 좋은 점을 찾아보지 못했다.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미완성건물들, 삐죽삐죽한 골조들, 자재더미들, 파헤집어진 땅... 펄럭이는 구호와 기발들이 아니라면 어수선했어이기도 할 광경이다...

어느곳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건설장이었다.

처녀는 나의 기분을 알아차린듯했다. 민감한 동행자였다.

《내 말을 믿으세요. 우리 건설장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은 모를수도 있어요. 이젠 지내보라요. 내 말을 믿게 될거예요.》

그는 영성한 골조들우에, 파헤집어놓은 흙구덩이속에, 때로는 쌓아놓은 자재더미우에 10대전 망목표의 화학세계를 펼쳐놓기 시작했다.

《보이지요? 저기도... 저기도... 어데나 다...》

그는 가늘어보이는 팔을 들어 건설장전체에다 대고 반원을 그렸다. 상상적인 반원속에서 푸른 대기중에 솟아오른 은색탑들이 번쩍번쩍 빛을 뿜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도회에라도 가듯 가벼웠고 길은 그의 발밑에서 탄성체로 변하는것 같았다.

나는 차바퀴자리에 걸쳐여 비칠거렸다. 그는 부축해줄듯 손을 들었다가 슬며시 내리며 변명처럼 말했다.

《도로가 이렇게 된건 비때문이에요. 어제 비가 왔거든요.》

변명은 주인만이 하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린 며칠전에 포장도로보다 더 매끈하게 만들었었어요. 사로청원들이말어요. 그런데 그만 비때문에...》

그는 근심스레 차바퀴자리를 내려다보았으나 곧 미소를 띠었다.

《그래도 좋아요. 농장원들은 기뻐했을거예요. 무척! ... 길은 또 수리하지요 뭐.》

참말이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것이 무엇이라 ...

건설장을 둘러싼 나무말뚝울타리를 따라 우리는 정문으로 걸었다. 어느 한 말뚝에는 《정문으로 돌아다닙시다.》 하는 패쪽이 걸려있었고 말뚝에서는 파란 싹이 돋아나고있었다. 황철나무 말뚝같았다. 버드나무였을지도 모른다.

농촌의 탈곡장 출입구처럼 보이는 소박한 정문이 우리를 맞이했다. 처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다 왔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 아바이, 우리 건설장에 배치돼오는분예요.》

마지막 말은 정문경비실에 대고 한 말이었다. 경비원이라기보다 부기장같아보이는 그닥 늙지 않은 《아바이》가 엄엄한 태도로 나에게 증명서를 요구했다. 건설장치고는 꽤 엄격한 편이었다. 어쩌면 건설장의 규율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보여 주려는것인듯도 했다.

처녀는 판자를 경비실앞에 눕혀놓았다.

《아바이, 판자를 싣고 들어간 자동차가 몇혼지 모르나요?》

《판자? 점심때쯤인데... 몇호던가?》

경비원은 내 증명서를 밀어놓고 접수일지를 뒤지기 시작했다.

정문에서 시작되는 구내길은 넓었다. 길량옆에는 속보판들과 생산도표들이 가득 서있었다. 구내길은 마치도 벽화가 그려진 담벽사이로 뻗은것 같았다. 작업복입은 사람이 뒤집을 짚고서서 생산도표를 들여다보고있었다. 나에게는 그의 잔등만이 보였다. 어느 공장, 어느 건설장에 가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풍경이었다.

처녀는 창문에 붙어서서 경비원에게 소근거려댔다.

《전번에 세멘트 흘린 차가 아니예요?》

《글쎄-》

《꼭 찾아서 혼내주랴요. 예? 운전사들이 다들 아با이를 무서워해요.》

경비원은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이 마음에 든 듯 흡족스레 대답했다.

《암-! 혼살을 내자.》

하고 그는 코에 건 돋보기를 일지의 매 칸에 겨누어보며 생산도표쪽을 가리켰다.

《저-기 <기사장>도 있는데 마침 잘됐다.》

《기사장이요?》

처녀는 도표판앞에 서있는 사람의 뒤모습을 보더니 뜻밖일만큼 당황해버렸다.

《어마나!》

이제까지의 활기는 씻은듯이 사라졌다. 머리수건을 공연히 매만지며 그는 주위를 얼른 한바퀴 둘러보았다. 얼굴은 상기되었고 시선은 여기저기로 허둥거렸다.

나는 놀랐다, 광범하고 무표정해보이던 정문까지도 생기를 띠는것 같았다. 못본척해야 할지 자리를 피해줘야 할지 미처 생각나지 않았다. 덩달아 당황해졌다. 도표앞의 작업복이 돌아서기전에 어떻게 해야 하였다.

그때 공교롭게도 여러 처녀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가까와왔다. 나는 뛰어나가 그들을 멈춰세우고싶었다.

경비원은 접수일지에서 판자 싣고 들어갔던 차를 찾아냈다.

《웁지. 61호구나! 갈데 있나. 뛰여야 벼룩이지. 이제 혼살이 나봐라. 아니? 어데 갔나?》

처녀는 어느사이 구내길 저쪽으로 뛰는듯한 걸음으로 사라지고있었다...

《그 참!》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작업복은 여전히 도표판만 쳐다보고있었다.

처녀들의 무리가 정문으로 들어섰다. 나는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물론 자기들이 저지른 《실책》을 전혀 알지 못하고있었고 천성적인듯한 명량한 호기심으로 나와 경비원령감을 번갈아보았을뿐이었다.

한 처녀가 도표앞의 작업복을 보며 다른 처녀에게 소근거렸다.

《기사장이다, 얘.》

《오늘도 또 저기 서있구나.》

《왜 그럴가?》

(아- 기사장이겠지...)

나는 실망하였다. 그 처녀가 당황해한것은 전혀 다른 리유, 레하면 기사장에게서 된추궁을 받았거나(억울하게든, 마땅하게든 상관없이) 받아야 할 일이 있거나 해서였을것이다.

경비원은 처녀가 사라진쪽을 멍랑하게 바라보다가 나에게 증명서를 돌려주었다.

《들어가지우다.》

그는 지휘부로 가는 길을 상세하게 대주었다. 나는 그가 나를 기사장과 인사시켜주지 않는것이 유감스러웠다.

기사장은 여전히 도표만 묵묵히 들여다보고있었다. 얼굴은 무척 어두웠다. 그의 얼굴만 보느라 먼 주위가 황혼에 묻힌것처럼 느껴질것 같았다. 그토록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나는 그의 목상을 깨트리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돌아섰다. 나는 그가 너무도 젊은 사람인데 놀랐다.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뭐라고 입속으로 웅얼거렸다. 스물너덧살... 기껏해야 스물여섯... 어마어마한 건설장에 비하면 너무 젊은 기사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결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한 일인것은 아니다. 얼마전에 나는 열네개 작업반을 거느린 농장에서 스물세살난 처녀를 만난적이 있는데 그는 농장의 관리위원장이었다.

나와 함께 걸으면서 그는 유감스러울만큼 말을 적게 하였다. 귀맛좋은 말을 고르느라고 그러는것도 아니었다. 반대로 한다는 말은 일이 잘 안된다는 불만과 사람들에게 대한 의견이었다. 생산도표의 느린 곡선을 그는 《황소잔등같다》고 표현하며 화를 냈다.

때로는 지휘일군답지 않게 성급하였다. 앞에 보이는 이런저런것을 그는 마뜩지 않게 대하곤했다. 정문밖에서 만났던 처녀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민도 그만큼 큰 법이다. 이런 고민은 큰사람들의 비난할수 없는 특징이며 《높은 지성》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것이다.

한동안 걸으면서 그에게서 알아낸것이란 이 공장건설자들이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종업원총회를 열고 공장의 1계단조업을 금년안으로 앞당기기로 결의했다는것뿐이었다.

그는 사무실로 갈 생각은 않고 현장으로만 돌아다녔다. 이 점은 오히려 나의 마음에 들었다. 사무실에 앉아 취재수첩에 만족할만큼 써가지고 나와 현장을 볼 때면 마치 먼 과거의 이야기를 취재한듯한 불안에 싸인적이 한두번만 아니었다.

그가 지휘부로 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와 함께 다닌 작업장들을 어느 하나도 똑바로 기억할수 없었다. 모든것이 하도 동적이고 소란스러워서 인상은 범벅이 되어버렸다. 빨리 돌아가는 차바퀴의 간살들이 하나의 원으로만 보이는것과 마찬가지로. 벽체와 부재더미, 굴착기와 기중기들, 덜경거리는 자동차와 지게차들, 사방에서 날리는 오색기발들과 속보관들... 어데를 보고 어데를 못보았던지 알수 없었다. 단편적인 인상들만 토막토막 남았다.

그중의 하나는 어느 벽체엔가 깊숙이 찍어놓은 두개의 손자국에 대한 인상이었다. 하나는 큰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좀 작아보였다. 벽체의 콘크리트작업을 마감지으며 장난삼아 손자국을 찍어놓은것 같았다. 데설국은 장난군의 얼굴이 보이는듯했다. 그 어떤 랑만적인 충동도 다분히 작용했는지 모른다.

건설장은 한시도 정지를 모르고 안정을 모르는 동적인 세계였다. 인상들은 벽찬 운동과 소음속에 녹아버렸다.

그것은 기사장이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걸기만 하는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나의 존재를 잊은것 같았다. 여기저기를 살피며 걷는 그의 머리속에는 건설장이외의것은 있을 자리가 없는듯했다.

분주한 목공들의 작업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말없이 걸어야 했을것이다. 목공들은 웬일인지 이미 조립해놓았던 휘틀을 도로 해체하여 다른 장소로 날라가고있었다.

기사장은 휘틀을 등에 지고 일어나는 목공을 뒤에서 쳐들어주며 물었다.

《이건 왜 또 옮기니까?》

목공은 휘틀을 추슬러올렸다.

《뭐 배관지날 자리라나.》

《배-관이요?》

기사장은 벌떡 화를 냈다.

《어제 조립할 땐 몰랐는가요?》

《거야 반장이 한 일이지. 이건 부기사장의 지시구.》

《부기사장이요?》

《저-기 있네. 반장과 함께.》

기사장은 새 조립장소에 서있는 두사람에게 달려갔다. 목공들은 서로 눈을 찡긐해보였다

《기사장이 부기사장동물 혼내려 가네.》

《저런!》

기사장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손짓과 표정으로 미루어 호되게 추궁하는것이 분명했다. 부기사장과 반장은 웃어보이기도 하고 머리를 설

레설레 흔들기도 한다. 변명하기에 분주할테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두 목공이 고소하게 증얼거렸다.

《혼나는데!》

《기사장이 여러문명 댔으면!》

기사장이 그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느껴졌다. 젊은 나이때문에 사랑스러워하는 측면이 더 강한것 같았다.

잠시후 기사장은 나와 함께 걸으며 우울하게 하소연했다.

《한번 옮기면 될걸 두번 세번... 저따위 반복시 공놀음만 철저히 없애도 술한 예비가 나을겁니다. 아까 생산도표를 보셨지요? 한달째 120프로에서 몽개고있답니다. 결의한대로 1계단조업을 올해 안으로 보장하려면 150프로는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꿈만해있거던요. 사람들이 도무지... 난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에는 질서가 없고... 어떤 땐 지시할 사람을 찾을수 없다가도 어떤 땐 너무 많아서 야단이라니까요. 목공들이 래일까지 할일을 어제로 끝낸바람에 처런 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심하지요!》

그는 발에 걸리는 돌맹이를 힘껏 차던졌다.

《저기 저 등성이에 있는 혼합장을 보십시오. 저기의 모래, 세멘트, 자갈저장고를 조금만 더 높이 만들었더라면 단번에 한주일 물량을 넉넉히 저장할수 있었을겁니다. 지금이야 이틀도 못쓰지요. 하루살이처럼 그저... 이제 갑자기 차들이 뛰지 못하기라도 하면 혼합기는 빈입만 다시게 될게 아닙니까. 별일이 다 있을수 있지요. 장마가 질수도 있고...》

역전에서 예까지 오면서 나는 장마때문에 소동을 빚어낼만한 강은커녕 개울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알수 없는것이다. 어떤 우연까지도 죄다 예견하는 사람이 현명한 일꾼이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케블선 물을 자리가 깊고 넓은 참호처럼 우리의 길을 뚫어놓은것이였다. 파내놓은 흙은 아직 채 마르지 않았다. 축축한 흙냄새가 풍겼다.

《지령에 따라 하는게 아닙니까?》

그는 내 말은 못들든듯 더욱 화를 냈다.

《이거야 어데 건너뉘수가 있나. 운하래도 파는 것처럼 잔뜩-!》

공연한 트집으로 생각될만큼 그는 죄다 마음에 들지 않아했고 화를 냈다. 도랑바닥에서는 어데서 나타났는지 모를 개구리들이 경충경충 뛰엄질하고 있었다.

별수 없었다. 나는 가방을 맞은편에 던지고 그를 따라 바닥으로 미끄러져내려가 저쪽벽으로 기여올랐다. 구두는 흙투성이가 되였다.

그런데 기사장은 내가 힘들여 기여오르자 기다렸던듯 얼굴을 찌프리며 말하였다.

《도루 가야겠습니까. 그냥 가면 안되겠습니까.》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젠가 심술궂어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나에게 설명했다.

《분기점에 차단표식이 없으니 차들이 모르고 여기까지 들어올게 아닙니까? 자동차는 건너뛰지도 못하니...》

역시 기사장다운 생각이였다. 나는 흙투성이된 구두를 내려다보고 한숨을 쉬였다. 그는 미안쩍어했다.

《여게서 기다리시든가 바쁘면 먼저...》

나는 우울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같이 잡시다.》

우리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 맞은편에 기여올랐고 분기점까지 되돌아가 차단표식을 세웠다. 든든하게 해놓았다.

그때 권양기실은 차가 달려오다가 차단표식을 보고 벗어섰다. 운전사는 영문을 알게 되자 허를 찼다.

《조금 빨리 왔더라면 고생할번했는데?》

수리공들은 적재함에 걸터앉아 한마디씩 했다. 기름냄새가 풍겨오는듯했다.

《차단표식이 조금 늦었으면 고생할번했지.》

《이력저력 치합에 맞았달수밖에.》

하고 그들은 껄껄 웃었다.

나는 적재함의 기름물은 작업모들속에서 낮익은 머리수건-낮익은 얼굴을 발견하였다. 판자를 나와 함께 들고오던 처녀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못알아본것 같았다. 나의 미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기사장만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런데 그 눈이야말로! ... 미소를 띤것 같기도 하고 금시 외면할듯도싶게 조심하면서도 불꽃이 엿보이는 눈이였다. 몸매를 그대로 보여주는 날씬한 작업복은 금시 앞으로 달려올것 같았다. 바람때문에 더욱 그랬다. 주지하는바이지만 처녀들의 웃은 바람에 매우 예민한것이다.

기사장은 표식판아래를 끈끈스레 다지면서(공연한 일이라는것이 뻔했다) 처녀를 슬쩍 쳐다보았다. 순간 처녀의 눈이 어찌나 반가움과 기쁨의 미소로 빛났던지 나는 눈이 부시는것 같았다.

기사장이라면 사랑도 없고 일밖에 모르리라는 묘한 생각은 어데서부터 온것일까.

나는 두눈길이 주고받는 말을 듣는것 같았다. 그것은 글로 옮기면 《아!》 《어!》로밖에 쓸수 없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수십마디의 말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진것이라는데 대하여는 벌써 술한 인생문제의 박식가들이 충분히 말한바 있다.

기사장은 처녀에게 나에게 향한쪽 어깨를 훔쳐해보였다. 그때에야 처녀는 비로소 나를 알아보았다.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하고는 기사장에게 묻는 눈길을 보냈다.

(누구예요?)

(저-)

기사장은 이마를 찌프렸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따위의 산문적인 이야기는 눈길로 전달할수 없는것이였다...

차는 부르릉하고 자리를 떴다. 몇바퀴 굴러갔을때 기사장은 잠에서라도 깬듯 소리쳤다.

《운전사동무! 운전사동무!》

그는 차를 따라 달려갔다. 수리공들이 운전칸 천정을 주먹으로 광광 두드렸다.

차는 급정거하였다. 운전사는 머리를 두드리기라도 한듯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수리공들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어요?》

《기사장이 찾아.》

기사장은 운전칸문에 손을 댔다.

《굴착직장장을 만나면 꼭 말해주십시오. 차단표식을 제때제때에 세우라고. 나도 만나면 말하겠습니다.》

운전사의 얼굴에는 유쾌한 웃음이 피여났다.

《옛! 기사장명령 0020호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차는 다시 떠났다. 적재함을 잡고 서있는 처녀의 눈은 말하고있었다.

(수고하랴요.)

(수고하오.)

빙긋이 웃어보이는 기사장은 제법 나이가 지숙해보이기까지 했다...

그와 헤어져 건설장지휘부로 찾아가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무엇이 두사람을 가깝게 하였을까. 그들은 서로 너무나도 달랐다. 물과 불처럼 달랐다. 끝없는 환희와 다함없는 사랑이 침울한 마음, 소용돌이치는 불만과 결합되고있는것이다. 어떻게 서로 가까와졌을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가까워지게 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던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길을 막아놓은 배관더미를 넘으려는데 켜는듯한 호각소리가 울리며 배관을 문 기중기팔이 머리위로 빙-

돌아왔다. 황급히 제걸음치다가 세워놓은 자동차에 부딪쳤다. 아까 만났던 그 자동차였다. 권양기는 벌써 차에서 부리워져 설치까지 되어있었다. 이미 낮익어진 처녀는 시운전해보려고 스위치에 손을 가져가고있었다. 그때 50남짓해보이는 키 큰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는 권양기의 발판과 버팀줄을 살펴보더니 낮색이 거칠어졌다.

《이건 뭐요? 무슨 일하는 본새가 이 모양이요? 이렇게 해서 권양기가 며칠이나 견디겠소?》

조장인듯한 사람이 변명했으나 그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설비를 책임진 일군같았다.

《만년대계라는 말은 잘하면서 이게 뭐요? 하루살이요, 하루살이! 후에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다시 설치하오!》

그는 마치도 권양기가 공장과 함께 그 자리에 영원히 남게라도 되는듯이 말하였다. 그런데 기이한것은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듯 저으기 창피한 기색으로 권양기를 해체하여 다시 설치하기 시작한것이였다. 나조차도 그때에는 며칠후 또 옮겨갈 권양기를 만년대계구조물의 한부분처럼 느꼈던것은 이상한 일이였다.

처녀는 버티고 서있는 그 사람의 팔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동작이였다. 그런데 그 체통이 크고 나이드는 사람이 처녀의 자그마한 손에 길쭉불처럼 끌려가는데 나는 놀랐다. 그들은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마주섰다.

《뭐냐?》

《아버진 왜 언성을 자주 높여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흥! 게사니고기를 먹었다던?》

《아버진 다 알면서두...》

《알구있다. 뒤에서 노여워하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있다는것두... 그렇지만 할수 없지 않느냐. 내가 소리친건 후날에 웃으며 이야기할수 있지만 여기에 흠집이 생기는건 두고두고 울어서두 지워버릴수 없는거다.》

처녀는 잠자코 서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웠다.

《네 말도 기억해두마... 가거라.》

나는 자동차를 타러 가며 (차는 지휘부쪽으로 가고있었다.) 운전사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운전사는 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다.

《기사장입니다.》

내 물음을 잘못들은것 같았다. 그래서 재차 물었으나 역시 마찬가지 대답이였다.

《기사장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그러면 여기에 기사장이 도대체 몇명이요?》

운전사의 눈이 능청스러운 웃음으로 꼬르륵졌다.

《지금은 돌입니다.》

《?》

운전사는 곧 정색하였다.

《이제 본 그 동무가 기사장입니다.》

《그럼 아까 그 사람은 누구요?》

《누구말입니까?》

《그- 아까... 아 저기 있구만!》

길옆의 흙더미뒤에서 《기사장》의 모습이 보였다. 상반신만 보이는 그는 이상한 장난에 열중해있었다. 흙더미로 달려들었다가는 튕겨나듯 물러섰고 물러섰다가는 황소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또 달려드는 것이었다.

《좀 세워주오. 난 내리겠소.》

차를 보내고 가보니 그는 터진 물배관과 싸우고있었다. 돌이 힘을 합쳐서야 세차게 내뿜는 물을 틀어막았다. 똑같이 흙탕소낙비를 맞은 옷주체가 되어버렸다. 그런 창황중에도 그는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종이조각에 《수리공동무들, 책임성을 높입니다!》라고 끄적거리 배관에 걸어놓고야 만족해하였다. 자기 옷과 내 옷 주제를 번갈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불만한데요! ... 이거 안됐습니다. 어데 가나이 모양이니... 그저 이렇습니다. 건설장이니까요. 아마 편안히 걸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과 같을겁니다.》

배관에 걸어놓은 종이조각에 새겨나온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나는 잉크가 번지면서 엄격한 충고가 《수...고...들...높입니다.》하는 묘한 인사말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말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걸어간 뒤에는 포장도로가 남을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건설자들 위한 것이 아니지요.》

나이는 젊었으나 생각하는 것은 로숙했다. 현장 기사일가. 직장책임자일가. 어느 부서의 지도원일가... 공연히 《기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리라...

우리는 그가 비난을 퍼부은바 있는 혼합장언덕에 올라섰다. 거기에는 건설장구내에서 쫓겨날 마지막 한조각의 관목숲과 풀밭이 있었다. 그 한조각우에서 염소들이 누워 새김질을 하고있었고(영양제식당에서 기르는 것이라고 《기사장》이 알려주었다.) 강아지 한놈이 직업적인 파수군답

게 달콤하게 기지개를 켜고는 다시 졸기 시작했다.

혼합장옆에는 완성된 콘크리트벽체가 서있었다. 나는 그 벽체를 보자 이곳이 처음에 왔던 곳이며 건설장을 한바퀴 빙 돈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벽체에는 아까 보았던 바로 그 두사람의 손자국이 찍혀있었다.

하나는 컸고 다른 하나는 자그마했다. 그런데 나란히 찍힌 두 손자국이 처음과는 달리 나에게 장난군의 얼굴이 아니라 언제인가 깊은 산속에서 보았던 천연바위에 새겨진 사람의 손자국을 회상케 했다. 지나간 세월도 지우지 못한 손자국을 그 고장사람들은 먼 옛날에 살았던 장수가 손으로 짚은 자리라고들 말하였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살게 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가요? 어떻게 일했는지, 누가 일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건설자들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 하면 그들에게서도 건설자들과 같은 바쁜 나날이 흘러갈 것이며, 위훈이 창조될 것이며, 건설자들처럼 미래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움트는 관목숲과 갓 돋아난 어린 풀잎사귀들은 석양을 담고 설렁거렸다. 하여 석양은 바람처럼 흐느적이며 옷섶에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썩느라졌다.

《아마 우리가 후날이 다시 오면 구경꾼이나 견학생으로밖에 보지 않을 겁니다.》

염소는 새김질을 멈추고 저녁노을을 지켜보고 있다. 반쯤 내리감은 눈, 길다란 상판, 뾰족한 턱수염, 염소답지 않게 심각해보였다.

《우릴 두고 옛말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때 견학생처럼 옆에 서서 들여보고 싶습니다.》

언덕아래에 펼쳐진 광활한 건설장의 전경이 《기사장》의 눈동자에 노을과 함께 비졌다. 하여 그의 눈은 건설장에 펼쳐진 들판보다 더 넓고 깊어보였다...

그때 혼합장의 미끼샤통우에서 성급한 웨침이 들렸다.

《여- 동무! 거기서 뭘해?》

소리친 사람은 우리앞으로 쩡쩡 뛰어내렸다. 그러자 《기사장》은 단번에 울상이 되어버렸다.

《아이쿠! 교대시간이구나!》

휘둥거리는 발밑에서 꼬리뺏힌 개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고 뛰쳐일어난 염소는 꿈무늬의

장난감같은 꼬리를 바람개비처럼 뚼뚼 저어댔다. 심각해보이던 모습은 죄다 사라졌다.

《저- 우리 대장, 우리 청년돌격대 대장동무입니다. 전 그럼... 이거 정말... 바빠서... 작업시간이...》

그는 쿵뒹뒹하는 말씨로 얼버무리고 부랴부랴 달려갔다...

나는 조금도 불쾌하거나 어이없게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나는 그와 함께 보낸 몇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그러자 《기사장》이라는 《직무》가 그에게 얼마나 어울리는가를 깨달았다. 오해는 없었다. 건설장에는 《기사장》이 한 명만이 아니었다.

나는 문득 얼토당토않은 의혹에 사로잡혔다. 처녀의 아버지도 혹시 청년같은 그런 《기사장》이 아닐까. 그리고 목공들의 룡담을 생각했다. 《기사장이 여러문범쯤 됐으면!》 어찌 알랴. 그렇게 될수도 있는것이다...

대장은 그의 뒤모습에서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꺾꺾 웃었다.

《저렇게도 덤벼친다구야! ... 일이야 잘하다마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청년에게 《기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은것은 1계단조업을 올해안으로 보장할것을 결의한 종업원총회 이후였다. 회의에서 《기사장》은 결의문을 랑독하였다. 그는 이 사실을 《일생에서 제일 큰 영광》이었다고 집에 보내는 편지에 썼다고 한다. 그후 한두달 지나는데동안 그에게는 누가 먼저 붙이였는지 《기사장》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이제는 〈돌격대기사장〉 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벽체앞에 한사람이 못박힌듯 서서 두개의 손자국을 경악한 눈길로 지켜보고있었다. 처녀의 아버지인 기사장이었다.

돌격대장은 나를 그에게 소개했다. 기사장은 나와 인사를 나누었다. 다음은 대장을 보며 손가락으로 벽체를 쿵 찌르듯이 가리켰다.

《이건 도대체 뭐요?》

대장은 벌써 몇번 본 모양으로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나도 어제야 왔습니다. 장난꾸러기들이 많아워서 도무지...》

《장난?... 이게 웃을 일ियो? 한심하오!》

혼합장 이구석 저구석에서 사람들이 기웃기웃 내다보더니 벽체앞에 하나둘 모여왔다. 작업준비차림들이었다. 벽체뒤에서는 뜻밖에도 기사장의

딸- 《그 처녀》의 낯익은 얼굴이 살며시 나타났다. 그뒤에서 기름내 풍기는 수리공들이 나타났다.

그리고보니 권양기를 설치하던곳은 바로 벽체의 뒤였다. 나는 낯선고장에서 하루밤 자고난 나그네처럼 동서남북을 잃고 건설장을 두바퀴 돌아 첫자리로 오는것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말해보요.》

기사장의 말에 누구도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를 불안스레 지켜보던 처녀의 얼굴이 사람들의 어깨뒤로 숨어버렸다.

《이런따위 장난을 하는걸 누구도 몰랐단말ियो?》

한사람이 불쑥 앞으로 나서며 항변했다.

《장난을 한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렸다. 나는 놀랐다. 다름아닌 그 청년- 《기사장》이었다.

《동무가 그랬소?》

《예.》

기사장은 한심하다는 얼굴로 그를 노려보다가 큰 손자국을 가리켰다.

《이건 누가 그랬소?》

《그게 제손입니다.》

《동무 손이 이렇게 커?》

《저의 아버지는 손이 더 컸습니다.》

기사장은 실눈을 지었다.

《아버지도 건설자였소?》

《황철복구건설과 2.8비날론건설에 참가했습니다.》

《그렇소?... 그래 동무는 아버지가 건설한 공장들에서 이런 흠집을 본적이 있소?... 우리는 어디에도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소. 남긴적이 없소.》

《.....》

기사장은 작은 손자국을 눈으로 짚었다.

《이 장난군은 어디 있소?》

잠시후 한숨처럼 꺼져들어가는 소리가 사람들의 뒤에서 새어나왔다.

《저-...》

《누구요?》

사람들은 옆으로 비켜섰다. 머리를 꼭 수그린 처녀가 외로이 나타났다. 기사장의 눈썹이 화살처럼 이마에로 치달아올라갔다.

《네가?!》

나란히 찍혀진 두 손자국, 머리를 수그린 두 젊음이... 기사장은 돌을 번갈아볼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있었다. 당황한것 같아보였다. 그는

추궁을 시작하면서 이런 결과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것이다.

나는 미소를 감추려고 애썼다. 다른 사람들도 심상한 표정을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는듯했으나 눈가와 입가마다에는 의미심장한 미소들이 피어나고있었다.

처녀는 붉은 가재처럼 빨갛게 되어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런 경우 처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등뒤에 숨는 법이다. 그러나 이때 그는 아버지를 피해 숨어야 했다. 석양때문인지 기사장의 얼굴도 붉어져보였다. 처녀는 금시 울어버릴것 같았다.

주춤거리던 《기사장》이 단호하게 한걸음 나서며 처녀를 막아섰다.

《기사장동지! 우리는… 저-저는 장난으로 그렇게 아닙니다!》

기사장은 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뭐요?》

《이제 후날에 여기서 살게 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했습니까? 낮과 밤이 따로 있었습니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따로 있었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건설하려고 모든것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기사장은 묵묵히 그를 지켜본다. 눈은 또다시 가느스름해졌다.

《그래… 다 바쳤지, 모든것을…》

《건설장을 내놓고 우리가 생각한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조업을 앞당기려는 한가지 생각만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속에서 한숨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기사장》의 눈에서 번쩍거리는 눈물을 본것 같았다.

《그런데 후날에 여기서 일하며 살게 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대하여 모를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사장은 벽체의 손자국을 눈으로 더듬는다.

《그래… 모를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는…》

《<우리>라고 하오!》

청년은 기사장을 쳐다보고 눈길을 떨구었다.

《다 말했습니다.》

기사장은 건설장을 내려다본다.

《기억하게 하고싶었던말이지?》

《……》

저녁이다. 울퉁불퉁한 길아닌 길을 따라 건설장을 오가는 자동차들의 뒤에서 다정한 먼지구름이 석양과 함께 천천히 내려앉는다. 기중기팔에 매달린 배관에서 지평선너머에 떨어진 저녁해가

번쩍! 번쩍! 하고 마지막 빛을 뿜는다. 모든 기발들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우리는 건설자요.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흔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일했는가 하는 마음을 남기는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흔적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서는 안되오. 우리는 다만 그들이 불편없이 살게 되고 일하게 되기를 바라야 하오…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의 생활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회상이며 우리가 바라던 희망인데야!…》

《……》

《마음을 남겨야지… 마음을…》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갔다. 두 젊은이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기사장은 나에게 말했다.

《감시다.》

그는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몇걸음만에 두 젊은이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벽체앞에 서서 건설장을 내려다보고있었다.

《동무 아버지말이 옳을가?》

《옳을거예요.》

그들이 서있는 등성이아래로 넓은 건설장이 사판처럼 펼쳐졌다. 억센 골조들, 저녁노을에 타오르는 탑과 배관들, 굴착기와 기중기의 팔들, 납작한 립시건물들, 치열한 전장처럼 온통 파헤쳐놓은 땅… 그우에 노을비낀 저녁하늘이 둥근 천정처럼 드리웠다.

《그래, 옳을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를 기억 안할수도 있다는것을 생각하기는 섭섭해…》

《나도… 섭섭해요.》

금빛의 둥근 천정이 노을이 불타는 지평선까지 잇닿았다. 황혼속에 나란히 서있는 두 젊은이의 모습은 석양을 배경으로 거무스름하게 보였고 그들의 머리와 어깨주위에는 후광이 비치는것 같았다. 처녀는 가늘어보이는 팔을 머리수건으로 올렸다. 그러자 나는 그가 속삭이는 말을 듣는것 같았다.

《정말… 우리 건설장이 얼마나 좋은지! 저기도- 저기도- 어디나… 정말! 보라요! …》

불현듯 나는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고싶었다… 그들에게 후일에 여기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건설자들에 대하여 잊지 않고 두고두고 회상할것이며 건설자들이 모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민을 다 바쳐 얼마나 건설장을 사랑하였는가에 대하여, 한토막의 길, 한장한장의 벽돌이 어떻게 그들의 사랑에 마를줄 모르는 샘물로 되어주었는가에 대하여 영원히 이야기할것이라고 말해주고싶었다. 그들이 믿도록, 행복에 겨워 울며 웃도록 열렬하게 말하고 또 말하고싶었다! …

떠난후 인상

김응호

예전에는 범상하게만 보고 느끼던것들이 떠나게 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귀중해지는 법이다. 알뜰게도 새 구두 코숭이를 갈아먹던 길가의 조약돌마저도...

충국기술과장으로 임명받은 기사장 허준호 역시 그런 기분속에 묻혀있었다.

소환장을 받은 그 시각부터 무슨 생각인들 안했으랴. 미처 느낄새없이 살처럼 흘러간 하루하루가 이처럼 감회깊은 추억으로 될줄이야...

그중에서 머리에 짝 차있는것은 광산과 함께 기사장이란 자신의 직책이다.

광산은 정녕 잊을수 없는 고장이었다. 여기서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을 뒀고 제대병사였던 자신이 30전후에 벌써 기사장이 된 보람찬 일터였다. 온갖 기쁨과 희망이 뿌리내렸던 정든곳이었다.

이제는 그 정들은 모든것과 헤어져야 한다.

허준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꼼꼼히 돌이켜보았다. 자신의 생활을 놓고 아무리 훑어보아야 사업에서나 사람들과 관계에서 매듭이 저있거나 후회될 일이라고는 찾아낼수가 없었다.

미흡한 점이라면 허준호 자신이 담당하여 추진해오던 만능적재기를 끝내지 못하고 떠나는 그것이라 할가.

아니다. 만능적재기만은 완성해놓고 떠나야 한다. 이 만능적재기야말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일감이었다. 드디어 허준호는 만능적재기를 이제 남은 일주일동안에 완성할것을 결심했다...

오늘도 허준호는 금산광구막장에서 만능적재기와 씨름하고있었다.

점심에 갈아입고나온 작업복은 이미 시꺼먼 모빌유범벅이 됐고 팔소매는 두곳이나 찢겨 너털거렸다.

어스름이 깃들자 막장에는 더많은 광부들이 모여들었다. 낮교대작업이 끝났던것이다.

수십메터의 땅겉질을 헤치고 쇠돌을 캐야 하는 이곳 로천광산에서 박토처리하는 생산의 1차작고리이다.

박토, 박토가 문제였다. 박토는 곧 쇠돌이었다. 광부이면 누구나 박토처리에 신경을 썼다.

그런데 그러럼 관심속에 진행해오던 만능적재기시운전을 이 며칠동안에 끝낸다 하지 않는가.

《기사장이 끝장을 볼셈이군.》

《말두 마오. 만능적재기가 안되면 여기를 뜨지 않겠단누만, 저 우뚝제를 보오.》

만능적재기 두리에 빼곡이 모여선 광부들이 허준호의 긴장된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요즘 화제의 중심은 만능적재기와 허준호였다.

그렇지 않아도 일욕심 많고 너굴너굴하여 좋은 인상을 주었는데 떠나는 날까지 애쓰는 그를 볼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코며 입이 큼직큼직한 그 생김새처럼 원래 통도 크고 맘쓰는 품이 다르다고...

물론 허준호자신이 이런 기분을 모를리 없었다.

지금도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못시선과 입김을 뿔어대며 수군거리는 말소리를 귀찮게 들으며 만능적재기의 가동상태를 예민하게 살피고있었다.

세개의 마디로 된 만능적재기의 팔은 사람의 관절 놀듯 자유롭게 움직이며 박토를 푹푹 떠서 자동차에 실었다.

유압장치에 보충유압관을 설치했더니 애먹던 것이 퇴치된것 같았다.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해서 바라보던 광부들의 눈가에 점차 무수한 실주름이 잡히더니 그 미소는 노을처럼 얼굴에 확 퍼져나갔다. 만능적재기의 작업속도와 정확성이 탄복할 정도였다.

이제는 결과가 불보듯 뻔했다. 미구에 터져오를 성공의 환희가 선풍처럼 막장을 휘감았다.

허준호는 성공의 예감이 전류처럼 짜릿하게 안겨오는 순간 턱을 들어 두리를 훑어보았다.

몇몇 광부들이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그들은 마치 《됐소, 됐소. 그만하면 만점이요.》하고 말해주는것만 같았다.

아니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바로 이때 《성공이다!》하는 누군가의 웨침소리가 허준호의 고막을 때렸던것이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술렁대며 환희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신통하군 꼭 사람손같다니까.》

《그래서 만능적재기가 아닌가.》

《또 실패하지 않을가? 아마 이번이 아홉번째지...》

《시간당 적재량이 대단하도.》

허준호는 온몸이 허공 들리는것 같았다. 뜨거운것이 전신에 짹 퍼지며 마디마디가 세차게 약동했다.

《정말 큰결 해결했습니다. 어디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줄곧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만능적재기의 앞뒤를 살피던 광구장이 뛰어와 허준호의 두손을 꼭 그리쥐었다.

《기사장동지 축하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광부들이 허준호의 곁에 모여들며 한마디씩 했다.

《이러지들 마오. 수고야 저기 기술혁신조동무들이 받아야지.》

허준호는 두손을 내흔들었다.

《자, 그만하구 모두 휴계실루 갑시다. 축하두 좋지만 식당어머니가 한턱 쓰겠다오. 기사장동무, 어서 갑시다.》

광구장이 허준호의 손을 잡아끌며 너스레를 떨었다. 허준호는 펄쩍 뛰며 뒤걸음쳤다.

《정말 이러지들 말라니까.》

《우릴 어떻게 보구 그러우 허허… 별게 아니라 기사장이 좋아하는 탁주요. 자, 어서요.》

《갑시다. 광구장동지가 이처럼 흡족해하는걸 우린 참 봅시다.》

허준호는 더 사양할수 없어 광부들이 떠미는대로 휴계실을 향했다.

《저… 기사장동지-》

출입문옆에 초조히 서있던 한 처녀가 허준호를 찾았다. 광구통계원 옥별이었다.

《왜 여기 서있소. 옥별동무.》

허준호는 반색을 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저… 언제쯤 떠나게 됩니까?》

《래일 아침차루 가게 됐소. 뭐 부탁할게 있나?》

순간 옥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 빨리말입니까?! 그럼 인제사업두…》

《허허 우리 통계원이 캄캄이군.… 오늘 동무의 어머니가 탁주까지 한턱 낸단말이요.》

광구장은 기분이 좋아서 떠들었다.

옥별은 무슨 말인가 더할듯 발짓한 입술을 오무작거리다가 고개를 숙였다.

긴 살눈섭이 삽시에 젖어들었다.

허준호는 석별의 정이 옥 치받쳤다.

《자꾸 그러지를 말라구. 헤어져두 우리 서로 잊지 않으면 돼.》

《다문 며칠만이라두 더죵… 그럼 잘…》

옥별은 말끝을 맺지 못한채 몸을 돌려 뛰어갔다.

허준호는 서슬을 친 두부술처럼 속이 가라앉으며 옥별이가 사라진쪽을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가 할듯할듯하던 그 사연을 너무도 잘 알수 있는 허준호였다.

약혼한지 2년이 넘도록 결혼이 성립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옥별이다. 인물 굵고 통계에 행한 옥별이를 볼 때마다 무슨 약점이 잡혀 애를 먹는지 측은하였다. 더욱 원심을 쓰게 되는것은 처녀의

애인이 자기의 아래일군인 청년광구기사 오철수란데 있었다.

허준호는 휴계실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니 왜들 서있나 어서 들어오지.》

위생복을 입은 옥별이 어머니가 안에서 손을 흔들며대며 소리쳤다.

《아따 큰소린, 딸을 좀 구경하됐수다.》

광구장이 빙긋 웃어보이며 허준호를 안으로 떠밀었다.

《오늘야 내 큰소리칠만하지. 자, 마수거리로 기사장이 반소.》

사람대접에 풍성한 옥별이 어머니가 너스레를 떨며 커다란 사발을 허준호앞에 내밀었다. 뽕안거품이 부그그 피는게 보기만 해도 속이 찌르르했다.

허준호는 탁주그릇을 받고보니 또 옥별의 생각이 나며 가슴이 무죽해졌다.

《어머니, 이 탁주를 뿔다가 딸 잔치때 썼더라면 더 좋을걸 그랬군요.》

《말만 들어두 고맙소. 그게 어디 말대로 되나. 다 제못난탓이지.》

《아니 처녀로 늙을것 같아 그러슈?》

광구장이 짐짓 흰소릴 쳤다.

《그래두 각근히 돌봐주던 사람까지 홀 떠나니…》

옥별이 어머니의 말끝은 가늘게 떨렸다.

《하, 탁주맛 떨어지겠다. 어머니, 우리가 당장 오철수란 기사를 붙들여다 확답을 받겠수다. 그럼 맘놓지요?》

《암, 여부있겠나.》

《하하…》

광부들이 들썩하게 꺾꺾 웃었다. 옥별이 어머니도 따라웃었다.

그러나 허준호는 웃고있는 옥별이 어머니의 눈구석이 축축하게 젖어드는것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옥별이문제를 그냥 두고는 발이 떨어질것 같지 않았다. (오철수에게 단단히 따져보자. 사람들 속을 이렇게 태우다니.)

늦게야 기사장실로 돌아온 허준호는 들어서는 길로 쏘파에 몸을 던졌다. 며칠째 계속되어온 초긴장이 풀리자 피곤이 확 몰려들었던것이다.

그러나 형언할수 없이 만사가 편안하고 달작지근했다. 눈두덩이 스르르 감기고 저절로 두다리가 쭉 퍼졌다.

더없이 유쾌하고 흐트한 이 순간 무엇인가 생각해보려고 애썼지만 몽롱한 안개속에 잠기듯 정신이 혼미해졌다.

《따르릉… 따르릉…》

량수책상우에서 전화기가 야무진 소리를 냈다.

허준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화기는 언제 울었던가싶게 인차 침묵을 지켰다.
허준호는 책상앞으로 다가가 전화기들을 차례로 만져보았다. 첫번째것은 평양과 직통으로 연결된것이고 두번째것은 구내지령전화였다.
(혹시 빨리 올라오라는 전화가 아닐가?)
첫번째 전화를 잡고 생각해보던 그는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래일아침차로 떠날 사람인데 찾을리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지령전화를 잡았다. 가끔 목이 쉬어 오미자시럽신세를 지우곤하던 전화기였다.
《너두 그동안 큰일을 했구나.》
지령전화를 오래동안 쓸어보며 중얼거리던 허준호는 책상서랍을 열고 은지에 정히 싸서 아껴두었던 송화기전동판을 꺼냈다. 바뀌넣은지 얼마 안되지만 새로 오는 기사장에게 주고싶었던것이다.
송화기전동판을 바뀌넣은 허준호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왔다.
대기하고있던 《갱생》을 그냥 돌려보낸 허준호는 박토산자드락길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종종 이 자드락길로 퇴근하기를 즐겨했다. 량옆과 앞뒤가 온통 박토산으로 둘러싸인 좁고 가파로운 자드락길을 걷느라하면 더없이 흐뭇하고 힘이 솟군했다.
지난날 광산후보지에 불과했던 여기에 제대배낭을 벗어놓고 시추기해체작업을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디를 보나 박토, 박토산이었다. 이 박토산을 볼 때면 그것이 단순한 박토가 아니라 여기에 바친 땀과 노력과 열정의 봉우리처럼 귀중히 여겨지군했다.
그래서 허준호는 마지막퇴근길인 이밤 제일높은 박토산에 올라가 그러한 박토산들을 마음껏 내려다보고싶었던것이다.
얼마후 허준호는 원추형의 청년광구박토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마에서 땀이 솟았다. 사위는 깊은 밤이라 인적이 없었다. 실낱같은 초생달은 어느새 박토산밑에 가라앉고 못별들만 총총했다. 어디선가 쿵쿵하는 발자음이 울려왔다.
한참 올라가던 허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득히 보이는 청년광구마당에서 굴착기며 착정기의 웅쓰는 소리가 밤공기를 흔들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대형자동차들이 불줄기를 내쏘며 층계층계 높아진 박토계단을 따라 힘겹게 오르고있었다.
허준호는 그 모습을 보니 어쩐지 가슴이 뿌듯해왔다.
얼마나 광산은 몰라보게 달라졌는가.

끝없이 밀려오는 감격에 문헌채 허준호가 박토산꼭대기에 거의 올라갔을 때였다.
앞에서 웬 사람들이 허리를 굽적거리며 땅을 파헤치고있었다.
의아쩍은 생각이 들어 그들쪽으로 다급히 걸어가던 허준호는 우뚝 서버렸다.
대여섯명의 청년들이 옷통을 벗은채 삽과 곡괭이를 휘두르고있었다.
《여기서 뭇들하오?》
난데없는 목소리에 고개를 쳐들던 청년들이 허준호를 알아봤는지 허리를 폈다.
《아, 청년광구동무들이구만.》
풋낫이 있는 얼굴들이었다.
《여보게들, 기사장두 왔는데 한대 피우구 하세나.》
한쪽옆에 앉아 삽자루를 맞추고있던 사람이 청년들을 향해 석싹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청이 어딘가 귀에 익었다.
그래서 그의 앞으로 다가서던 허준호는 《아버지가 어떻게?...》하고 자신도모르게 놀라움에 찬 말이 튀어나갔다.
여기서 5리 남짓이 떨어져있는 금산광구발과 공으로 있는 박아바이였다.
허준호가 제대되어왔을 때 배낭을 받아주고 광산일을 배워준 오랜 광부이다. 작업반장사업을 자기에게 인계해주던 날 박아바이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눈썹미가 있고 발전이 빠르다고... 그후에는 술선 중매자로 나서 처녀를 물색했고 아이들 첫돌 생일날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곤했었다.
허준호는 이 순간 소환장을 받은후 아직 그를 찾아보게 못했다는 때늦은 후회와 함께 이 박토산에 박아바이가 어떻게 왔을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
《수고하십니다, 아바이.》
허준호는 황송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깊은 밤에 뭇하러 여기까지 찾아나왔나?》
박아바이가 삽자루를 천채 일어섰다.
(찾아나오다니?)
박아바이는 분명 자기가 일부러 이곳에 찾아나온것으로 알고있었다.
허준호는 대답할 말이 궁색해져 담배팩을 꺼내 박아바이앞에 내밀고 가스라이타에 불을 달았다.
박아바이는 고맙다는듯 빙긋 웃어보이고 담배한대를 뿔아 입에 물었다.
허준호는 이 짧은 순간에 박아바이가 멀리 떨어져있는 여기 청년광구박토산에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들이 파고있는 구덩이는 무엇일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아무것도 짐작해낼수 없었다.
허준호는 자기를 지켜보는것 같은 박아바이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담배를 붙여

물었다. 무슨 일이나 막힘이 없던 자신이 이처럼
웅색하고 파분해보긴 처음같았다.

《안녕하십니까, 기사장동지.》

구덩이에서 나온 한 청년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곳 청년광구 오철수기사였다.

《아, 오동무구만. 마침 잘 만났소.》

맘속에 버르고있던 오철수가 이처럼 때마침 나
타난것이 여간만 다행이 아니었다.

《사실은 저도 꼭 만나려 했습니다.》

《나를?... 그래 뭐요?》

허준호는 눈물어린 옥별의 얼굴이 떠오르며 말
끝이 거칠어졌다.

오철수는 이마의 땀을 팔소매로 뺨 문지르더니
구덩이를 가리켰다.

《여기다 쌍기둥철탑을 세우자고 하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

오철수의 입에서 전혀 뜻밖에도 그것도 쌍기둥철
탑이라는 처음 듣는 소리에 허준호는 그만 어리
둥절해지고말았다.

대답이 없자 오철수의 얼굴빛이 버쩍 긴장해졌
다.

《안될것 같습니까?》

《안되긴... 다른 기사들과 토론했겠지?》

허준호의 목소리는 애매했다.

《나두 이 사람 설계를 봤는데 정말 엉뚱하더
군.》

《기사장동무두 아마 보셨을겁니다.》

오철수가 옆에서 한마디 더 보탰다.

허준호는 바싹 긴장되었다. 분명 자신은 그 무
엇인가 알지 못하고있으며 그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짐작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속이 꼭 풀리게 잘 봐주라
구.》

《.....》

허준호는 박아바이의 말에 자신도모르게 랑미
간을 찡그렸다. 자기가 보았을것이라는 설계도면
도 통 생각이 안났다. 오철수의 그 엉뚱하다는 설
계는 과연 어떤것인가.

오철수는 멍히 서있는 허준호의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절절하게 말했다.

《기사장동지는 아직도 그 설계가 미덥지 않습
니까?》

《.....》

허준호는 한걸음 물러섰다. 낮이 화끈 달아오
르고 잔등에서 땀이 솟았다. 오철수는 실망한듯
후-하고 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때 설계를 제출한후 현실성이 없다고
하여 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래서 그
후 동무들하구 토론하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아래 막장을 보십시오. 여기서 막장까지 3백
미터가 좀 넘는데 그곳까지 쇠바줄을 늘이구 거

기에 벨트콘베아를 놓자구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박토처리가 지금보다 몇배는 더...》

《가만, 공중줄다리벨트콘베아말이지?》

허준호의 입에서 엉겁결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
다. 머리에 섬광처럼 번쩍 떠오른것이 있었던것
이다.

《?...》

오철수의 눈이 등그래졌다.

《아, 그래서... 어서 말하오.》

허준호는 오철수의 눈길을 피하며 말머리를 돌
렸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쇠바줄 늘일 쌍기둥철탑
을 세우자구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쇠바줄을 늘
일 권양기능력입니다. 팔뚝처럼 굵은 쇠바줄 3백
메터니까 수십톤이 넘는데... 그래서 우린 현재
있는 소형권양기 다섯대를 이 철탑에 가까이 놓
고 힘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한답니다.
머칠전에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열정에 넘쳐 말하던 오철수의 목소리가 점차
목안에 기여들었다.

두눈을 꼭 감고 깊은 숨을 내쉬는 허준호의 고
뇌질은 모습이 이상했던것이다.

(팔뚝처럼 굵은 쇠바줄, 쌍기둥철탑, 대형권양
기...)

허준호의 머리속엔 이런 단어가 앞을 다투어
떠올랐다.

2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를 접한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광산은 불도
가니처럼 끓어번졌다. 언제나 쇠돌생산을 넘려하
시여 광부들을 뜨겁게 믿어주시는 아버지 수령
님의 크나큰 신임에 생산적앙양으로 보답할 충성
의 맹세들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그 벽찬 어느날 기술과에 흥미있는 기술혁신안
이 제기되었다.

그것이 바로 공중줄다리벨트콘베아였다.

설비가 간편하고 능률높은 설계안으로서 첫눈
에 피가 곤두서게 하는 대담한 착상이었다.

막장이 깊어진 실정에서 박토를 한번 버리자면
층계층계 높아진 계단을 에돌아야 하는데 그 연
장거리가 무려 10리가 넘었다.

그런데 이 설계안대로 한다면 자동차를 쓰지
않고 막장에서 직접 박토를 처리하게 된다.

막장에서 박토산꼭대기까지 직선거리로 3백메
터 좀 되는데 이 구간에 10미터 높이의 쌍기둥철
탑을 마주세운후 이사이에 쇠바줄을 늘이고 그에
의거하여 공중에 줄다리벨트콘베아를 놓게 된것
이다.

아렇게 되면 대형자동차 20대를 쓰지 않고 10
배의 능률을 낼수 있었다.

그러나 놀랄만한 분석과 판단, 비상한 생산지
휘로 사람들을 놀래우곤하는 허준호는 이번에도

설계안의 결점들을 첫눈에 발가놓았다. 3백미터 구간에 매달리는 쇠바줄을 보조철탑 없이 어떻게 늘이는가. 그럴만한 대형권양기가 없었다. 그 외에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들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호기심도 없지 않았지만 눈앞의 일감이 더 급하고 너무 많았다. 그는 오철수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애쓰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그렇다면... 그때의 설계를 오늘까지...)

가볍게 숙였던 머리를 번쩍 든 허준호는 더운 김이 얼굴에 확 부딪침을 느꼈다. 박아바이가 바깥 나가서며 손목을 꼭 잡아쥐었던 것이다.

《속이 말쑥한 것 같구만. 왜 이렇게 몸이 뜨겁나?》

속삭이듯 울리는 석십한 목소리는 근심에 젖어 있었다.

허준호는 불시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움을 느꼈다.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옥- 치받쳤다. 마음이 어린애처럼 밝아지며 실컷 웅석이라도 부리고 싶었다.

《아까 만능적재기를 완성했다구 자꾸 권한는 바람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허허, 거참 잘했네.》

박아바이는 허준호의 손목을 이끌고 한쪽 옆으로 갔다. 오철수가 웬일인가 해서 그들의 거동을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이보게, 그런데 너무 마셨구만. 자넨 취한 것 같애.》

박아바이가 귀속말로 말했다. 그러나 허준호는 그 목소리가 퇴성벽력처럼 들렸다.

《아바이, 전 취하지 않았습시다.》

하고 웨치고 싶었으나 어둠속에서도 광채를 뿌리며 빛나는 박아바이의 눈길을 감히 마주볼수가 없었다.

《자, 여기일은 걱정 말구 어서 들어가 폭 자게. 그래야 깨끗한 정신으로 충국에 올라갈게 아닌가, 응.》

박아바이는 허준호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다.

허준호는 원망과 감사의 모순된 감정속에 박아바이를 눈물겹게 바라보았다.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뜨겁게 믿어주는 박아바이의 한없이 웅심깊은 마음이 고마웠다.

《동무들, 또 한바탕 해보자구.》

누군가의 웨침소리에 담배를 태우며 떠들던 청년들이 구덩이안으로 뛰어든다. 청년들의 이 거세에 화답하듯 저아래 청년광구막장에서 파란 용접광이 빙글거리며 밤하늘을 태웠다.

광산은 이 밤도 잠들지 않고 있었다.

쉽없이 빙글거리는 용접광에 이끌리듯 한걸음 두걸음 박토제단을 내려던 허준호는 발을 헛짚는 바람에 몸을 비칠거렸다.

《기사장동지가 혼자 꽤 내려갈수 있을까요...》

허준호의 등뒤에서 걱정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준호는 몸의 균형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계단우에 거인처럼 우뚝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을 박아바이와 오철수의 모습이 너무도 잘 안겨왔던 것이다.

잠시 숨을 몰아쉬는 허준호가 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다.

《아바이, 저아래 서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고 숨이 차서 묻는 귀에 익은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옥별이나, 너무 늦으면 올라오지 말라구 했는데... 기사장이 왔었다.》

《아이 그러세요. 난 인계를 끝냈다고 하기에...》

《왜 결혼날자가 또 밀릴것 같아서? 허허, 하긴 기사장이 옥별이때문에 망고생했지.》

《아바인... 서운해서 그러는거지요 뭐... 같이 있을 땐 모르겠던데 정작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다 아릿해요.》

옥별의 목소리는 떨렸다.

《암, 기사장 그 사람이 정말 일욕심은 있지. 이 높아진 박토산을 보라구. 기사장이 여기 처음 왔을 땐 번번했다네.》

《그런데 어찌나. 래일 새벽차로 떠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내려보냈다. 자, 철수이 사람, 오늘은 결판이 나는 날인데 2년동안 기다려온 옥별이한테 코잡구 절하라구 응, 헛헛허...》

박아바이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찌렁찌렁 울려왔다.

(아니 그럼 철수와 옥별의 결혼이?)

허준호는 도망치듯 박토산을 내려왔다.

× ×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온 허준호는 선자리에서 번호열쇠가 달린 철함들을 열어제꼈다.

철함들에는 자신이 직접 수표하여 생산에 도입한 각종 기술혁신안들과 설계들이 가득했다.

그는 한참이나 고심한후에야 세번째 철함 맨 밑에서 낫설어보이는 설계안을 꺼낼수 있었다.

책상우에 퍼놓고보니 언젠가 오철수가 들고왔던 공중줄다리벨트콘베아설계였다.

허준호는 구겨진 설계의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눌러펴면서 웃공간에 《현실성이 없음. 오류》라고 원주필로 갈겨쓴 자신의 필체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실수? ... 실수라기엔 너무나 크지 않는가.)

얼마후 고개를 쳐들던 그는 몸을 흠칫 떨었다. 열려진 철함들에 충충이 쌓여있는 설계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안겨왔던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설계안이 아니었다.

(저 기술혁신안들은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이 아니겠는가.)

허준호의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워졌다. 오철수와 옥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2년씩 결혼을 미루며 것처럼 애써왔으니 그동안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는가.

다시는 옥별이 어머니 볼 면목이 없었다.

어찌 그뿐인가. 늘 존대해온다고 자처하는 박아바이가 작업장과 직종을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박아바이가 이런것을 안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박아바이의 얼굴은 다시 수백수천의 광부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참으로 자신이 어이없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같이 있을 때는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헤어진후에는 좋은 인상을 오래 남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한순간에 받게 되는 매혹적인 인상도 아니며 요란한 박수나 선망의 눈길 속에 살았다고 하여 그 인상이 오래 남는것이 아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나 떠난후 잊지 못해 자꾸자꾸 그리보고싶은 인상, 그것은 레사로운 나날에 가슴속에 새겨지고 자신들도 모르게 늘 체감하던, 자기보다 남을 위하여 더많이 생각하고 일하는 그런 변심없는 성실한 생활인것이리라.

눈앞에 박아바이의 변함없는 모습이 짝 차올랐다. 오철수며 광구장의 얼굴도...

《봉-》

어디선가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허준호는 생각에서 깨어나 푸름푸름 밝아오는 창밖을 안타까이 바라보았다.

날이 밝으면 새 부임지로 떠나야 했다. 그곳에는 총국기술과장이란 직책과 더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을것이다.

시간이 그리웠다.

다문 며칠만이라도... 그러면 저 철함속에 있는 설계안들을 다시 검토해볼수 있고 박아바이와 오철수들이 하고있는 공중줄다리벨트콘베아도 완성할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될수 없었다.

시간은 바야흐로 려명을 알렸다. 문득 시간의 촉박감을 느낀 허준호는 오철수의 설계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몇발자국을 옮기지 못하고 못박힌듯 서 버렸다.

사무실마당앞까지 우뚝우뚝 솟은 박토산들이 가슴을 찌르며 안겨왔다.

땀과 노력과 열정의 봉우리로 것처럼 긍지높이 생각해오던 박토산이 아무 쓸모 없는 버력더미로 보였던것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버력산이었다. 쇠돌을 다 캔 후 사람들마저 떠나버리면 여기에 남을것이란 저 버력뿐일것이다.

그때 그 누가 지어 것처럼 박토박토하던 광부들조차 버력무지를 보고 박토라고 말하진 않을것이다. 그 누구도...

아, 잃어버린 그 시간을 되찾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일들로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도 뺄없이 채우고 싶은 충동을 허준호는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사람은 후회없이 살아야 한다. 이것은 허준호가 얻은 생활의 교훈이었으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쏟을줄 아는 인간이 되겠다는 그의 결심이기도 했다.

별에 대한 답시 외 1 편

리광근

가물거리는 어유등

희미한 불빛아래서

까까중머리 소년은 듣고있었다

진한 담배연기를 피우며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들을수록 소년의 눈은 빛났다

열어제낀 방문너머

금시 장군별이 빛을 뿌리며

환하게 집안을 비추주는듯

그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꿈같은 그 이야기, 깊어가는 밤

저 멀리 북녘으로 나래를 펴고

그 별을 따라 끝없이 가고있었다

저기 달려오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소년은 대리석기둥 큰집에 들어서고있었다...

철썩이는 파도소리 파도소리
서느러이 불어오는 다도해의 새벽바람
잠결에 섬기슭으로 뛰어나왔을 때
뒤통을 올리던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아버지는 소중히 쓴것을 안겨주었다

기다려 그 몇날몇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또 한밤
장군님 초상화 모셔진 소중한것을 펼쳐두고
눈물을 씻으며 복벽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빛에
백두의 별, 장군별이 찬란히 비쳐왔다

.....

가물거리는 어유등
희미한 불빛을 돌구며
어제날의 그 소년이었던 아버지
가까이 다가왔는 아들에게 들려주고있었다
남녘에 퍼지고있는 새 전설, 새 이야기
들려줄수록 아버지의 가슴은 울렁이었다

그날처럼 열려있는 방문너머
또 하나의 별, 향도성이 빛을 뿌리며
온 집안을 환히 비쳐주는듯
그는 가을밤 하늘을 비쳐주는듯
꿈같은 이야기로 깊어가는 밤
저 멀리 복벽하늘 그 별을 우러르며
아들의 손을 잡고 끝없이 가고있었다
거기 마중오는 사람들 저마다 안아주는
아들과 함께 만수대언덕을 오르고있었다...

푸르스름한 새벽 섬기슭의 파도소리
시간을 알리는가 은은한 배고동소리
갑판우에서 낮익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잠결에 따라나온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품고있던 그 소중한것을 안겨주었다

아, 못잊을 기슭에서 넘겨받은 소중한것을
넘겨주는 어제날의 소년-아버지의 눈은
그날의 장군별과 함께 향도성의 빛에 빛났다
별빛은 남해의 새벽 배길을 비쳐주고
아버지는 물으로 떠났다, 파도를 헤치며-

내 옮기는 걸음걸음은...

내 옮기는 걸음걸음은

어머니 손잡고 가던 어릴적 마음
가는곳이 지척이여도 그날과 같이
갈길이 천리천리여도 지척인듯이
따사로이 잡아주는 손길을 따라가네

내 옮기는 걸음걸음은

어머니 가꾼 꽃밭에 들어선 마음
철없이 즐겁기만 하던 어제날같이
활짝 핀 송이송이 받아안으며
푸른 꿈 피어나는 저 언덕을 향해 가네

내 옮기는 걸음걸음은

어머니 낸 발자욱을 옮겨딛는 마음
눈오는 날에 길떠나던 그날과 같이
진길 원길 가리여 앞서 걸으며
다정히 이끌어주는 곧바른 길을 가네

순간인들 멈춤 있으랴, 헛디딤 있으랴
당이여, 꿈결에조차 따르는 나의 발걸음
포석길이어도 물길이어도 자욱이 나리
걸어온 천만걸음이 일매진 길에
남기는 마지막 한자욱도 드림없으리

작전연필 외 1 편

백일호

-삼지연 혁명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산지구전투때 쓰시던
한자루의 붉은 연필이 있다-

진렬대우에 놓여있는 한자루의 연필
조용히 우리 걸음을 멈춰세워라
몇번밖에 깎지 않은
그 붉은색연필은

청봉의 밀림
달빛이 조용히 새여내리던
우등불가에서 깎으시였을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포연이 걷힐줄 모르는
대홍단 그 가렬한 싸움의 불길속에서
저 연필을 깎으시였으리

조국진군의 지도우에
저 연필이 멋어서면
그곳에선 우뢰가 울고
저 붉은색연필이 달리면
백두의 하늘끝에 승리의 노래 닿았나니

저리도 짧게 깎은 연필끝에서
무산지구의 원썬들 전멸되었으매
아, 저 붉은색연필 다시 깎으실 때
이 세상의 원썬들 남아있으랴!

백두산의 샘물

지나가는 구름도 쉬여가고
흰부석이 둥둥 떠있는
백두산의 샘물
천지에 뿌리두어 마를줄 모르는가

먼 싸움길 떠나던 유격대원들
여기서 목을 추기고갔네
원썬들 이기고 돌아온 대원들
차디찬 이 샘물로 단가슴 식히었네

눈보라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 마음

천연바위를 더듬어 흘러내린
저 백두산 샘물로 가슴 적시였기때문이리

아 백두산의 샘물
만병초뿌리를 씻어내려
그 한모금에 장수힘 솟는가
그 샘물로 이 병사의 가슴을 적시니

아 날리는 구름우에
천만산악들이 솟아오르고
흰 물거품을 뿌리는 남해바다는
충을 켜 병사의 발밑이로다!

생활과 신념

김원복

1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이 직장들을 돌아보고있었다. 그가 바로 이곳 기계공장으로 소환되어온지 두달 밖에 안되는 공장초급당비서 박순호다.

초급당비서는 그동안 공장실정과 사람들을 료해하고 낮익히는데 힘썼다. 그는 이른아침마다 직장들을 돌아보던 그전날에 붙은 습관대로 지금도 이렇게 직장과 사무실들을 돌아보고있었다.

공장은 아직 잠에 취한듯 조용하였다. 길바닥과 주변에 널려있는 낙엽에 내린 이슬이 햇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거렸다. 바람한점 없이 한적한 공장구내의 아침이었다.

초급당비서는 관리부청사로 발길을 돌렸다. 방문들마다에는 봉인지가 붙은 여러가지 형태의 자물쇠들이 데롱데롱 매달려있었다. 그런데 기술과의 나들문만은 반쯤 열려있었다. 초급당비서는 그쪽으로 조용히 다가가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기술과장 허명찬이 자기의 량수책상우에 무슨 도면같은것을 펴놓고 진중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참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였다. 공장의 크고작은 모든 기술문제를 막힘없이 해나가는 책임적인 일꾼이라는 느낌을 벌써 몇번이나 강하게 받았는지 모른다.

(□형기계의 전기장치 자동화 연구가 걸렸다더니 ...)

박순호는 마음이 흡족하여 혼자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자기 사무실이 있는 2층건물의 층계를 올라 복도의 굽인돌이를 돌아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 방문앞에 치마저고리를 입은 처녀가 주뿔거리고있었다.

(웬 처녀인가...)

박순호는 일부터 잔기침을 하였다, 인기척에 놀란 처녀는 잘못을 저지른 때처럼 빨강게 익은 얼굴을 다소곳이 숙이며 인사했다.

《가만 설계부의 ...?!》

《네!》

처녀는 쌍가풀진 눈을 살짝 들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굽실굽실한 술많은 머리칼이 어깨우로 흘러내렸다. 반쯤 열린 빨간 입술은 무엇인가 말할듯이 가늘게 움직였다. 틀림없이 긴요한 안건을 가지고 온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저...》

설계부 김영애는 방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하고 발끝으로 복도바닥을 우비며 주저주저하였다.

《어서 들어와서 말하라구. 무슨 일인데?》

영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방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당비서가 친절히 내어주는 의자에는 앉을 생각을 안했다.

《허, 총각 선보려 온것 같구만.》

《아이, 비서동지두...》

영애는 너무도 스스럼없이 대해주는 당비서앞에서 박속같은 이를 손등으로 가리우며 소리없이 웃었다.

《저 변압기를 하나 구했으면...》

《뭐 변압기?!》

순간 당비서는 놀랐다. 그리고는 덤덤히 서있는 영애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설계부에 변압기가 필요하오?》

《그런게 아니라 저...》

《그럼?!》

《.....》

처녀는 뒤말을 잊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손톱만 썰고있었다.

《자재과에 말해봤소?》

《.....》

《창고에도 가보구?》

처녀는 귀밀이 빨강게 익은채로 서있기만 했다. 《그렇다면 자재과장이 아닌 내가 변압기를 구할수 있을까?》

《비서동지, 정말... 부탁입니다.》

영애의 부탁은 너무도 절절하였다. 그는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봉긋한 앞가슴에 두손을 얹고 몸을 흔들며 말했다.

초급당비서는 처녀의 간절한 부탁을 모른다고 할수가 없었다.

《부탁이라니 노력해보지.》

《고맙습니다. 비서동지! 정말...》

영애는 거둬 감사를 남기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초급당비서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문을 열어젖혔다. 깨끗한 공기가 살며시 스며들어 방안을 채우고있었다.

현관문을 빠져나온 영애가 설계부쪽으로 가볍게 걸어가는것이 보였다.

(변압기, 변압기라 김영애... 혹시...)

용도는 딱히 알수 없지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당위원장회를 찾아왔을것인가. 꼭 필요한것이라면

기술과, 자재과에서 구해주었겠는데… 혹시 행정 일꾼들이 모르는것이 아닌가?

아니, 아니다. 그는 변압기를 구하자고 무진 애를 다 쓰다가 더는 해결할 방도가 없게 되어 당위원회까지 왔을것이다.

초급당비서는 새로운 뜻밖의 부탁에 대하여 오래도록 생각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수고합니다. 기술과에 부탁드립니다.》

박순호는 한손으로 수화기를 귀에 받쳐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탁상일지에다 《김영애-변압기》라고 큼직하게 썼다. 수화기에서는 전류 흐르는 소리가 잉-하고 들렸다.

《방이 비였구만, 이따가 찾읍시다.》

초급당비서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사업수첩을 펼쳤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응석받이 딸애처럼 영애의 얼굴이 자꾸만 어러왔다. 그래서 그는 다시 수화기를 들어 자재과에 부탁했으나 역시 전류 흐르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때 인기척소리도 없이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안경을 낀 기름한 얼굴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아 과장동무, 방금 찾던중입니다.》

기술과장 허명찬이 코를 쿵쿵 불며 들어왔다. 허우대가 크고 몸집이 좋은 사람이다. 그는 옆구리에 찢려가지고 온 종이두루마리를 당비서앞으로 내밀어놓더니 마루바닥을 굽으며 의자를 끌어다앉았다. 허명찬은 코등에 흘러내린 검은테안경을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올리고는 주머니부터 뒤적거렸다. 담배를 물시 즐기는 모양이다.

하기는 몇번 마주앉으면서 느낀바지만 그는 하다못해 빈 물부리라도 손에 들지 않고는 말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의 말을 빌면 기술과장 10년동안에 버릇으로 돼버린 습관이었다.

허명찬은 새로 온 초급당비서이지만 조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당비서에게는 어딘가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따듯이 이끄는 인품이 있었다. 무슨 일로 찾아오면 언제나 진지하게 도와준다는 데서부터 호허물이 없어진것 같다.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창안입니다.》

허명찬은 책상위에 펼쳐놓은 도면을 눈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누가 이걸 창안했습니까?》

《그저 줌…》

《과장동무가요? 아주 훌륭합니다!》

초급당비서는 과장을 미덥게 바라보며 탄복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동무, 꼭 완성하십시오.》

허명찬은 기분이 흡족하여 귀밑까지 입을 벌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당비서가 평가하는데서 힘이 생기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당비서는 허명찬의 도면에서 크게 새로운것이 없으며 이미 어느 기업소들에서 도입되는 설계안이라는것을 대뜸 느꼈으나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그마한 싹도 하나의 발기로 되며 다른 기술자들에게 자극을 줄수 있기때문이었다. 초급당비서는 허명찬과장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과장동무는 설계부의 김영애를 잘 알지요?》

《?!》

《그 동무한테 혹시 무슨…》

《아, 비서동무는 아직 모릅니까? 그 처녀는 우리 문수일기사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허명찬과장은 당비서의 물음에 왕청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초급당비서는 영애의 사랑문제를 처음 듣는것이라 허명찬의 말을 막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허명찬은 당비서의 놀라움에는 관계없이 시름겨운 사람처럼 담배연기만 풀쭉풀쭉 내불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말이지요. 허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 비서동무, 옷을 형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이미 금이 갓지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일은 망랑하지요. 문기사의 전기장치자동화가 성공하면 혼례를 하자고 약속한 모양인데… 문기사의 그 연구는 2년 하고도 석달이 지났지만 성공할 여부는 없지요.》

처녀는 자꾸 나이가 넘어나지, 그래서 그의 어머니 길너동무는 아마 다른 총각을…》

근심스러운듯 뒤말을 달지 못하는 허명찬의 허부족한 입을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보던 당비서는 조용히 눈길을 떨어뜨렸다.

《흠- 그렇단말이지요. 부모들이 …》

심중한 문제였다. 청춘들의 훌륭한 약속이 꽃피지 못한채 시들어버리는것만 같아 가슴이 서늘해왔다.

《그래 과장동무의 생각은?》

《글쎄 그러지 않아도 문기사동무는 생산을 책임진 현장기사로서 할일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하물며 …》

초급당비서는 허명찬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말에 불뉘이같은것이 가슴을 짝 메웠던것이다. 여기에는 필경 복잡한 그 무엇이 얹혀있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인간에 관한 조런치 않은 문제라는것을 느끼게 했다.

《허허… 과장동무한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술과장으로서말입니다.》

《에?!》

너무도 뜻밖이라는듯 허명찬은 입으로 가져갔던 담배를 허공에서 멈춘채 번들거리는 안경너머로 초급당비서를 보았다.

《남들이 못한다고 해도 과장동무야 새싹을 지지하고 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서동무, 나도 도올대로 도왔습니다. 강건너 불보듯한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저 그렇다는 말입니다.》

허명찬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담배만을 빨았다. 그의 입에서는 흰연기가 시름없이 풀풀 흘러나왔다.

초급당비서도 하얗게 타들어가는 담배재를 바라보면서 허명찬이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2년나마... 난들 왜...》

이때 울려오는 전화종소리에 허명찬의 말은 끊어졌다.

《예, 경제선동을 요즘에... 예, 그럼 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사이 허명찬은 자기의 하얀 손가락마디만을 딱딱 꺾고있었다.

《물론 어렵지요. 하지만 힘들다고 물러난다면 도대체 되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초급당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개에서 작업복을 벗겨 입었다. 웅색한 순간을 벗어난 과장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비서를 따라 복도로 어정어정 걸어나왔다.

초급당비서는 허명찬을 돌아보며 미안한듯 빙긋이 웃었다. 그가 웃을 때는 오른쪽으로 하얀 덧이가 드러나서 마흔살이 아니라 스물안팎의 홍안의 청년처럼 보였다.

층계를 내려가던 초급당비서는 잊었던듯 걸음을 멈추고 무엇인가 유감스러워하는 눈빛으로 허명찬을 돌아보았다.

《과장동무! 혹시 변압기가 어디 하나 없을가요?》

《변압기요?!》

《좀 필요해서 ...》

《.....》

허명찬은 무엇인가 짚어는것이 있는지 말을 못하고있었다. 초급당비서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밖에는 대상설비를 실러 온 자동차들이 마당가득 들어차서 부르릉거리고있었다. 사람들이 구내길에 바쁘게 오갔다.

초급당비서는 ㄱ형기계의 창안을 둘러싸고 기술과장과 문수일, 문수일과 김영애, 딸과 어머니, 기술과장과 길너, 이사이에 묘한 문제가 얹혀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그는 문수일기사를 만나보고싶었다.

2

이른새벽에 초급당비서는 조립직장안으로 들어갔다. 작업장안은 아직 출근전이어서 피피하였다. 그는 저도모르게 문기사의 시험기대앞으로 다가섰다. 그에게 있어서 이 기계는 처음 보는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이 기계는 하나의 거물처럼 느껴졌다. 그전에는 이런 느낌이 든적이 없었다. 며칠전 기술과장의 말을 들은 그때부터 그에게는 이 기계가 범접할수 없을것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기술과장을 잘못보았는가?)

초급당비서는 검은테안경알이 번들거리는 허명찬의 얼굴이 눈앞에 또렷이 새겨지는것을 털어버리려는듯 무거운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기계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그만이야 흠칠 놀라 우뚝 섰다. 뜻밖에도 어떤 사람이 맞은편 기계옆에서 몸을 웅송그린채 자고있었다.

(...?!)

곧추 세운 무릎우에 두팔을 어겨엮고 그우에 머리를 모로 눕힌 얼굴에는 기름 묻은 모자가 덮여있었다. 자세히 보니 문기사였다. 그의 두툼한 입술은 약간 벌어진채 있고 눈귀에는 파스한 미소가 어린 가느다란 주름살이 잡혀있었다.

명청히 문수일을 지켜보는 당비서의 가슴은 알찌근하였고 눈시울은 뜨거워올랐다.

문수일의 옆에는 자그마한 나일론 꽃보꾸레미가 놓여있었다.

(영애동무가 가져온것이 아닐가?)

초급당비서는 이윽도록 한자리에 못박혀 서있다가 발길을 돌렸다.

초급당비서는 그 꽃보자기를 김영애가 갖다놓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설계부를 찾았다. 그는 설계부앞에서 인기척을 내면서 문을 열었다. 창문쪽에 앉아 무슨 책을 보고있던 영애가 놀라는 눈빛으로 당비서동무를 쳐다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비서는 다정히 웃으며 방안에 들어섰다.

《일찍 나왔구만.》

《.....》

《혹시 방해라도 되지 않을까?》

《아이, 아닙니다.》

당비서는 영애의 앞으로 다가가 의자를 당겨놓고 앉았다.

《허, 영애동무가 요즘 전기기사가 되려는 모양이다. 전기학을 공부하고...》

당비서는 영애가 문수일을 돕기 위해 전기학을 보는것이라고 생각되자 처녀에게 이렇게 롱을 걸었다.

《.....》

영애는 얼굴이 홍당무빛이 되어 대답을 못하고 서있었다.

《거기에 앉으라구.》

박순호비서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들며 말을 이었다.

《동무가 부탁한 변압기가 어디에 필요한가를 묻지 않겠소. 나도 영애동무처럼 문기사의 연구를 돕는 의미에서…》

초급당비서의 입에서 문수일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영애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영애는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기여들고싶은 마음이었다.

《과학탐구란 순탄할수 없지. 그러나 사람은 믿음이 중요한거요…》

그는 담배를 피우는것마저 잊고 조용조용히 말했다. 이때 영애의 눈은 창밖의 멀리 문수일이 있는 곳을 주시하고있었다.

《문동무는 꼭 해낼게야…》

《…………》

영애는 아래입술을 옥물고 울음을 참는듯 잠시 머뭇거리다 겨우 한마디 했다.

《고맙습니다. 비서동지!》

《암 해내구말구.》

당비서는 지금 혼자소리처럼 말하고있었지만 머리속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생각하고있었다.

…문수일과 김영애는 공장대학을 함께 다니고 졸업한 동창생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에 대한 감수는 아마도 뒤늦게 찾아온것 같다. 문수일과 김영애는 대학을 졸업한지 3년만에 서로 사랑을 약속하게 되었다.

사랑이 무르익는 그들의 생활은 즐기차게 흘렀다. 그사이 새로운 전기도금법을 연구한 자료와 설계를 고스란히 남에게 넘겨주기도 했고 기계제작에서 원가를 낮추는 일에서도 대중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거기서 그들은 행복을 찾았고 삶의 보람을 느꼈다. 참말로 그들의 사랑은 말라버릴 줄도 모르고 얼어붙을줄도 모르는 영원히 솟구치는 맑은 샘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랬던것이 어째서 지금 그들의 사랑에 금이 간단말인가. 무엇때문에 즐기했던 생활이 정지하려 하는가. 그 원인이 어데 있단말인가?

초급당비서는 그 아리송한 물음에 대답을 찾으려고 처녀의 상기된 얼굴을 다감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영애는 그 무슨 잘못을 저지른 때처럼 안타까움에 모대졌다. 초급당비서는 그런 영애를 측은하게 생각하였다.

《그 동무의 연구는 2년이 넘었지만 연구가…》

《연구가? 그래 어쨌단말이요?》

초급당비서는 문기사의 연구를 못미더워하는 듯한 영애의 말을 반박했다.

《아니 그저 그렇다는…》

영애는 당황하여 빨개진 얼굴을 더욱 깊숙이 숨이였다.

《기술이 부족하단말이지? 아니면…》

《…………》

초급당비서의 다우쳐 묻는 말에 영애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초급당비서는 영애의 말에 스스로 놀라 입을 열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던바와는 달리 그들의 연구와 생활이 전진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되었다.

(신념이 없구나. 사랑하기때문에 돕는다는 영애였어! 신념이 없는 생활이 어떻게 전진하겠는가. 설사 날을 따라 생활이 흐른다 해도 신념이 없으면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지 모르는것이다.)

《영애동무는 잘못 생각하고있소. 부족한것은 기술이 아니라 동무들의 신념이요. 그 신념이 부족하기때문에 동무들의 생활도 즐기차지 못하거든.》

《비서동지, 문동무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확고하다? 나도 문기사가 자기가 하는 일을 확고히 믿는다는걸 아오. 믿어야지 그래야 동무들의 사랑도 더욱 아름답게 꽃필게구…》

《아이 비서동지두!》

영애는 두손으로 활짝 붉어진 얼굴을 싸쥐며 돌아섰다.

초급당비서는 영애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우정소리내여 웃으며 말했다. 《

《허허…공장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당비서에만 비밀로 될수야 없지!》

초급당비서는 아버지라도 된듯 따듯이 말했다.
《그런데… 어쩐다? 듣자니 동무의 어머니는 생각을 달리한다는데 …》

《…………》

영애의 얼굴이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하하하… 그럴수도 있는게지 …》

어떻게 보면 아직도 천진한 처녀라고 할수 있었다. 바람결에 락엽이 굴러가는것을 보고도 허리를 부둥켜안고 깔깔대며 웃을 한창나이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와 굳은 신념을 안고 자기들의 희망과 포부를 꽃피우기 위해 줄달음쳐가야 할 젊은이들이 아닌가! 아직은 그것이 힘겨웁고 현실적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나 우리모두가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면 미구하여 성공을 보게 될것이다.

설계부를 나선 초급당비서는 그들을 어떻게 고무하고 도와줄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부지배인방으로 찾아갔다. 변압기며 실험자재는 행정일꾼들이 다루는것이므로 그들과 사업을 의논해야 하였던것이다.

3

초급당비서는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었다. 무엇인가 생각하려 해도 머리가 산만해서 어느 하나도 푹푹한 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침부터 상급당집행위원회에 참가했다가 밤늦게야 돌아온 초급당비서는 문수일을 불러 오늘 기술협의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들었다.

《기존공식들이나 따지면 못합니다. 제생각에는 우리 기술자들이 당중앙의 의도대로 모든 일을 제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해나가려는 립장에 서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문수일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끝맺었다.

《옳은 말이요. 당중앙에서는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소. 당의 요구를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새기는것이 중요하요. 사람이란 신념이 없을 때는 모든 일에서 뒤걸음 치기가 쉽고 그 다음에는 동요하고 실망하고 마지막에는 투항하거던.》

초급당비서는 문기사의 결심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리고보니 기술과장을 만나고싶었다. 그는 문수일을 보낸 뒤 움쭉 일어나 방을 나섰다.

기술과사무실창문에는 불빛이 환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당비서는 사무실앞에 이르러 조용히 걸음을 멈추었다. 활짝 열어놓은 방문밖으로는 뜻밖의 과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나왔기 때문이다.

《...동무의 고집은 곧 허영심에서 나온단말이요.》

《뭐라구요?!》

뚜벅뚜벅 마루바닥을 울리는 구두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과장이 누군가를 앉혀놓고 상급답게 방안을 거닐며 강하게 추궁하고있었다. 《그렇소. 나는 그 허영심을 찬성할수 없단말이요. 벌써 3년째나 ... 그래 기사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모르겠소?》

《과장동무는 너무합니다. 이젠...》

《뭐 너무하다구? 아니 그럼 다른 기술자들은 머저린줄 아오. 다른 기술자들은 동무만 못해서 말하는줄 아는가말이요...》

이것 보오. 동무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소. 길너동무가 뭐라는지 알기나 하오? 이젠 우리 기술과에 망신이란말이요. 그래 동무는 부끄럽지도 않소?》

《과장동무, 남의 개인생활까지...》

《그만하오. 그만해!》

박순호는 심장이 후두둑거려 더는 서있을수 없었다. 그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어데선가 귀뚜라미가 달달거리며 울고있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애절하게 들려왔다. 그래서인지 초급당비서의 가슴은 더더욱 쓰리고 아팠다.

박순호는 지금 기술과장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껴지는것이 많았다.

(그런 사람이었던말인가?)

담배를 꺼내물었으나 불을 붙이는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공연히 정문앞길을 오락가락 하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것도 뒤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주위를 빙빙 돌았다. 그의 걸음은 끝이 없을것 같았다. 발을 옮겨디딜 때마다 구두의 앞코송이가 무드러진 망치대가리처럼 보였다. 그끝으로 담뱃이라도 한번 힘대키는대로 걷어차고싶었다.

바로 이때 기술과장이 안경을 번뜩이며 들어섰다.

초급당비서는 생판 처음보는 사람처럼 기술과장을 뿔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랬으나 허명찬과장은 언제나와 같은 태도로 코를 쿵쿵 불며 의자를 당겨다 걸터앉더니 담배부터 꺼내물었다.

초급당비서는 허명찬을 잊은듯 다시 책상주위를 몇번이나에돌다가 창문가로 다가섰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무엇인가 속삭이듯 반짝거렸다.

벽시계의 종이 울렸다. 그는 아이들처럼 마음속으로 그 종소리를 하나, 둘 세었다. 종소리가 자꾸자꾸 울려주었으면 좋으련만 도무지 두점을 때리고말았다. 시계종소리의 여운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졌다.

《문기사를 만나 비판을 좀 했습니다.》

허명찬은 성냥을 그어 입에 문 담배끝으로 가져가며 말을 이었다.

《원래 공상하기를 좋아하는 청년이라 꿈이 뻗치는대로 고집한단말입니다. 고집이 결코 그의 성공을 담보할수는 없지요.》

얼핏 듣기에는 문수일에 대한 교양같이 들리지만 그의 말속에는 묘한 감정이 숨겨있었다.

《공연한 비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공상도 없고 결해도 없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

허명찬은 놀라듯 눈을 치켰으나 말이 막히는지 굳입만 찹찹 다시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동무는 이 허명찬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데 ...》

허명찬은 채 타지 않은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기술협의회에서도 명백해졌지만 내가 비서동무에게 말할수 있는것은 아직 문기사의 연구에는 그 어떤 기술적담보도 없다는것입니다.》

《과장동무 좀 앉으십시오.》

방금 나가려던 허명찬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흘러내린 안경을 장손가락으로 올려밀며 우두커니 서있었다.

《말이 났으니 나도 과장동무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급당비서는 허명찬을 놀려앉히었다. 했지만 막상 말을 하자고하니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생각같아서는 호되게 추궁하고싶었지만 그렇게는 할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것인가? 따뜻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은 없을가... 그는 곰곰히 생각하면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파르끼레한 연기가 눈앞에서 사물사물 피어올랐다.

드디어 당비서는 침묵을 깨트렸다.

《나의 말을 곡해하지 마시오. 내가 잘못 생각할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나는 과장동무의 기술실무가 높고 전격력이 강하며 책임성 있는 그 좋은 사업작품을 믿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것이 의심받게 된단말입니다.

과장동무는 사업에서 쉽게 성과로 나타날것만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것은 뒤에 묻어버리려 하는것 같단말입니다. 문기사의 2년나마 연구해오는것을 두고도 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동무는 문기사의 연구가 어렵다는것을 알고 자기의 훌륭한 기술을 보태려고 애쓰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연구에 합심하지 못하도록 하는것 같습니다.》

《비서동무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허명찬은 분기를 억제하느라고 입술을 뽀뽀 뒤말을 잊지 못하고 손만 짝 벌렸다. 그는 제풀에 씨근덕거렸다.

《비서동무! 이것은 기술문제입니다. 기술자들의 과학론리를 무시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결로 해결하는것은 아닙니다.》

초급당비서는 새 담배를 붙여물고 한모금 깊이 들이키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이 당의 요구라면 비록 열사람, 백사람이 할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달라붙어 해야 합니다.》

허명찬은 습관적으로 즐기는 담배마저 잊었는지 움찔하지 않고있었다.

초급당비서는 담배팩을 과장앞으로 밀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창밖으로 얼굴을 돌리고있었다.

《나는 과장동무에게 정신적로쇠가 올라와 두렵습니다.》

《내가요?!》

허명찬은 소스라쳐 놀라며 펄쩍 뛰었다.

《허허... 내 말이 틀렸다면 시정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과장동무는 자기가 창안하는것은 실현하자고 뛰어나면서도 남이 연구하는데는 왜 눈을 적게 돌립니까.》

《기술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결코 욕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과학도 다름아닌 사람이 하지요. 기계도 사람이 만들구요. 나는 서로 도와 함께 난관을 이겨나간다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동무 이렇게 하지 않다가는 우리 기술자들에 나쁜 병균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초급당비서는 영애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될수록 듣기 좋게 말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허명찬은 가쁜 숨소리를 죽여가며 깊이 생각하는듯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 나가버렸다.

방안은 다시 물뿌린듯 조용하였다. 자기의 부푼 숨소리조차 들리는듯하였다.

이때 문기척소리가 조용히 났다. 문수일이 들어서서 머리를 약간 숙였다. 기술과장한테 받은 추궁에 맥이 풀렸는지 두어깨가 처져있었다.

초급당비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세시반이었다. 생각같아서는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싶었으나 초급당비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소? 지금이 몇시요? 할말이 있으면 래일 합시다.》

《.....》

문수일은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왔으나 말을 꺼낼수 없었다.

초급당비서는 문수일의 심정을 백번 이해하는듯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허, 그렇게 죽지 부러진 새가 되어서야 하늘을 날수 있나! 사람두...》

문수일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정문을 나서던 초급당비서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쩐지 마음이 승승하여 견딜수가 없었다.

아파하는 마음을 풀어줄 대신 그냥 쫓아보낸 아픈 가슴을 안고 서있던 당비서는 발길을 공장쪽으로 돌렸다. 조립장안으로 들어서던 박순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저 동무들이?!)

영애가 시험하는 기대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이는데 문수일은 얼없이 맨땅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만 빨고있지 않는가.

(끝내 ... 그들사이에 ...)

초급당비서는 당장 뛰어가 그들을 외락 껴안고 위로해주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슬그머니 돌아서고말았다.

4

초급당비서는 탁상일지를 당겨다놓고 거기에 《변압기운반, L 대학교수 방문.》이라고 큼직하게 썼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었다.

《기술과에 주시오.》

인차 상대방의 목소리가 전류를 타고 울려 왔다.

《아, 과장동무만요. 변압기가 해결되었습니다. 예, 과장동무가 곧 실어왔으면 하는데. 영애동무가 알면 무척 기뻐할겁니다. 함께 가도록 합시다...》

그는 수화기를 놓고 흡족한 마음으로 일어섰다. 방금전에 부지배인으로부터 문수일의 연구를 위한 모든 대책을 취했다는 전화를 받은것이다.

애로와 난관 속에서도 문기사의 연구사업은 진척되는셈이다.

초급당비서는 가벼운 마음을 안고 영애의 어머니를 만나러 그의 집을 찾아 떠났다. 그의 집은 다층아파트 3층이었다.

《아이구 비서동지가 어떻게...?》

길너는 초급당비서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두칸 방안은 너랑청갈았다. 가장물들이 그꼴하게 차려져있었다. 모든 가구들이 반질반질 윤기가 돌았다.

길너는 부산을 피우며 방저들을 대충 하고 이어 재털이와 방석을 들고 내려와 마주앉았다.

《영애동무는 어데 갔는가요?》

《그 애가 집에 붙어있나요.》

방안을 둘러보며 머리를 끄덕이던 초급당비서는 맞은편 앉은뱅이 책상우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웬 청년의 사진에서 한참이나 눈길을 떼지 못했다. 바로 저 사진이 길너의 손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애의 사랑에 흔들림이 생겼을지 모른다.

《아니 원, 아무리 흥허물이 없다 한들 이렇게 갑자기 ...》

너인은 정겨운 눈을 슬벅거리며 두서없는 말을 한참이나 늘어놓았다. 그는 마치도 시동생을 만난것처럼 초급당비서의 팔소매를 툭툭 건드리며 우스개소리를 하였다. 초급당비서도 마음이 유쾌해져서 마주 웃었다.

《아주머니, 내 이야기를 나누고싶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하구요? 내한테야 무슨...》

길너는 웃음을 거두고 정색하였다.

《내 혹시 가정일에 참견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애의 혼처가 나졌다면서요?》

《아이구 비서동지가 다 알구...》

《허허 ...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야 알고있어야지요.》

《예, 끝결한 총각이 나졌다우. 해서...》

《그런데 영애동무는 문수일기사와 약속을 했다는...》

《에이구 그래서 말썽이 아니유. 우리 애가 문기사한테 홀리워서...》

《하하하... 영애동무가 문기사한테 홀렸단말이지요? 그거야 누가 누구를 홀려냈는지 알겠나요!》

《에그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있답데까. 그 사람이 우리 애를 어떻게 홀려왔는지... 아 글썽 그 애들이 2년전에 약속했다는걸 이 에미도 몰랐었수다래 ...》

《오래동안 사업과 생활을 통해서 검열되었으니 좋지요.》

《말두 마시우. 우리 애가 정신이 썩 나갔지 제 에미도 모르게 약속을 하는 법이 어데 있다우...》

길너는 량미간에 고집스러운 주름을 깊이 파며 이야기를 줄달아나갔다.

《...오촌사돈벌이 되는 집에서 혼처말을 가져왔는데 총각이 내 첫눈에 들더라니 넌떡 응했지요. 영애야 내 말이면 들을줄 알았수다. 그런데 글썽 벌써 2년전에 문기사와 약속인가 뭔가 했단걸 알겠나요.》

에미와 의논도 없이 제멋대로 사랑이요 뭐요 하며 꼬리를 치고있으니... 내자식 버릇없이 키운 탓이지요.

문기사에 대해서 기술과장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허영심때문에 망치겠다고 걱정을 하지...》

길너는 뒤틀린 심사가 분기로 솟구쳤는지 갈린 목소리로 주어섰었다.

《허허... 문동무가 허영심때문에...》

초급당비서는 너무나 여이가 없어 허거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는 귀밑머리가 허열게 돼가는 길너가 딸에게 안타까이 눈먼 사랑을 쏟고 있다는걸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나에게 영애는 무남독녀가 아니요. 그런데 그 애가 벌써 사내편에 서 에미가 굶다고 편역까지 드니 원.》

초급당비서는 묵묵히 듣고있다가 담배를 꺼내 물며 수궁하였다.

《시집을 보내야지요.》

《아무리문요. 문기사가 연구하는걸 어느 세월에 기다린다우. 그것도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데...》

초급당비서는 문수일의 연구가 언제면 된다고 꼭 집어 말할수 없어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 일에는 부모의 권유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 영애동무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들을게 됩니까. 비서동지? 좀 타일러 주시우.》

《문수일동무도 만나봤습니까?》

《에그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시우. <어머니, 그 제 바쁜 일이 아닙니다. 나야 그저, 어머니 소원이 정 그러시다면야...> 하질 않겠나요!》

《그러니까 길녀동무에게 말긴셈이군요..

영애동무는 사람을 빗보지 않을텐데... 혹시 이 다음에 후회하지는 않겠습니까?》

《그건 무슨?!》

《아니 그저 해보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머니 알아야 할것은 문기사의 연구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위원회에서는 문기사의 연구를 꼭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문기사의 연구를 아주머니도 믿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초급당비서는 길녀의 집에서 나왔다. 지금 당장은 길녀를 다르게 설복시킬수 없을것 같았다. 더우기 기술과장이 길녀에게 췌기를 쳤으니 일은 쉬이 풀리지 않을것이었다.

5

이틀동안 L 대학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초급당비서는 기술과장한테서 문기사의 연구가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험실적연구와 도입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던것이다.

《자,이래도 내가 정신적로쇠가 온다구요? 어디 말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듯한 기술과장의 시선을 피하여 초급당비서는 소탈하게 웃었다.

허명찬은 셈평 좋게 웃기만 하는 초급당비서가 리해되지 않는듯 한동안 멍청히 앉아있었다.

《비서동무? 그만하면 이제...》

초급당비서는 허명찬의 단호한 태도에 어차피 피할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허... 또 그런 말을 합니까? 언제인가도 말했지만 신념이 없는 사람이 그런 립장을 가집니다.》

《아니 비서동무는 현상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만하면 기술문제가 고집이나 공명심으로는 안된다는걸 왜 외면하려 하는가말입니다.》

초급당비서는 놀라며 허명찬을 쏘아보았다. 천만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과장동무! 그런 말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렵니까?》

《...?!》

초급당비서는 전에 볼수 없던 침착성과 엄격하고도 의젓한 풍격을 세웠다.

《오늘은 좀 비판을 해야겠습니다. 나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면서 기술혁명에 대한 신념을 못가지는 과장동무가 리해되지 않습니다. 남이 해줄 때를 기다리잡니까? ...

이것은 단순한 기술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동무의 사상과 신념 문제입니다. 과장동무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예? 변질된다고요?!》

허명찬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듯 당황한 눈길로 초급당비서를 바라볼뿐이다.

《그렇습니다. 당정책학습을 안하니 그만큼 알려주어도 모른단말입니다. 머리에 녹이 쓸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동무의 사고방식은 우리 당의 사상이 아닙니다.》

《비서동무, 비서동무가 이렇게까지 내 심정을 오해할줄은...》

허명찬은 울음이라도 터질듯 자기의 가슴을 탕탕쳤다.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보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주물법을 연구해낸 한 기술자를 몸소 찾아내시고 제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계의 전기장치를 자동화하지 못해서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공장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다면 그때 무슨 면목으로 나서겠습니까? 이 설비를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가고 물으신다면 과장동무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겠는가말입니다.》

초급당비서는 몹시 흥분하였다. 허명찬은 흘러내린 안경을 밀어올릴 생각도 않고 몸을 우르르 떨었다.

《그런데 과장동무는 자기의 그릇된 주장을 놓고 젊은이들의 사랑에까지 못을 치고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못을 치다니요, 제가요?》

허명찬은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했다.

초급당비서는 담배를 꺼내물고 성냥을 그어댔다. 성냥가치가 부러지고 책상우에 떨어졌다.

《나는 지금 문기사의 연구가 성공하지 못하는것도 가슴아프지만 과장동무의 행동이 더 쓰리고 괴롭습니다.》

허명찬은 못박힌듯 그 자리에 오래동안 서있다가 나가버렸다...

초급당비서는 폭풍이 지나간듯 괴피한 방안에 홀로 앉아있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내가 그를 납득시키지 못했단말인가. 그는 비판을 접수한것이 아니라 무언으로 항변하지 않았는가.》

그는 행정부지배인이 풍채좋은 몸을 뚱기적이며 들어서는것도 모르고 아픈 가슴을 누르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있었다. 당비서앞으로 다가서던 행정부지배인은 깜짝 놀라 무춤 섰다.

《아니 비서동무, 어디 아픈게 아니요?》

그때에야 박순호는 자기앞에 누가 서있는가를 보았다.

《아, 행정부지배인동무구만- 아릅니다.》

《어디가?!》

《여기가...》

방순호는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가리켰다.
행정부지배인은 겁먹은 눈을 데룩거리며 살피다가 전화기에 손을 뻗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병이 아닙니다.》

행정부지배인은 어안이 병병해있다가 생각키우는것이 있었던지 머리를 끄덕이면서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박순호는 자기가 틀림없이 옳은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명찬을 납득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었다. 그는 옳은 말만 가지고서는 안된다는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음날 오후였다.

초급당비서는 작업복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시험현장으로 들어왔다.

《수고합니다!》

문수일이 고개를 쳐들며 일어났다. 어쭙게 서있는 문수일앞으로 초급당비서가 다가갔다.

《그 회로도를 봅시다.》

누구도 선뜻 회로도를 내주지 않았다.

《왜? 당비서는 모르는줄 아오. L 대학에 출장가서 배우고 왔소.》

《예?!》

모두들 놀랐다. 그제야 초급당비서가 출장을 갔던 사연을 알게 되었다. 문수일은 가슴이 뜨거워올라 큰눈을 습벅거렸다.

《비서동지!》

《자, 이리들 앉으라구.》

초급당비서는 회로도를 받아들자 제먼저 맨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동무들에게 담배부터 권하였다.

동무들의 얼굴에는 화기가 부쩍 피어올랐다. 시험장에는 벽찬 박동이 맥박쳤다. 문수일이 당비서에게 회로도를 설명하였다. 이쪽 동무가 그의 설명을 보충하기도 하고 저쪽에 앉은 동무가 반박하기도 했다. 토론이 맹렬하게 벌어졌다.

바로 이때 우에만 작업복을 펼친 허명찬이가 슬그머니 들어와다가 그만에야 딱 굳어지고말았다.

초급당비서를 둘러싸고 앉아 이렇듯 맹렬한 논쟁과 연구를 하는줄은 몰랐던것이다.

초급당비서와 마주앉았던 청년이 미륵처럼 우뚝 서있는 허명찬을 알아보고 희죽 웃었다.

《비서동지, 과장동지가 왔습니다.》

그때에야 초급당비서도 얼굴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벌써 검댕이가 묻어있었다.

《아 과장동부, 마침 잘 왔습니다.》

초급당비서는 박속같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데 허명찬은 눈을 습벅이며 비명처럼 격한 목소리를 내었다.

《비서동지!》

허명찬은 박순호를 처음으로 《동지》라고 부르며 두손을 내밀었다. 지금 그의 가슴은 터질것만 같은 충격속에 파묻혔다. 그는 풀썩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초급당비서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과장동무!》

《비서동지!》

허명찬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돌렸다. 모였던 사람들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과장동무.》

초급당비서도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들었다.

그는 무엇때문에 기술과장이 자기를 전과 달리 부르는가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자기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써 그에게 보여주었기때문인것이다.

(당일군은 말로써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도 사람들도 앞으로 전진할것이다.)

이때 저쪽에서 웬 너자 둘이 무엇인가 맞들고 이리로 다가오고있었다.

《가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초급당비서는 그가 영애의 어머니 길녀임을 알아보고 놀랐다. 그옆에 섰던 영애가 인사를 했다.

《아이구, 비서동지군요! 나도 좀 도울가 해서...》

초급당비서는 영애와 그의 어머니를 번갈아보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영애는 얼굴이 고추빛이 되여 자기 어머니의 등뒤로 숨어버렸다.

《허허, 그렇게 됐군. 과장동무! 나는 문기사를 총각으로 늙힐가봐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하하하... 영애동무가 총각을 고를줄 안단말입니다.》

이 말에 길녀의 등뒤에 숨었던 영애가 총알같이 밖으로 달아났다.

《흐하하...》

《비서동지! 빨리 연구를 성공시키고 떡이나 먹읍시다.》

길녀도 얼굴에 잔주름을 쭉 폈다.

《그러면 당장 레장감을 구해야겠는걸.》

《비서동지, 레장감은 내가 구하겠습니다.》

《과장동무가요?》

《그럼 됐구만 하하하...》

모였던 사람들이 저저마다 한마디씩 씨까스르는 바람에 작업장안은 웃음으로 가득찼다.

《비서동지!》

허명찬은 초급당비서를 불렀다. 그는 이 한마디 부름으로 지금까지 못하였던 수만마디의 말을 대신하려는듯 더 말을 못하고 서있었다.

초급당비서는 허명찬의 손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뜨겁게 잡아주었다.

세대를 이어

신용선

불박은 방안에 두사람이 마주앉았다.
 구레나룻수염조차 희끗희끗한 로인과 아직도
 얼굴에 애티가 가시여지지 않은 젊은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였다.
 로인은 담배물부리를 입에 물고 창박을 바라보
 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고 손자 철혁은 찌프린 얼
 굴로 덤덤히 앉아있다.
 방안엔 침묵이 흐르고있다.
 로인의 무릎앞 재털이에는 콩초가 수북이 쌓였
 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밤도
 깊었는데 이젠 주무세요. 벌치 않은걸 가지고
 ...》
 갑자기 로인의 양미간은 무섭게 찡그려졌다.
 그 눈길은 철혁의 말허리를 뭉청 동강냈다.
 방안에는 다시 침묵...
 침묵은 두사람의 마음속을 아프게 오래동안 누
 버갔다.
 할아버지는 담배만 련속 빨았다.
 《시라소니같은 자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퍼그나 낮았다.
 하지만 숨결은 높았다.
 눈곱이에 잔주름이 물킨 그의 눈길은 먹물처럼
 캄캄한 창박을 쏘아보고있었다.
 《작업복이나 입고 망치나 쥐었다구, 그리고 제
 가 노동자라고 말한다구 해서 다 노동자로 되는
 것은 아니야, 진짜배기 노동자는 그가 만들고 수
 리한 기계들이 말해줘...
 내 잘못이 더 크다만... 작업반의 좌상이라는
 내가...》
 할아버지는 뒤말을 더 잊지 않았다.
 철혁은 낮에 있었던 일로 하여 입술을 깨물었
 다.

 철혁이네 작업반에선 월말계획을 위한 마지막
 양수기조립을 다그치고있었다.
 오늘로 그들은 월말계획을 닷새나 앞당겨수행
 하게 되는것이다.
 긴장한 전투의 나날이었다.
 며칠새 철혁의 두눈은 벌겋게 충혈졌고 불긋하
 던 얼굴빛도 혈끔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견습공생활을 마친 철혁이가 처
 음으로 참가한 전투였던것이다.
 언젠가 할아버지는 출근길에서 이번 전투가 로
 동자 《입학시험》과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일을
 잘하라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로동자 《입학시험》, 철혁은 내내 입속으로 할
 아버지의 이 말을 곱씹으면서 일하였다.
 그리하여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마음속탕개를 한
 고래씩 더 조이며 마지막 일손을 다그치고있을
 때 도장공 영순이가 철혁이한테 달려와 고무공처
 량 쿵쿵 뛰는것이였다.
 《철혁동무, 큰일났어요!》
 《...?!》
 영순은 숨가빠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완성된 양수기에 〈불합격〉이라
 고 써놔어요..》
 《뭐?! 〈불합격〉?!》
 철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나사틀개를 전
 손등이 떨렸다.
 《네-빨리요...》
 처너는 앞가슴에 깊은 숨을 담으며 철혁의 팔
 소매를 끌었다.
 처너의 뒤를 따라 달리던 철혁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양수기동체에 백목글씨로 진하게 새겨진 《불
 합격》이라는 세 글자가 강한 빛처럼 두눈을 아
 프게 찔렀기때문이었다.
 꼭 《불합격》통지서를 받아온 수험생의 심정
 이였다.
 백목《세례》를 입은 양수기는 5대나 되였다.
 철혁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옮겨짚으며 할아버
 지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는 엄엄한 눈길로 양수기들을 바라보며 담배
 를 세판게 피우고있었다.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철혁은 될수록이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몰라서 물어...?》
 《.....》
 할아버지의 굵은 눈썹이 푸들쩍 휘다 꺾-감긴
 다. 그 기상은 표표하였다.
 철혁은 불안스러운 눈길로 《불합격》양수기
 들을 살펴보았다.
 흠잡을데없는 양수기들이였다. 도장공처너들
 의 간진 일숨씨에도 티한점 없었다.
 귀청을 따갑게 하던 공장의 그 모든 소음들도
 똑-그친듯싶은 팽팽한 분위기였다.
 이윽고 할아버지는 스르르 감았던 눈을 치뜨며
 손에 쥐고있던 노기스를 말없이 내밀었다.
 철혁의 눈길은 초점을 잃기 시작하였다.
 《〈전동기축메달〉을 다시 검사해봐!》

씩씩한 목소리는 철혁의 머리를 호되게 때렸다. 가슴이 섬찝하였다.

세밀한 연마가공부분에 대한 철혁이네들의 《날립식》 일습씨를 할아버지는 《귀신》처럼 알맞았던 것이다.

철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서 …!!》

추상같은 목청과 함께 노기스가 다시 철혁의 눈앞으로 총창처럼 쪽-뻗쳐나온다.

철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흠칠 떨었다.

노기스로서는 정확하다. 할아버지는 지금 랑심으로 재여보라는 엄한 추궁이다.

《첫발자국부터 더러운 자식-네같은 자식들때문에 농장벌 나어진 운전공처녀애들이 울고있어…》

할아버지는 목이 걸리어 휘파람같은 소리를 냈다.

꼭 수그린 철혁의 얼굴빛이 피빛으로 붉어지더니 점차 그 빛이 파랗게졌다.

그리하여 철혁은 후줄근한 걸음으로 퇴근길에 올랐다.

…밤은 깊어가고 눈은 끊임없이 내리고있다.

창턱에 쌓이는 눈은 창유리에 미끄러지며 무엇인가 속삭이고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주무세요…그리고 저…》

철혁은 뒤말을 맺지 못하며 아까부터 주머니안에서 만지작거리던 파아란 표지의 료양권을 할아버지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료양권을 보자 할아버지의 눈길은 피로운 빛을 담고 다시 창쪽으로 향해졌다.

어제 철혁이는 병원기술부원장한테 《호출》되어갔었다.

부원장은 할아버지에 대한 의사로서의 안타까움을 한참 력설하다가 며칠전에 담당녀의사가 가지고왔던 료양권을 철혁에게 주면서 할아버지를 설복해내라고 몇번이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철혁의 초조한 눈길은 할아버지 얼굴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흰수염발이 덮인 할아버지의 얼굴 전체에 깊은 주름발들이 그물코처럼 뒤얹혔다. 며칠새에 눈확이 꼭 꺼지고 관골도 더욱 두드러진듯하였다.

마음속엔 언제까지나 어린 자기를 목마태우고 저녁 마을언덕길을 씨엥-씨엥 오르던 할아버지의 건장한 모습이 변함없건만 지금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너무도 수척하다.

공장과 함께 늙어온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생활의 모든것들은 공장이 자라온 매돌기 년륜마다에 속속들이 새겨져있다.

할아버지는 그 년륜들을 키우기 위하여 땀은 물론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아낌없이 묵묵히 바쳤다.

실로 할아버지 생활의 전부는 공장이었다.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 세월은 할아버지의 안경알을 두툼하게 만들었고 이제 양수기작업반 좌상으로 되게 하였다.

…밤은 바닥도 없이 깊어가고 사막마을 전등불 빛들은 껌뻑이면서 하나-둘 어둑속에 녹아들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소리만 방안의 고요를 가늘게 흔들어줄뿐 할아버지의 굳어진 모습엔 변함이 없었다.

폐종이 12시를 알릴 준비를 하는듯 시계태엽이 풀리는 유난스런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입에선 전혀 뜻밖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휴가를 받자.》

《휴가라니요?》

《너도 휴가를 받아라.》

휴가를 받으라는 《명령》에 철혁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매해 할아버지는 눈석이를 앞둔 이맘때면 휴가를 받아 길을 떠난다. 집을 떠날 때면 그저 친척집 나들이를 간다고 하였다.

하지만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그토록 정성들여 깨끗하게 손질하였던 옷은 기름과 쇠녹으로 얼룩지고 넓어지는 것이었다.

방학때면 철혁은 자기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한 두번만 떼질을 하지 않았다.

그때면 할아버지는 《먼길에 넌 아직 어려…》 하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집을 나셨다.

《할아버진 휴가보다 료양을 떠나셔야 해요. 그리고 나야 지금 어떻게 휴가를…》

각별히 힘주어 하는 간절한 어조에는 짜증비슷한것도 섞여있었다.

《떠나야 해… 지배인한테서랑 다 승인을 받았어…》

허영게 서리얇은 턱수염을 끄적끄적한 손으로 내려쓸며 하는 할아버지의 대답은 드뭇없었다.

철혁의 심장은 눈석이때 얼음구멍처럼 쿵-뚫리는듯하였다.

× ×

달리는 차창가에 두사람이 마주앉았다.

할아버지와 손자였다.

창밖은 온통 새하얀 눈천지였다.

멀리 우중충한 산발들과 인적이 없는 전야에도 눈은 내리고있었다.

평평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철혁이 지금 바라보고있는 공장, 뒤언덕 두그루의 참나무가지에도 내려쌓였다. 잎떨어진 가지들은 두텁게 쌓이는 눈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고개처럼 아래로 축 늘어졌다.

게다가 바람까지 터져 하늘과 땅은 눈보라장막으로 짙은 안개속처럼 흐릿하였다.

하지만 절기는 어쩔수 없는것이어서 차창을 통해 습습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완연한 그런 눈, 그런 바람, 그런 날씨였다.

대지는 겨울과 봄이 이어지는 계절의 한계점에 서 비정상히 들끓고있었다.

렬차는 빠른 속도로 달렸다.

할아버지는 생당썩 물부리를 빨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지금 철혁은 죄지은 사람의 심정이였다.

동무들은 밤낮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있는 때에 휴가를 떠나다니...

혁신자로 떠받들어주며 영예게시판에 커다란 사진까지 내붙여주던 동무들에 대한 배반처럼 느껴졌다. 수치스러웠다.

마음내키는대로만 할수 있다면 달리는 렬차에서라도 뛰어내리고싶었다.

렬차는 눈속에 묻힌 무연한 벌판을 꺾지르면서 달렸다.

이제 몇정거장만 더 달리면 고모네 집에 도착하게 된다. 몇년만에 찾아가는 고모네 집이다.

저 멀리 하얀점으로 보이던 벌마을 작은 간이역이 점점 커지고 차츰 가까와왔다.

할아버지는 피우던 담배불을 비벼끄며 철혁에게 내릴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였다.

철혁은 두눈이 둥그래지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고모네 집엔...아직...?》

《두말 말고 내릴 차비나 해라!》

의례히 말허리를 꺾어버리는 명령조였다.

철혁은 의혹에 찬 눈을 습벅이며 말없이 당반우에 배낭을 끄집어내리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보잘것없이 후줄근한 할아버지의 작은 배낭은 예상외로 무거웠다.

그런데다가 쇠붙이같은것이 팔꿈치에 마쳐와 두눈을 크게 뜨며 얼굴을 찌프렸다.

끌려오는 걸음이어서 할아버지의 배낭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했던것이다.

하지만 고모네 집에 보내는 할머니의 다심한 정성이 뼈곡이 찬 배부른 자기의 배낭은 덩실한 크기에 비해 가벼웠다.

길손이라곤 대여섯명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간이역에서 그들은 내렸다.

함께 내린 길손들은 어깨죽지를 잔뜩 일궈세우며 나들문쪽으로 바삐 걸어갔다.

철혁은 배낭을 추스리며 할아버지 뒤를 따라 걸었다.

눈은 좁체로 멎을줄 몰랐다. 바람도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할아버지는 뿌영게 은장막을 드리운 눈보라속에 탁 트인 눈밭들을 흥겹게 바라보며 씨엥-씨엥 걸었다.

그의 등뒤에선 소년단 애들것과 그 크기가 절반 차이 없는 배낭이 덜렁덜렁 방아를 찢고있었다.

할아버지는 한참씩 그렇게 걷다가는 무춤 걸음을 멈추며 혁-혁 모두숨을 톹는다. 때론 걸음발이 휘청거리고 주먹으로 굽은 등허리를 쿵-쿵 두드린다.

그 숨소리와 굽은 등허리가 어느때없이 철혁의 눈시울을 뜨겁게 지진다.

일요일 휴식때면 어린 자기를 잔등우에 올려놓고 해종일 방안을 기여다니며 말놀이를 하여도 끄떡없던 할아버지의 등허리였다.

철혁은 가슴속에서 쇠잔한 할아버지에 대한 서글픔이 끓어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철혁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아름다리 거목이였다. 그것은 깨끗한 로동계급의 량심에 뿌리를 박은 마음속의 아름다리나무였다.

철혁은 미풍에 설레이는 거목의 무성한 푸른 잎새들의 속삭임속에서 웃으며 잠들었고 봄과 함께 새움이 트는 아지우에서 즐거운 새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영원히 푸르싱싱하기만 바랬고 또 믿어의심치 않던 그 거목이 이제 늙었던것이다.

철혁은 얼굴에 수심겨운 그늘을 지으며 할아버지의 배낭을 붙잡았다.

《주세요. 내가 지고 가겠어요.》

갈앉은 목소리는 웬 영문인지 굽지 못하였다.

《내 걱정은 말고 빨리 따라오기나 해...》

할아버지 걸음은 또다시 활기에 넘친다.

매생이같은 할아버지의 숨신발자국은 그 누구의 발자취도 찾아볼수 없는 눈덮인 눈밭 한가운 데로 움푹-움푹 깊숙이 찍혀나간다.

《할아버지, 어디로 가나요? ...》

아까부터 묻고싶었던 밀이였다.

《덜렁한 사람이 실없이야 겠겠니!》

느릿하면서도 똑한 대답이였다.

이쯤하면 두번다시 물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철혁은 할아버지가 찍어놓은 커다란 발자국우에 자신의 작은 운동화 발자국을 덧놓으면서 말없이 걸었다.

하늘과 땅은 눈으로 맞붙어버렸다.

그 눈구름속으로 자그마한 집 한채가 눈앞에 어슴푸레 안겨왔다.

덧쌓인 눈으로 하여 엄청나게 굽어진 배관이 집앞 물동막이에 굽어든것을 보니 양수장인듯싶었다.

할아버지는 지금 그 집을 향하여 눈보라길을 헤치고있었던것이다.

철혁의 의혹은 시간을 따라 더욱 짙어만 갔다.

하면서도 눈보라 장막처럼 도무지 분간할수 없는 머리속으로 번개처럼 달리는 생각은 운전공처

너들이 울고있다고 하던 할아버지의 추상갈던 목소리였다.

철혁의 짐작대로 할아버지는 양수장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스레트지붕의 자그마한 양수장은 눈속에 파묻혀있었다.

얼핏보기엔 집이라기보다 커다란 눈무지를 방불케 하였다.

빠끔히 눈을 뜬 유리창에 하얀 성애가 불린 출입문에는 주먹같은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이 애가 어델 갔나?》

할아버지는 개털모자를 벗어서 가슴팍에 달라붙은 눈을 탁탁 털며 중얼거렸다.

실눈 지은 그의 눈길은 그 어떤 깊은 감회에 잠겨 양수장주변의 모든것들을 바라보았다. 토방우에 세워놓은 너가래를 바로잡아놓기도 하며...

하고는 호주머니를 뒤지며 열쇠묶음을 끄집어내는것이였다.

크고작은것들이 열개이상은 달린 커다란 열쇠묶음이였다.

할아버지는 먼 기억을 불러내는듯 개털모자를 쓴 머리를 끼우뚱거리며 한동안 열쇠를 꼴랐다.

이윽고 굳게 닫졌던 자물쇠가 절걱 열렸다.

할아버지는 출장길에서 돌아온 세대주처럼 스스로없이 문을 열었다. 그것은 몹시도 손에 익고 자연스러웠다.

검뻘거리던 철혁의 눈이 크게 떠지며 굳어졌다.

양수장안은 정결하고 깨끗하였다.

새하얀 회벽은 물론 바닥에 색타일까지 붙었다.

운전공의 알뜰하고 간진 일손씨가 첫눈에 안겨왔다. 양수기는 전부 해체되어있었다.

운전공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다가 잠시 자리를 뜬 모양이였다.

할아버지는 돋보기안경을 입김까지 쏘이며 깨끗이 닦아 코등에 걸고는 기계부속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이 지고온 배낭아구리를 헤치고 그속에서 기름때가 묻은 부피두터운 장부책같은 것을 들추어내는것이였다.

그때에야 철혁은 할아버지의 배낭안에 나사를 비롯한 수리도구들과 기계부속품들이 들어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기계부속품들은 파철더미나 폐기된 기계들에서 뜯어내어 기름으로 정성들여 닦은것들이였다.

할아버지는 돋보기너머로 장부책을 한장 두장 뒤지더니 입가에 안도의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음, 정비를 하던중이군...》

철혁은 무엇인가 큰 느낌을 가슴에 받아안으며 할아버지 어깨너머로 장부책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철혁은 높아지는 숨결로 하여 입술을 깨물지 않으면 안되었다.

장부책에는 575번 양수기의 생산년월일과 생산자들의 이름(작업반장인 할아버지 이름은 맨마지막에 적혀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운전공들의 이름과 나이, 간단한 경력과 취미까지 밝혀있었다.

또한 할아버지자신이 직접 수리한 부분과 날자까지 꼼꼼히 기록되어있었다.

말그대로 양수기의 자서전이였다.

활달하진 못해도 투박한 글씨들이 살아움직이는듯 철혁의 심장벽을 때렸다.

장부책에서 눈길을 땀 할아버지는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기계정비에 달라붙었다.

필요한 공구들과 부속품들은 배낭안에서 어김없이 나왔다.

뿌리깊이 박힌 말뚝처럼 움직일줄 모르던 철혁은 그대로 서있기가 멋적어서 할아버지의 일손을 도왔다.

하면서도 《운전공처너들이 울고있어...》 하며 엄한 호령을 내리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리해할수 없었던 그것이 어렵듯이 느껴지는듯하였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일손만 놀렸다.

침묵은 문밖에서 신발의 눈을 터는 인기척에 의하여 깨여졌다.

돋보기안경과 심각한 눈길이 동시에 출입문쪽으로 쏠리는 순간 문이 방시 열렸다. 때를 같이하여 몸매 다부진 처녀가 양수장문턱을 넘다가 무춤 멈추어섰다.

얼굴을 감싸고있던 성에투성인 털수건을 턱아래로 당겨놓던 처녀의 동자 큰 눈이 새별처럼 빛났다.

그의 함께 그의 도톰한 입술에선 《아-니?》 하고 처녀다운 부르짖음이 튀겨나왔다.

《할아버지-!!》

처녀는 무작정 할아버지의 기름묻은 손을 꼭 부여잡으며 두발을 쿵쿵 뛰었다.

《허-허-그동안 앓지나 앓았니?》

《앓기는요,》

처녀는 쌍가풀진 눈을 곱게 흘기며 방긋 웃었다.

말쑥한 코날과 가름한 두볼은 빨갭게 상기되어 아름다운 처녀의 첫인상을 몹시도 진하게 하여주었다.

《할아버지,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셨지요?》

《응-읽어보았다.》

《야-참-그런데 왜 이 눈길을 헤치면서 왔어요. 양수기는 아무탈도 없어요.》

얼음이 풀리기전에 정비를 해놓느라고 해체하였어요.》

처녀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에 젖어 가늘게 떨리기까지 하였다.

《허-이렇게 함께 하면 오죽 좋으나? 덕동의 금실이는 시집을 가서 메주덩이같은 아들까지 낳았다면서...》

《호-호..》

은희의 얼굴은 홍당무빛으로 물들어졌다.

《허-허-세월이란 참 빠르단말이야.》

할아버지의 눈지방에 웃음이 가득 내배여 흐물거렸다.

낮설은 처녀와 할아버지의 상봉은 철혁이를 그저 어안이 병병하게 만들었다.

왜서인지 철혁은 자신의 존재가 몹시 무색해지며 몸가짐조차 부자연스러워짐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전동기부분을 해체하는동안 처녀는 도람통허리를 절반 잘라 만든 난로에 불을 지폈다.

마른 장작불길은 순식간에 확- 피여올랐다.

난로는 별경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우에 처녀는 한되 남짓한 밤알을 올려놓고 구우며 철혁에게 말을 건넸다.

《동무도 공장에서 왔어요...?》

철혁은 대답할 말을 고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저 굳기침만 하였다.

밤알들이 익어가면서 튀는 소리가 양수장안에 그 어떤 류다른 정서를 돋구어주었다.

처녀는 초면인 청년을 이상야릇한 눈길로 쳐다보다 《밤을 까세요.》하며 방긋 웃었다.

철혁은 난로곁으로 다가서지 못했다.

《빨리 오세요.》

처녀는 재촉하였다. 그리고는 익은 밤알들을 손수건에 싸가지고는 할아버지한테 뛰어갔다.

《할아버지 잡쉴보세요!》

《이건 또 무슨 밤이나? 매번 이런걸...》

《가을에 뒤산에서 주었어요.》

《원 애두 그게 얼마나 됐기에 아직까지...》

할아버지는 잠시 일손을 놓으며 대견한 눈길로 처녀를 오래동안 쳐다보았다.

《적잖게 주었어요. 할아버지 손자한테도 이번엔 푼푼히 보내려고...》

《허허-우리 철혁의 밤까지 주었다단말이지?》

처녀의 가룩한 심정으로 하여 할아버지의 가슴은 뿌듯하였다.

재작년에 찾아왔을 때 처녀가 권하는 밤알을 손자녀석한테 갖다주겠다고 호주머니에 몇알 넣었더니 그것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철혁은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재작년 이맘때에 《휴가》길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쥐여주는 몇줌 되는 밤알을 받으며 《내가 뭐 어린애줄 아세요.》하며 쑥스럽게 여기던 일이 눈에 삼삼히 밝혀왔다.

오늘 이때까지 할아버지품에서 자라왔지만 자기는 처녀처럼 저렇게 살뜰한 정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처녀는 철혁이 자기를 어린애줄 아는 모양이다.

그렇다. 철혁이자신은 어린애였다.

할아버지는 하루빨리 어른으로 자랄것을 바라면서 아낌없이 모든것을 바쳤건만 철혁은 자랄줄 모르는 철부지였으며 어린애였던것이다.

난로우에선 밤알들이 련속적으로 튀기 시작하였다.

처녀는 다시 난로곁으로 뛰어와 밤알들을 주어 담았다.

《아니- 동문 왜 그렇게 서만 있어요? 어서 잡수세요.》

처녀는 살눈섭을 깜빡이며 철혁의 손에 밤알을 쥐여주었다.

《예, 먹지요.》

철혁은 뜨거운 밤알들을 줌안에서 굴리며 처녀에게 양수장안의 뒤구석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조종히 할말이 있다는것이다.

처녀는 리해가 안된다는듯 잠시 주춤거리다 철혁의 뒤를 따라오며 또 물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왔어요?》

철혁은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여보였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잘 아세요?》

매번 처녀한테 먼저 말꼭지를 떼우는바람에 철혁의 립장은 정말 난처하였다.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처녀앞에서 잘 안다고도 또 모른다고도 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또다시 굳기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동문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오?》

《왜 모르겠어요. 〈양수기 할아버지〉를 운전공이 모를수 있나요?》

처녀는 눈을 곱게 흘리며 얼굴에 웃음을 띠웠다. 진달래빛 두볼에 알릴듯말듯한 보조개가 움푹 패였다.

《양수기 할아버지... 허...》

철혁은 웃었다. 그 웃음은 그자신도 딱히 이를 할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다.

《왜? 웃어요. 동문...?》

처녀는 오돌찬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또다시 방긋 웃었다.

그리고는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20년동안 양수기를 만들었고 또 수리하였어요.》

뿐만아니라 덕동과 우리 양수장엔 2년에 한번 씩은 꼭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운전공들은 양수기 작용상태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제때에 할아버지한테 편지로 보고해야 된답니다.》

철혁의 얼굴은 숯불처럼 별경게 달아올랐다. 심장은 쿵쿵-뛰었다.

한동안 말없이 혼자힘으로 기계를 정비하던 할아버지가 철혁이를 찾았다.

《애 철혁아, 이걸 좀 반들어주렴...》

《네-》

철혁의 대답소리는 떨렸다.

어째서인지 할아버지가 반들라고 하는 전동기 뚜껑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그들이 힘을 합쳐 양수기 정비를 끝냈을 때는 벌써 한낮이 켜 기울었다.

할아버지는 기름묻은 손을 씻으면서 양수기의 전원스위치를 넣었다.

양수기의 고르로운 음향은 선물처럼 흘렀다.

할아버지 얼굴에 철혁이가 여직껏 보지 못한 만족스런 미소가 어리었다.

귀여운 자식의 잠든 숨결소리를 듣는듯 그렇게 흐뭇하고 평온한 미소였다.

하면서 은희에게 기계운전시 지켜야 할 몇가지 주의의를 상기시켜주었다.

권위있는 교수의 강의라도 받는듯 처녀는 자그마한 수첩속에서 가끔 할아버지의 말마디들을 또 박포박 적어넣는다.

《이 양수기는 벌써 오래전에 만들었어. 농촌수리화를 하루빨리 완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언 세멘트바닥에서 도면을 그리고 망치로 철판을 자르고 맞추면서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다 몰랐다. 내 가슴에 먼지가 들어앉은줄을말이다...》

마음속 괴로움때문인지 할아버지는 이마전에 발고랑같은 주름발을 돋구며 잠시동안 멈추었던 말에 발을 달았다.

《어느 봄날 일요일에 우리들은 모내기틀을 도우러 벌에 나갔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장 모를 쫓아야 할 논에 물을 대지 못해 양수기운전공처녀가 울고있다는것이 아니겠니... 나는 양수장으로 찾아갔다.

정말 처녀는 울고있었다. 나 어린 처녀였다.

양수기를 보는 순간 나는 저도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 내가 만든 양수기였어-

축메달부분에 대한 연마를 잘하지 못해 심한 마찰로 전동기가 못쓰게 되었다구나.

그날밤, 나는 뜬눈으로 밤했다,

당원증우에, 그리고 로동자의 심장우에 손을 얹고 입에 한번 대보지도 않던 담배를 온밤 태웠다.

그러면서 엄청난 생산수자나 높은 기술,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로동자들의 충성심 전부가 아니라는것을 깨닫게나마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하였다. 알아보니 그렇게 운전공들의 애를 태우는 양수기가 15대나 되더구나. 그것은 내가 만든 《병신자식》들이었다.

물론 지금 농장벌마다 수리공들이 다 있지만 그것들이 가슴에 맺히고 후벼내여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한다. 발걸음에 앞서 량심이 자꾸만 찾아다니게 한다.》

할아버지는 나무등결같이 썩썩한 손으로 양수기동체를 어루만졌다.

철혁은 고개를 깊이 떨구었다.

낫설은 처녀앞에 아니라면 일생에 두번다시 되풀이하지 않았을, 어찌보면 너무도 범상한 그 《오점》을 심장속에서 씻어버리지 못해 수백수천리 눈길을 헤쳤을 할아버지앞에 무릎으로 기여가 잘못을 빌고싶었다.

눈보라길과 비바람 진창길, 그 걸음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로동계급의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 량심을 다져넣으면서 걷고걸었을 할아버지...

《아- 우리 할아버지는 바로 이런 할아버지였구나!》 철혁은 이렇게 목청껏 소리치고싶었다...

어느덧 굼뜬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할아버지는 철혁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알리고는 자신은 또다시 양수기주위를 천천히 거닐었다.

양수기는 여전히 기운차게 돌아갔다.

배낭안에 수리도구들을 주섬주섬 주어넣으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속 파동을 읽는 철혁의 가슴속엔 뜨거운것이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은희는 할아버지의 팔소매를 꼭 틀어잡고 한사코 만류하였다.

《할아버지,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고 래일 떠나세요. 네 할아버지...》

《허-허 은희야, 우리는 바쁜 걸음이라 오늘 금실이네 양수장까지 가 봐야 한다.》

《할아버지, 그 눈길에 어떻게 10리도 넘는 덕동까지 간다고 그러세요... 네?》

안타까운 나머지 처녀의 눈가장자리엔 맑은것이 구슬처럼 동글동글 맺힌다.

《10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길이라도 가야 한다.》

할아버지는 마디가 툭-툭 불거진 손으로 은희의 등을 몇번이고 쓰다듬어주며 《이젠 편지랑 저 애한테 하여라.》 하고는 철혁이를 가리켰다.

그러면서 끝내 출입문을 열었다.

그토록 사납던 눈보라도 멎었다. 대기는 잠풍하였다.

배꽃같이 희디흰 함박눈송이들은 춤추듯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저녁해는 한발이나 서쪽으로 기울었다.

눈부신 설경우에 석양빛 노을이 고요히 물들고있었다.

두 배낭을 하나로 합쳐 등에 진 철혁이가 앞장서 눈길을 헤쳤다. 처녀가 굳이 넣어준 밤알들도 철혁의 배낭안에 들어있었다.

비자루로 쓸어놓은듯 리한점 없이 깨끗하고 정갈한 솜눈우에 철혁의 운동화자국이 찍힌다. 할아버지의 솜신발자국은 그 뒤를 따른다.

하나로 합쳐지는 두사람의 발자국은 엄청나게 컸다. 발자국과 발자국은 끝없이 이어지며 찍혔다.

은희도 그들과 함께 걸었다. 할아버지곁에 나란히 서서 걸으며 말 한마디 없다.

몇차례 만류하였으나 끝내 마을 동구밖까지 따라나온 처녀는 그들이 덕동령마루에 올랐을 때까지 오래동안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서도 처녀는 눈언저리를 장갑 낀 손끝으로 꼭꼭 누른다.

이젠 할아버지의 굽은 등허리엔 배낭이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찾아올 때보다 더욱 무겁게 옮겨졌다. 눈보라도 몇몇건만...

철혁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였다.

《호랑이》령감은 손자의 그 《보살핌》을 거절하지 않았다.

흰 양털수건을 목에 걸친 은희의 동그란 얼굴 룬팍은 점차 희미해졌다.

할아버지는 어서 빨리 들어가라고 자꾸만 손을 쥔다.

하지만 철혁은 그저 고개만 끄덕여보였다.

× ×

달리는 열차의 창가에 두사람이 마주앉았다.

10여일 휴가기간에 20여곳의 양수장을 돌아보고 집으로 가는 할아버지와 철혁이었다.

고모네 집에선 단 하루밤 묵었다.

창밖은 며칠새에 완연한 봄빛이었다.

양지쪽 철쭉은 검은빛을 드러내고 전야에선 거름 실은 트랙터들이 분주히 달렸다.

그러나 멀리 계곡에는 아직도 눈이 두터웠다.

차창가론 한가닥의 밝고 따사로운 빛이 흘러들었다.

그동안 철혁의 옷과 신발은 볼품없이 어지러워졌다. 어찌보면 얼굴도 수척해진듯하였다.

하지만 심장은 참신하고 순결한 양양으로 하여 세차게 고동쳤다.

그들이 돌아본 양수기들은 모두 정상이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지금 창밖 멀리 수평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설피게 쪼프린 실눈가엔 그윽하고 따듯한 빛이 가득 담겨져 고요히 불타고있었다.

철길이음썸을 지나는 열차바퀴의 덜컹소리가 할아버지를 깊은 생각에서 깨웠다.

할아버지는 무겁게 몸을 일으키며 당반우의 배낭을 내리우더니 그속에서 레의 그 장부책을 꺼집어냈다.

그리고는 무릎우에 올려놓고 한장-두장 마지막 폐지까지...마지막장에서 또다시 한장-두장... 첫장까지 그렇게 오래동안 펼쳐보며 어루만졌다.

호주머니안의 열쇠묶음도 역시 마디들이 나무옹이처럼 불거진 손안에 움켜쥐고있었다.

철혁은 그 어떤 격동적인 사변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처럼 자신도모르게 온몸이 굳어졌다.

《이젠 네가 말아라... 너의 종조할아버지는 나에게 가문의 족보와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채를 넘겨주었지만 내가 너에게 물려줄것은 이 장부책과 열쇠이다.

그렇지만 너는 이 장부책에 나처럼 깨끗치 못한 노동자의 량심을 적어넣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휴가〉길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라...》

철혁은 손을 선뜻 내밀지 못했다.

《어서-!》

장부책을 철혁의 가슴에 안겨주며 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투박하였다. 하지만 열쇠묶음만은 그대로 잠안에 움켜쥐고 오래동안 지켜보다 다시 자기 호주머니안에 집어넣는것이였다.

그 순간 철혁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그리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 고마와요.》 하고는 머리를 꼭 수그렸다.

단순한 혈육의 사랑에는 비길수없이 엄청나게 큰 감정이 밀물처럼 가슴속에 흘러넘쳐 호흡조차 힘들었다. 철혁은 눈물이 글썽한 눈길을 들어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열차는 공장마을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높이 솟은 공장굴뚝들과 채광장에 비낀 주강직장 쇠물빛보다 유독 눈에 띄우는것은 공장뒤언덕에 서있는 두그루의 참나무였다.

밀줄기가 세아름이나 되게 굵은 거목의 참나무와 그 씨앗에서 움터나고 자란 어린 참나무였다.

가지들은 두텁게 쌓였던 눈을 털어버리고 자주색노을이 물든 봄하늘을 향해 힘있게 뻗었다.

검푸른 거목의 참나무에 비해 연두색빛을 띤 어린 참나무의 줄기는 아직은 엄청나게 연약하였다.

그러나 미구에는 더욱 굵은 줄기와 풍성한 가지, 그리고 높이 자랄것이다.

튼튼하고 역센 생명력을 지닌 씨앗을 여물리면서...

왜냐하면 오랜 세월 늙은 참나무의 락엽으로 비옥해진 땅의 진액과 또한 밝은 해빛과 맑은 대기의 자양이 나날이 충만되어가기때문에...

...두그루의 참나무는 그렇게 숲을 이루며 무성하리라-

아버지와 아들

김경남

기계공장건설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밤과 낮을 이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건설장은 자재와 설비를 요구한다.

이 자재와 설비를 위해 조그마한 임시정거장이 하나 새로 생겨났다. 아직은 본역의 철길대우에 표시되어있지 않은 역이었다.

역이래야 가설건물 한채와 기중기 한대가 서있을뿐이다.

이 역에는 기중기운전공인 아버지와 화물접수원처녀, 견습기간을 마치고 기중기운전공으로 새로 배치를 받은 아들, 이렇게 세사람이 일하고있다.

새해를 하루 앞둔 아침이었다.

방금 도착한 화물열차의 무개화차우에 두사람이 말없이 마주 서있다. 아버지 조천율과 아들 영수였다. 아들은 키가 우뚝하고 몸집도 우람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가 겨우 닿으리만치 체소했다.

《휘-익.》

매판 바람이 눈가루를 몰아다 화차우에 휘뿌렸다.

이윽고 아들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

아버지는 굳어진 표정으로 역구내에 줄느린히 들어서있는 자동차들을 바라볼뿐 대답이 없다.

《저 기중기루 5톤이나 되는 물건을 어떻게 든다구 자꾸 그래요.》

《……》

《아버진 저 기중기로 일곱톤을 쾡팡 들어메쳤다구 자꾸 그러는데 그건 10년전 일이 아니냐요… 기중기가 이젠 낡았거든요.》

아들은 겁에 한껏 젖어있다. 갑자기 그 우람한 몸집이 한줌만하게 줄어든듯 바람에라도 쉽게 날려갈것만 같다.

《아버지, 다른 기중기를 가져오게 하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애원하다싶이 간청했다.

《……》

아버지는 두눈을 스르르 감아버렸다. 기계공장건설을 적극 돕기 위한 종업원 결기모임때 열여섯서 토론하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불을 뿜는 적의 화점에 뛰어난 리수복영웅처럼, 불이 이글거리는 용광로에 뛰어들어 로를 살려낸 로동계급처럼 공칭능력을 짓부셔버리겠다는 아들이… 그런데 아들은 기중기가 낡았다는것을 고

집하면서 5톤능력의 기중기로 5톤의 집을 들기를 주저하고있다. 결과 속이 다른 아들이었다.

《아버지, 공연히 줄타기를 하지 말자요…》

《뭐라구, 줄타기…》

아버지는 감았던 두눈을 번쩍 뜨며 거칠게 소리쳤다.

《속 다르구 걸 다른 녀석같으니라구.》

아버지는 시꺼먼 눈섭을 곤두세우며 아들을 노려보았다. 두눈에서는 무엇인가를 금방 녹여버릴것 같은 시퍼런 불줄기가 뿜어나왔다.

《난 저 기중기루는 자신이 없어요…》

아들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뽕-뽕-》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무엇인가 재촉하고 보채는듯싶게…

《아버지, 빨리 다른 기중기를 가져오도록 하자요.》

아들은 풀기없이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음-》

아버지의 두툼한 입술사이로 신음소리 비슷한것이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기중기를 불러오자면 하루가 걸린다. 그러면 화물열차가 싣고온 설비들은 이 역에서 하루를 묶게 되고 그 하루때문에 공장건설은 한달뒤로 밀려나게 될것이다.

그렇게 할수 없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량심이 허락치 않는다.

《아버지, 난 이제 가볼래요…》

아들은 뽕소리를 치듯 무개화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

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듯 흠칫 놀라더니 거칠게 소리쳤다.

《서라!》

아들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뒤따라 땅우에 내려선 아버지는 아들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래 네 눈엔 저-자동차들이 보이지 않니?》

아버지는 갈구리같은 손가락으로 역안에 들어선 자동차를 가리켰다.

《그러문 아버지 어떻게 하란거야요.》

아들은 씨근거리며 반발했다.

《……》

《참, 아버지두… 저 기중긴 낡았어요.》

《낯은건 저 기중기가 아니라 벌써 네 머리가 낯아빠졌단말이다.》

모욕감을 느낀 아들의 얼굴은 불어오르며 시뻘겋게 변하였다. 그는 도전적으로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기중기가 낯았는가, 내 머리가 낯았는가 어디 보라요.》

아들은 거칠게 한마디 내뱉고는 바람처럼 기중기로 뛰어올라갔다. 운전실문이 세차게 열렸다 가 광-닫졌다.

기중기는 성난것처럼 레우에서 우르릉거리고 길다란 팔은 투정질하듯 허공을 휘저었다.

가설건물안에서 뛰어나왔던 화물접수원처녀는 흠칫 놀라며 멈춰섰다. 기중기운전실창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며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여- 영순이, 빨리 권양고리를 걸어.》

처녀는 채찍에라도 후려맞은듯 놀라서 무개화차우로 뛰어올랐다.

《가만!》

아버지는 소리치고 무개화차우로 날쌔게 뛰어올라갔다. 그는 처녀가 짐에 꿰어놓은 권양고리를 다시 깊숙이 물려도 놓고 쇠바줄을 흔들어도 하도 하며 꺾꺾하게 훑어보았다. 이러는 아버지를 아들은 《체, 겁은 아버지가 더 내면서.》 하는 심술궂은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한참만에 아버지는 허리를 쭉 펴며 손을 뻗 휘저었다.

《자, 이젠 들어-》

기중기는 더욱더 도전적으로 우르릉거렸다.

자동차운전실문을 열어젖히고 운전사들은 긴장한 눈으로 기중기를 바라보고있다.

아버지는 땅우에서 굳어진듯 서있다. 다만 눈빛만이 이글거릴뿐이었다.

기중기는 더욱더 새된 소리를 내질렀다. 짐을 물고 늘어진 쇠바줄은 금시 끊어질것 같이 툭툭-소리를 내며 팽팽해지고 기중기팔은 꺾어질것 같이 휘청거렸다.

《아-아...》

누군가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부르짖음이었다.

《기중기팔을 더 높이 세워라.》

갑자기 아버지는 기중기운전실을 향해 고함을 쳤다.

기중기는 달아오른 기름냄새를 확확 풍기며 악을 써서 무개화차우의 짐을 들기 시작했다.

《더 당겨!》

아버지는 또 소리쳤다. 온 역구내는 가슴을 서늘게 하는 팽팽한 진장이 어렸다.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터질듯싶게...

기중기는 갑자기 넘어질듯이 기우뚱거리더니 들었던 짐을 무개화차에 《광-》하고 떨어버렸다.

《앗! -》

그 순간 처녀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기중기의 몸통이에서는 연기가 물물 피어나며 기름타는 역한 냄새가 뿔어나왔다.

기중기운전실창문이 벌컥 열렸다. 얼굴이 땀으로 젖은 아들의 얼굴이 창밖으로 나타났다.

《시라소니같은자식!》

부지불식간에 아버지의 입에서는 짧고 날카로운 부르짖음소리가 크지 않게 새어나왔다.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은 허공에서 맞부딪쳤다.

아들은 말없는 시선으로 애원한다.

(보라요, 아버지, 기중기가 낯지 않았나요.)

아버지는 아들을 후려칠것 같이 두주먹을 으르치게 틀어쥐고 목대줄이 사납게 일어났다.

(변명하지 말아, 차라리 난 겁쟁이니까 물려나겠대구 솔직하게 말하는게 더 듣기가 낫겠다.)

침묵... 괴로운 침묵이 길게 흘러갔다.

아들은 풀이 죽은 시선으로 또 애원한다.

(아버지, 땅두 두드려보구 내짚으란대구 공연히 남 좋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치면 큰 야단이야요.)

아버지의 얼굴은 괴롭게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의 먹살이라도 틀어쥐고 고래고래 소리치고싶었가.

(이 못난자식아, 리수복영웅은 심장이 터진다는걸 몰라서 적의 화점에 뛰어들었는데 아느냐.)

(참, 아버지두, 내가 그런 영웅감이라문 이런 보잘것 없는데서 기중기나 물구 있겠나요.)

아들을 뚫어지게 올려다보고있던 아버지는 갑자기 고개를 푹 떨구었다.

《시라소니같은너석.》

아버지의 입에서는 가슴을 저미는듯한 침통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드디어 여직껏 보지 못했던 아들을 발견한것이다.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만 숨쉴줄밖에 모르는 그런 작고 싸늘한 심장을 가진 아들을...

(아! 아들 하나 있는걸 시라소닐 만들었구나.)

아버지의 가슴은 찢기는듯 아파났다.

(아들이 시라소니니까 그 애비인 나도 시라소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자기자신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했으며 저주하였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온 심장을 아낌없이 통채로 바칠줄 아는 그런 심장을 주지 못한 아버지를...

이윽고 아버지는 무엇인가 결심한듯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두눈에서는 불이 황황 일어났다.

《당장, 내려와라...》

아버지는 흰입김을 굴뚝같이 내뿜으며 아들에게 소리치고는 성큼성큼 기중기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어디, 이 애비썩썩을 봐라. 공청능력을 깨뜨리고 6만톤토에서 12만톤의 강철을 생산한 로동계급의 본때말이다.)

란간을 으스러지게 틀어쥐면서 쿵쿵-소리를 내며 기중기사다리로 올라가던 아버지는 중도에서 우뚝 멈춰섰다.

기중기의 긴허리에 붉은 색깔로 크게 새겨진 글발이 아버지의 시선을 붙들었던것이었다.

《충성호!》

아버지가 본역에서 기중기운전공으로 일하던 시절에 새겨진 글발이다. 5톤짜리 기중기로 7톤짜리 집을 척척 물어제끼던 바로 그 시절에...

이 붉은 글발을 읽는 아버지의 마음은 금시 뜨거워졌다. 젊은 시절의 꿈과 녀을 키워준 이 《충성호》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20년 동안 기중기를 물면서 쌓은 경험과 온갖 기술을, 심지어 아끼고 애용하던 공구함까지도 서슴없이 넘겨주었다. 육친으로서 그이상 더 무엇을 넘겨줄수 있단말이나.

《충-성-호-!》

또다시 아버지는 그 붉은 글발을 눈으로, 가슴으로 더듬고있다. 어느덧 아버지 조천율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조국땅우에 피로써 《충성》을 새겨넣던 흘려간 나날이 되살아났다...

고지는 불타고있다.

하늘에서는 적비행기들이 하루살이떼처럼 날뛰고 고지는 흙기둥을 뿔어올리며 몸부림쳤다. 직사포를 고지에 올려놓고 미국놈의 땅크와 비행기를 까부실데 대한 명령을 받은 포병들은 포를 끌고 한걸음 또 한걸음 고지정점을 향해 오르고있다. 앞에서는 직사포에 건 바줄을 당기고 뒤에서는 어깨와 가슴으로 포를 밀고있다. 직사포는 한걸음, 두걸음 힘겹게 고지로 올라갔다. 포탄과 폭탄이 쿵뒹뒹 뒹었다. 휘파람소리같은 날카로운 금속성과 함께 그때 《광-》하는 둔중한 폭음이 터지며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다.

한시에 바줄을 끊기운 직사포는 기우뚱거리더니 급격히 뒤로 밀려내려가기 시작했다. 고지중턱에 버티고 서있는 바위쪽을 향해... 이제 몇분후이면 직사포는 영영 《생명》을 잃어버리는것인가.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한사람이 흙먼지속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비호처럼 바위를 향해 날아갔다.

《비켜라...》

피타게 웨치는 전우들의 목소리를 그는 듣지 못한듯 뒤걸음쳐 굴러내려가는 직사포보다 먼저 바위를 덮쳐안으며 그대로 굳어져버렸다. 마치 기관단총의 완충기처럼...

《쿵-》

《쿵-》

직사포는 바위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분대장동무!》

《분대장동무!》

피타게 웨치는 울부짖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한문의 포를 위해 바위에 온몸을 녹여붙인 분대장은 불려도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는 유난히 번뜩이는 눈으로 기중기에 쓴 《충성》이라는 글발을 더듬고 또 더듬는다. 충성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떠나간 사랑하는 전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눈으로, 가슴으로 다정히 쓰다듬는다.

그렇다, 《충성》은 손끝으로 쓰는 글이나, 입에다 옮겨놓고 웨쳐만드는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심장으로 써야 하고, 심장으로 웨쳐야 한다.

아버지는 다시 머리를 번쩍 들었다.

설비를 실으려고 온 자동차들이 경적을 길게 울렸다.

《뺑-》

아버지는 그 소리에 한번 몸을 흠칫하더니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바람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눈보라를 휘뿌렸다. 역구내는 뽕양게 날리는 눈보라속에 묻혀들었다.

아버지는 무개화차가 서있는곳에서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권양고리에 물린 짐을 한번 쪽 훑어보고난 그는 뒤로 돌아섰다.

아버지는 기중기운전실을 향해 명령조로 소리쳤다.

《바삭 정신을 차려서 다시 짐을 들어라.》

칼끝처럼 날아오는 아버지의 시선과 목소리에 아들의 목은 두어개로 움츠러들었다. 운전대를 쥔 손은 가볍게 떨리고 얼굴은 점점 흙빛으로 변해갔다. 갑자기 그 우람한 몸집이 한줌만하게 줄어든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손을 뻗-저으며 벽력같이 고함을 쳤다.

《어서 들어... 기중기 팔은 더 세우구.》

기중기는 또다시 가쁜 소리를 내지르며 으르렁거렸다. 투정질이라도 하듯 기중기팔은 하늘높이 더 들리고 쇠바줄은 텅기면 금방 소리라도 낼듯 팽팽해졌다.

기중기는 열기를 확확 내뿜어대고 화차우에 얼어붙었던 짐은 버쩍-들렸다.

《힘을 내라, 힘을...》

아버지는 열에 뜬 목소리로 웨쳤다.

기중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르며 짐을 물어올리기 시작했다. 한치, 두치 짐이 높아질수록 아들의 얼굴은 점점 시커멓게 죽어갔다.

그런 아들을 불타는 시선으로 아버지는 지켜보고 서있다. 아버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갑자기 기증기소리가 푹-멧으며 들렸던 집이 허공에서 멈춰섰다.

화물집수원처녀는 못볼것을 본것처럼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기증기운전실창문으로 공포에 질린 아들의 얼굴이 튀어나왔다. 아들은 당황한 눈길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아버지에게 묻는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답 대신 비호처럼 뛰어가 짝짝밀에 어깨를 들어댔다.

《아버지! -》

아들은 목이 터져라하게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화물집수원처녀는 총알같이 뛰어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서며 어깨를 들이밀었다.

처녀를 뒤따라 역구내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일시에 달려들어 저저마다 어깨를 들어댔다. 집은 사람들의 어깨와 어깨에 떠

가사2편

내 사랑 랭상모아

박필모

실버들가지에는 새움이 트고
모판엔 푸르싱싱 모가 자라요
아, 내 사랑 랭상모아
봄을 당긴 우리 분조 기쁨이라네

살뜰한 우리 정성 약비로 되고
밤이면 우리 마음 나래 되었네

아, 내 사랑 랭상모아
네가 정말 우리 분조 자랑이라네

랭상모 날을 따라 푸르러가고
청춘의 우리 꿈도 함께 퍼나네
아, 내 사랑 랭상모아
수령님께 기쁨드릴 풍년모라네

우리의 정방차

장윤길

은실금실 비단실 감고감으며
정방차를 타고서 우리는 달리네
수령님 보내주신 사랑의 꽃수레
로동의 기쁨 가득히 싣고 달리고달리네

우리들을 나라의 보배라 하시며
힘든 일을 덜어주신 그 은정 뜨겁네

수령님 보내주신 사랑의 꽃수레
홍겨운 노래 가득히 싣고 달리고달리네

언제면 그 은덕에 보답을 하라
돌고도는 가락마다 정성을 바치네
수령님 보내주신 사랑의 꽃수레
청춘의 희망 가득히 싣고 달리고달리네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에 대한 철학적탐구

-가사 《동지애의 노래》에 대하여-

김용부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는 그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만사람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예술적감화력과 건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가 이처럼 거대한 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훌륭한 성과작으로 될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 노래가 사상에예술적으로 특출한 성과작으로 될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명가사창작에 관한 당중앙의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한데 있다.

당중앙에서는 가치있는 노래를 짓자면 곡이 잘 되어야 할뿐아니라 가사에 인간생활에서 가장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사상적내용의 풍부성과 철학적심오성, 이것은 명가사창작의 결정적요인이다.

한편의 작은 가사에 인간생활에서 의의있는 문제를 풍부하게 심어주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 때 그러한 가사는 사람들에게 강한 정서적충격과 함께 깊은 사색을 불러내는 인상깊은 명가사로 될수 있다.

《동지애의 노래》는 우리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이 위대한 진리를 확증하고있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는 혁명가들이 투쟁의 한길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수령관, 인생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함으로써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가사는 통털어 여덟줄밖에 되지 않는 시행속에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투쟁과정에서 맺어진 수령과 전사들간의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라는 무게있는 철학적중자를 사상정서적핵으로 심어주고 이렇게 맺어진 동지적사랑, 이렇게 다져진 충성심, 이렇게 단합된 혁명대오는 그 어떤 총포탄으로써도 깨뜨릴수 없고 막을수 없다는 위대한 사상을 완벽한 예술적경지에서 해명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동지애가 가장 귀중하다는것을 똑똑히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순서를 꼽으라면 언제나 동지들의 사랑을 첫째 자리에 놓고 그다음에 부모

의 사랑, 처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놓습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505페이지)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심원한 철학적진리를 사상적기초로 삼고 거창하고 절절한 정서적흐름속에서 예술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하고있다.

이 땅에 인류가 생겨 100만년, 아득히 흘러온 세월의 년륜속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세상에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과 친구의 사랑 등 수없는 사랑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을 합한것보다 더 크고 귀중한 사랑은 혁명의 길에서 맺어지고 다져지는 동지들의 사랑이다.

그것은 혁명과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하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의지적인 결합이기때문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동지의 한없는 사랑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으며 만금을 받고도 팔수 없는 더없이 귀중한것이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 1절에서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바로 혁명의 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동지들의 사랑이며 세상에서 가장 값높고 귀중한 사랑이 바로 혁명의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충성심이라는 이 심오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1920년대 조선의 현실은 참으로 엄혹하고 암담하였다.

대륙침략의 길에 들어선 일제는 《후방의 안전》을 기한다는 구실밑에 삼천리 강토를 피바다, 불바다로 만들었다.

1920년대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참혹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대렬안에 기여든 우연분자들과 타락분자들, 변절자들의 배신행위와 권력다툼으로 조선혁명은 쓰라린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처럼 참혹한 현실앞에서 조선의 청년들은 눈물없는 그 나라를 찾아가자고 가슴을 두드리기도 했으며 이처럼 통절한 피의 교훈앞에서 생사운명

을 같이 할 혁명동지, 자기 자신과 조선의 운명을 건져줄 혁명의 향도성을 찾아 수백수천리 길을 걷기도 하였다.

이 피어린 투쟁속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마침내 혁명의 향도성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가장 뜨거운 믿음과 가장 깨끗한 의리로 뒀결된 동지적단합이 이루어지고 불패의 혁명대오가 무어지게 되었다.

하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불바람이 휘몰아쳐와도 변심하지 않는 동지적사랑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나가려는 확고한 결심을 다지였으며 그 길에서 한목숨 바친다 해도 영원히 충성다하려는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시련에 찬 혁명의 길우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찾은 것이었기에 그것을 천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었으며 한목숨을 바친다 해도 팔수 없었고 죽어서도 잊을수 없었다.

가사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이 철석같은 신념, 이 불같은 맹세를 웅심깊은 정서적흐름을 타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그러면 이처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순결한 의리,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어디에 기초하고있는 것이었는가.

가사 《동지애의 노래》 2절은 이에 대하여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 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 거라네

가사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시야말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육친의 정으로 따듯이 이끌어주시고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진정한 수령이시며 거칠은 세상에서 막돌처럼 버림받던 사람들을 혁명의 대오에 따듯이 이끌어주시어 죽어서도 영생하는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라는 것을 생동한 시적표현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동지들의 한없는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심어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의 품속에서 몸소 싹틔우시고 자래우신 가장 귀중한 동지적믿음이며 순결한 의리이다.

혁명의 향도성을 찾아 이 세상 여기저기를 방랑하며 안타까이 모대기던 김혁이가 길림으로 찾아왔을 때 이제부터 같이 고생해보자고 허물없이 대해주시며 구면친구처럼 포옹해주시는 뜨거운 동지적신임, 오래간만에 옛친구를 만났으니 한잔들면서 회포를 나누라고 은정깊은 술을 보내주시기도 하시며 평범한 한 전사의 위탈을 헤아리시고 무송에 계시는 강반석어머니께 보내시어 병치

료를 받게 하시는 열렬한 동지적사랑, 혁명을 찾아 사랑을 찾아 천리길을 걸어온 설은주를 잘 대해주시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백리 밤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새마을을 찾아가시어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인간애와 사랑의 불씨를 심어주시는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사랑, 참으로 그이의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는 끝이 없으시었다.

혁명전사들에게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적믿음과 뜨거운 사랑,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려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혁명적의리를 낳았다.

가사는 2절의 후반부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혁명전사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활화산의 용암처럼 뜨거운 열도로 분출시키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준엄하였다. 그러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우울과 비관에 빠지지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의 신심에 차고 넘치였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기때문이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셨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전우로 사랑하고 스승으로 존경하였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받들어나가려는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혁명에 다진 맹세 서로 잊지 말자고 굳게 다짐하는 뜻깊은 글발을 남기시고 떠나시는 그이를 우러러 《내 꺼꾸러져 혁명은 더 못하게 된다한들 한별! 그대의 결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리라.》고 굳은 맹세를 다지는 주인공 김혁의 심정은 그대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으며 심장으로 다진 뜨거운 충성의 맹세였다.

가사는 이 대목에 1920년대 간고한 혁명의 그날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다졌던 그 충성의 맹세를 정수로 심어주고 여기에 1980년대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해가는 길에서 우리 인민이 다지는 충성의 맹세를 더하여 일반화해줌으로써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흘러오던 정서적흐름은 최고절정을 이루고 터쳐졌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이 노래는 항구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풍부하고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높은 예술적형식으로 훌륭하게 형상화하고있다.

우리 당은 가치있는 사상적내용도 높은 예술성으로 안받침되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줄수 없다고 밝혀주고있다.

이 가사가 성공할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높은 예술성으로 안받침해준데 있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매우 심각하고 의의 깊은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준엄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혁명전사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수령관, 인생관 문제를 이 짧은 한편의 가사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해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가사에서는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명가사창작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동지애의 노래》가 거둔 귀중한 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먼저 무게있는 철학적종자가 내뿜고있는 심오한 사상감정을 특색있는 예술적형식의 적극적인 탐구로 뚜렷이 살려낸데 있다. 모든 가사에서 사상감정을 뚜렷이 살려내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이 밝혀준 명가사창작의 기본요구이다.

한편의 작은 가사에서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시인의 사상감정이 뚜렷할 때 그러한 가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내면서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는 호소하고 주장하려는 사상감정이 열렬하고 적극적이며 투철하다.

그것은 사상의 핵을 똑바로 틀어쥐고 이 핵을 사상감정의 정수로 규정지는 다음 가사의 첫행부터 마감행에 이르기까지 근기있게 대를 세워 끝나간데 있다.

짧은 한편의 가사에서 많은것을 이야기하려고 무턱대고 이것저것 밀어넣거나 시의 결구에서 감정의 충격적인 폭발을 주려고 전제와 정서적흐름의 상승과정만 늘어놓는다면 시인의 주장은 일관성을 잃게 되며 시의 사상감정은 뚜렷이 부각될수 없게 된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들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핵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변치 않는 혁명적 의리와 신념을 사상감정의 정수로 규정짓고 그것을 가사의 전반에 줄기차게 판통시키고있다.

《동지애의 노래》가 우리 인민들에게 이처럼 커다란 정서적충격과 감명을 주고 사색의 깊은 세계로 끌고갈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기인된다.

이 가사의 사상감정이 뚜렷이 부각될수 있는것은 또한 지금까지 거의 공식화되다싶이한 서정구조를 깨뜨리고 새롭고 특색있는 형식을 창조한데 있다.

지난 시기 많은 경우 가사창작에서는 서정시창작에서의 기, 승, 전, 결의 법칙이 그대로 도입되어 1절에서는 시적감정의 대상과 계기를 생활적으로 펼쳐주고 2절에서는 그를 개념적으로 일반화하고 3절에서는 공식적인 결구를 맞추어붙였으며 한절안에서도 전반부에 먼저 시적대상을 주고 후반부에 와서는 거기에서 환기되는 사상감정을 해명하였다. 이렇게 창조된 가사에는 시인의 뜨거운 열정대신에 설명이 차고넘치였으며 풍부한 서정의 향기가 풍길 대신에 메마른 론리가 지배적이었다.

《동지애의 노래》에서는 시적정황을 제시하는 부분이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다. 가사는 처음부터 극적주인공의 승화된 체험세계를 그대로 분출시키면서 시의 사상감정을 열렬하게 주장하고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가장 위대한 혁명동지, 가장 자애롭고 은정깊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혁명전사들의 한결같은 신념은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준엄하다 해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원히 받들어나가는 불같은 결의였다.

가사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처음부터 강렬하게 폭발시키고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상감정이 허공에 뜨지 않고 그토록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것은 영화화면에서 극적주인공이 체험하는 정서적충격과 가사의 정서적흐름이 일치되기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여주는가,

가사-그것은 생활을 제시하거나 설명할것이 아니라 고도로 축적되고 응결된 생활감정의 직접적인 토로여야 하며 심오한 사상을 직선적으로 주장할것이 아니라 시인의 가슴에서 음미하고 느끼고 그 정당성과 위대성을 확증한 다음 스스로 우러나오는 뜨겁고도 열렬한 심장의 호소여야 한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일부 사람들은 영화예술의 가사가 성공할수 있는 비결은 화면이라는 훌륭한 생활적바탕을 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옳다.

그러나 시인들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생활적바탕을 가지고있어야 하는바 그것은 바로 화면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생활체험이며 사색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한편의 작은 가사를 쓰는 경우에도 독자들에게 강렬한 정서적충격을 주고 깊은 사색의 세계를 주자면 생활에 대한 시인의 체험을 부단히 넓혀나가야 하며 사색의 세계에 깊이 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더는 가슴속에 묻어둘수 없게 되었을 때 그렇게 터뜨린 심장의 호소는 사상감정이 뚜렷한 명가사로 될수 있다.

《동지애의 노래》가 거둔 예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가사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직선적으로 생경하게 드러내지 않고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표현한데 있다.

철학적심오성, 이것은 사상적내용의 형상적심오성에 있다. 아무리 심각한 사회적문제, 그 아무리 뜻깊은 인간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화하지 않는다면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정서적으로 감명깊게 전달할수 없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이 보여주는 뜻깊고 심각한 사상주제적내용을 그대로 담고있는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가사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노래하는 다른 일련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사상의 직선적인 표현과 철학적개념의 논리적인 서술에 빠질수 있는 조건이 많았다.

그러나 이 가사는 무게있는 사상적내용을 풍부한 형상적비유의 능숙한 리용으로 훌륭히 시화하고있다.

여기에는 생경한 정치적표현이란 단 하나도 없으며 《충성》이란 말마디는 없어도 가사전체가 충성의 뜨거운 열정을 내뿜고있다.

가사에서는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리라는 혁명전사들의 철석같은 맹세도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고 형상적으로 표현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원히 잃지 않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한없는 동지적사랑을 두고도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라고 생동하고 뜻깊은 비유적수법으로 인상깊게 노래하고있다.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느낌이 커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사색을 불러내는 뜻깊은 명가사이다.

《동지애의 노래》는 운률조성에서도 일련의 특색을 보이고있다.

이 가사는 특색있는 음수률조직과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승엄하고 절절한 정서로 분출시키고

있다. 가사창작의 음수률조직에서는 보통 3음절~4음절을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가사의 1절과 2절에서 첫 두행은 9.8조로 음수률을 배열하고있다.

특히 1행과 2행의 둘째 운각에서 음수률배열을 확대하고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보는바와 같이 일반적인 3?4의 음수률배열을 벗어나서 3. 6으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연한 서정의 흐름에서 벗어나 가사가 담고있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에 맞게 웅심깊고 절절한 감정정서를 훌륭히 살려낼수 있었다.

이 가사에서는 대구적표현도 능란하게 쓰고있다.

가사창작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모든 시행에서 대구적표현을 적절하게 리용함으로써 서정적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힘있게 강조하고있으며 박력있고 탄력성이 강한 운률적흐름을 마련해주고있다.

이외에도 반복법, 제시어법 등 다양한 표현수법을 효과적으로 씀으로써 가사의 정서적색갈을 강하게 돋구어주고있다.

특히 강조로 《도》와 지시대명사 《그》를 특색있게 박아넣은것은 가사의 사상적내용과 서정적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부각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있다.

가사 1절의 1행과 2행에서 반복되는 강조로 《도》는 혁명의 준엄함과 간고성을 힘있게 강조하고있으며 2절의 1행과 2행에서 반복되는 지시대명사 《그》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동지적민음에 대하여 강한 력점을 찍어주고있다.

《동지애의 노래》는 형상적인 시어창조에서도 특출한 모범을 보이고있다.

가사, 그것은 시의 점수다. 따라서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간결한 시형식에 훌륭히 담은것은 가사창작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그러자면 가사의 모든 시어들은 그 하나하나가 실로 많은것을 이야기해야 하며 특별한 표현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이 가사의 주옥같은 시어들은 모두가 다 뜻깊은 인간문제,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안고있다.

《천금 주고 살수 없는》,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등의 시어들은 천만마디의 말보다도 더 크고 뜻깊은 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는 우리 당의 명가사창작방침을 훌륭히 구현하여 심오한 철학적 내용을 완벽한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그려냄으로써 우리의 주체적인 가사문학이 거둔 또 하나의 특출한 성과작으로 되었다.

가사는 이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항구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며 빛나는 위훈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로 예술영화 《조선의 별》과 함께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

운 당중앙을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충성을 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감정을 그대로 진실하게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 있다.

우리는 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것처럼 뜨거운 동지적사랑, 것처럼 불타던 충성심을 안고 충성의 노래, 맹세의 노래를 힘있게 부르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우러러모시고 영원히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

그대 울리는 차바퀴소리

오영환

흘러드는 달빛속에
모자끈 죄여매고
차창가에 흐뭇이 미소짓는 그대
오늘도 기적소리 높이
밤깊은 조국땅을 달려간다

고요한 대기속에
기운차게 울리는 차바퀴소리
그 소리에 그대의 가슴 뛴든다
장쾌한 조국의 대교향악을 들으며

철길순회원의 신호등빛 멀어져가는
아득한 굴속을 지나 나오면
쇠물빛 타오르는 제철지구
우람찬 용광로의 숨결에 화답하는가
무쇠바퀴 구름소리 이끌고간다

은빛으로 일렁이는 바다기슭
따라오는 둥근달이 마음을 이끌어도
검차원의 밝은 귀로 음색을 가리며
배고동 실어오는 물결소리도 함께 담아
백리, 천리 땅을 구르며 간다

끝없는 궤도, 고르로운 강철의 울림
수고 많은 보선공들의 손도 잡아보며
무연한 들판으로 살같이 달리는 그대
흥치며 마중오는 벼바다의 설레임을
아름다운 음악속에 싣고간다

화답하며 부려주고
달리며 싣고간다
철과 난알과 바다의 재부
웃음과 노래와 창조의 숨결로
그대는 조국땅에 장엄한 음악을 울려간다

그 선물, 그 아름다움에
그대는 나날이 용감해지고 깨끗해진다
구배와 곡선이 앞에 있어도
그대는 명랑해지고 유쾌해진다

장하다, 기관사여
오늘은 앞당긴 시간으로
래일은 더 길어진 차량으로
그대는 새라새론 음악을 울릴줄 안다

그 음악에 맞추어
쏟아지는 광석무지 다 실어보는가
쌓여지는 통나무 다 끌어보는가
그대가 이 밤에 울려가는 차바퀴소리
번영하는 조국의 노래로 흐른다

아, 모자끈 죄여매고 달리는 기관사여
그대 울리는 차바퀴소리에
천만사람 귀기울이며, 목소리 합치며
마음 달려 로동의 열매를 무르익힌다
마음 달려 조국의 진군길을 다그쳐간다!

서정시에서의 감정의 진실성

장정춘

시는 우리의 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친근한 길동무이다.

서정시는 언제 어디서나 불리우고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끝없는 정서로 충만시켜주며 그들을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리워시키게 된다.

때문에 한편의 시를 써도 인간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린 시다운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사상적내용이 좋고 예술성이 높은 시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게 되며 그러한 시는 인민들의 사랑속에서 그대로 노래로 불리워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66~67페이지)

시가 시다운 시로 되게 한다는것은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가 시행마다에 맥맥히 흘러넘쳐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불태울수 있도록 거대한 열정을 안겨준다는것을 말한다.

주체적문제이론은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며 시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다고 가르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정시 《만수대》 (《조선문학》 1980. 2호)는 최근 《조선문학》에 발표된 시들가운데서 비교적 성공한 작품의 하나이다.

밟으신것은 백두의 용암대지
손들어 가리키심은 우주의 한끝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승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에
위대한 수령님 서계시는 만수대

이 시에는 주체시대의 새 력사우에 《승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는 만수대의 위용에 대한 시인의 철학적인 세계가 있다.

여기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자기 삶의 참된 가치를 빛내일줄 아는 혁명가들의 굳센 의지와 신념과 고귀한 량심에 대한 심장의 토로가 있다.

행복하여라,
이 언덕에 가슴을 맞대이고
더럽혀지지 않은 량심을 헤쳐놓는 사람은...

그 또한 영광이여라,
곡절 많은 한생을 여기서 매듭짓고
새 투쟁의 전구로
영생하는 진리를 안고가는 전사는...

보는바와 같이 시에는 철학적사색의 심원한 세계가 깔려있다.

그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참된 행복과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과연 행복하지 않을것인가. 《이 언덕에 가슴을 맞대이고 더럽혀지지 않은 량심을 헤쳐놓는 사람은 ...》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났고 그이의 품속에서 참된 신념의 노래를 배운 혁명가들의 고귀한 의리가 절절하게 안겨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언덕에서 혁명을 알게 되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충성의 맹세를 다졌던가.

그것은 혁명가의 삶이 비록 간고하고 어렵지만 그만큼 영광스럽고 보람찬 삶을 가르쳐주었다.

그것은 주체의 인생관, 혁명가의 인생관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알게 하였다.

때문에 시인이 《쳐다보며 오를 때엔 모래알처럼 느껴지던 자신의 존재도 돌아서 내릴 때면 산악보다 거창함을 깨닫게 하여주는》 것이라고 노래했을 때 그것이 것처럼 고귀한 진리로 안겨오는것이다.

이처럼 시는 짧은 시구절속에서 깊은 사색과 여운을 안겨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서정적주인공의 혁명에 대한 높은 자각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잘 펼쳐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바로 시의 내용에 부합되는 고상한 인간정서가 결코 수사학적응변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준다.

시가 예술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곳에서만 현란한 시구절이나 표현적 《기교》가 일시 사람들의 눈을 끌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시》에는 시가 없다.

시속에 시가 없다는것은 그것이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지닐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성공하지 못한 시들의 결함은 시적감정의 내면적깊이에까지 파고들지 못하며 인간의 정신세계를 산 생활적체험으로 드러내지 못하는데 있다.

진정으로 시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시를 창조할수 없다.

시는 열정과 정서의 뜨거움속에서 태어나는 예술적생명체이며 시인에 의하여 새롭게 개척되는 미지의 세계의 노래이다.

이미 다 아는곳에서, 이미 상식으로 된 감정속에서는 시가 아니라 운문의 외피를 쓰고 개념과 설명만을 줄곧 일삼는 산문밖에 나올것이 없다. 그러니까 시는 자연 길어질수밖에 없지 않는가. 서정시는 짧아질수록 좋다. 시인은 자기 심장이 노래하는 그것만을 노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 인간과 생활에 대하여 항상 심장이 뜨겁게 불탈 때에만 가능하다.

자기의 심장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적높이에서 그처럼 뜨겁게, 그처럼 열렬하게, 그처럼 황홀하게 불타오르지 않고서는 시대가 요구하고 인민이 원하는 참다운 시의 세계를 창조할수 없다.

여기에 서정시 《다시 오리》(《조선문학》 1980, 2호)가 있다.

이 시는 위에서 말한 사실들을 잘 확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는 소박하고도 절절한 감정으로 독자들의 이목을 끈다.

시는 혁명초소로 돌아가는 한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적심정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지향과 의지를 잘 반영하고있다.

때문에 시는 시인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장 전형적인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토로할수 있었다.

이 시에서 우리들의 가슴에 그리도 절절하게 안겨오는 감정은 서정적주인공의 평양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다.

평양,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있는 혁명의 수도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다.

따라서 이 시의 감정, 그것은 곧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감정으로 되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하려는 결의의 심정의 표현으로 된다.

때문에 시인이

그대 지령을 따라 나는 가리라
그대 박동을 따라 나는 뛰리라
그곳이 어디든 나는 숨쉬리-
평양아, 다만 그대, 그대 숨결을 따라...

라고 노래했을 때 그것은 얼마나 독자들의 가슴을 세찬 감동으로 설레이게 하는가.

《평양아, 다만 그대, 그대 숨결을 따라》라는 구절은 참으로 힘있고 감동적이며 절절하다.

오직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정신세계가 힘차게 맥박치고있다.

그 불같은 신념과 지향이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의 가슴에 그대로 산 호흡이 되어 옮겨지는듯하다.

내용과 동떨어진 순수한 언어기교와 표현적재치는 한갓 외형적형식미만을 추구하는 치장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심오한 사상과 뜻깊은 정서세계와 혼연 일체가 된 시구절에서 표현의 생신성, 적절한 비유는 그 시의 내용을 몇배 더 강화해주며 시전편에 힘과 열정, 생기와 활력을 부여한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그대 심장이라면
나는 피방울
그대 뇌수라면
나는 신경

라는 호소는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힘있게 울려주는가.

그리고 《그대 지령을 따라 나는 가리라 그대 박동을 따라 나는 뛰리라》라는 표현은 마치 흐르는 물줄기마냥 줄기차고 거침이 없으며 류창한 운율과 더불어 우리들의 가슴을 한껏 들먹이게 한다.

《그대를 장식할 보석》이 되고 열과 빛을 더해 줄 탄력이 되어 다시 오리라는 구절을 거듭 새겨 보자. 누구든지 여기서는 표현적효과를 노리려는 시인의 그 어떤 의식적인 꾸밈이나 의도의 흔적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응당한것으로 느껴지며 마치 시인의 가슴속 감정의 울림이 저절로 터져나오는듯하다.

《그대 품에 만발할 꽃씨가 되어》 혹은 《강철 들보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서정토로, 가뭇든 봄철이면 비가 되어, 그것도 아버지수령님께서 가꾸시는 시험포전에 보슬보슬 봄비되어 함뻑 내리리라는 표현은 얼마나 진실한가.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와 깨끗하고 진실한 그 감정으로 하여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진다.

추위땀땀 새벽이면
눈이 되어 오리라
그이께서 밝히시는 사색의 창가를
소담한 눈송이 되어 고이 지키려

만경대 뜨락엔 흰모래가 되려
금수산 제일봉엔 맑은 바람이 되려
그리고 저기
만수대기슭을 감도는 물결엔
티없이 깨끗한 물방울 되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일편단심 충성다하며 그 품속에서 영생하려는것은 오늘 주체

시대 우리 인민의 가장 주도적인 사상감정이며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다.

바로 이 신념, 이 지향이 있어 우리 인민의 삶은 이처럼 빛나고 숭고한것이다.

참다운 시의 세계에 들어서보지 않고 진정으로 열정과 정서의 뜨거움을 한가슴에 안아보지 않고 그 모든 창조과정의 진통을 겪어나간다고 스스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도 그것이 생활을 방불하게 그려줄수 있다.

그러나 배우도 주인공의 처지에서 그 심리와 정서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기쁨과 슬픔을 원만히 표현하지 못한다면 실생활에서의 산 주인공의 그러한 감정을 따를수 없을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은 배우는 무대에서 연기를 할것이 아니라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있다.

시인도 역시 연기를 위해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는 그런 배우처럼 될것이 아니라 터치치 않을때야 않을수 없는 그러한 감정으로, 그러한 감정을 안은 산 인간의 뜨거운 심장으로 시를 써야 할것이다.

흔히 시인들은 생활자체가 주는 감정과 정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거기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는다. 그러면 정말 《시》가 만들어지는듯하다. 그러나 그것을 독자들에게 읽혀보면 시인은 자기가 이처럼 흥분한 감정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심오한것은 아니었다는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다. 시는 그렇게 써여져서는 안된다.

시, 그것은 시인의 정신적창조물이며 그의 감정의 정수의 정수이다.

시인은 생활이 주는 그 이상의 새로운 시의 세계를 탐구하고 개척해나가는 탐구자, 개척자이며 선구자이다.

때문에 시인들은 항상 생활의 열풍으로 자기의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심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서정시를 창작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가 있다.

우리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우수한 시를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학의 발전을 위해 온갖 심려를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이 쇠물 조국에 바치여

김우협

쇠물남비 철철
용해장을 떠나는 이런 때이면
어머니조국이며
내 인젠 버릇이 되어
그대 생각에 가슴젖는다

목메여
어머니를 찾으며
기쁨을 못감추는 아이처럼

3대혁명의 불구름 나래치는
그대의 하늘에
이 쇠물 노을로 피어
용해공의 가슴 이리도 설레이는가

재무지에 묻힌 로력을 다시 쌓으며
그대와 함께 쓰디쓴 눈물도 흘리고
준엄한 56년의 그해
그대와 함께 한몫의 쇠물이 귀중함을 안
나는 그대의 아들, 그대의 병사

채 식지 않은 로속에 뛰어들며
나는 여기서 첫 5개년의 진군길에 오른
조국의 근엄한 눈빛을 보았고
나는 여기서 강행군 천리를 넘어
승리의 날에 눈물짓는 그 모습 보았거니

무엇을 숨기랴 어머니조국이며
그대앞에 시련이 막아설 때면
그대는 언제나 용해공을 찾았고
그대 큰걸음 내디딜 때면
그대는 언제나
용해공의 걸음걸이를 생각하지 않았던가

아, 기쁠 때나 어려울 때에나
용해공은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며
그대만을 섬겨왔고
그대만을 사랑하였기에

병사없는 조국을
생각할수 없듯이
쇠물없는 조국을
나는 한시도 생각해본적 없거니

이 쇠물로 하여 더 아름다와지고
이 쇠물로 하여 더 부강해지고
이 쇠물로 하여 더 높이 나래칠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조국이며
쇠물이 그대로 한생이고
쇠물이 그대로 충성인
용해공,
아, 용해공은 오늘도 조국과 함께 있다

랭상모 새싹들이 속삭였네

김국용

첫닭이 울자
창문을 세 차게 흔드는 바람소리
처녀분조장은 잠결에 놀래여
옷자락을 날리며 달려나왔네
랭상모판에 다가서는 마음 울렁이었네

어찌나, 돌아나는 새싹이
때아닌 찬바람을 맞으면
박막속의 온도계를 가늠하는 눈이
밝은 전지불빛에
초롱초롱 새별처럼 빛나네

맑은 눈에 예나 다름없이
하늘거리는 눈금이
처녀의 울렁이는 마음을 끌어주는듯
보조개도 귀여운 얼굴에
살며시 웃음이 어리네

그 웃음을 시샘하듯
랭상모판을 흔드는 찬바람소리
머리수건 단정히
부드러운 박막을 퐁퐁 여머줄 때
관리공처녀들 하는 말도 즐겁네
-분조장이 아기의 이불을 여머주는것 같네

까르르 터지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기승부리는 찬바람을 몰아내며
별많은 밤하늘에 울려가네

두툼히 덮여진 나래속에 박막속에
파릇파릇 새싹들이 키를 솟구네

처녀는 조용히 일어서네
넓다란 랭상모판 여기저기
타오르는 우등불, 불빛에 비쳐오는
낮익은 분조원들의 미더운 모습들
그의 가슴 뜨거움에 차오르네

즐겁고 경사롭던 지난 가을날
당대회에서 돌아오는 자기 손을 붙잡고
새해 농사를 더 잘 짓자고
어버이수령님을 가을날의 농장벌에
또다시 모시자던 그 마음들이 안겨왔네

그 손길 그 마음들이 가꾸는 모판이어서
처녀는 웃음을 지으며 오가네
분조원들과 함께 우등불을 지피며
흠여지는 나래도 바로잡아가며
이 밤에 하는 일이 더 즐거웠네

즐거웠네, 분조장의 마음
변덕스런 날씨도 그의 웃음에 실려
부드러운 바람을 안아왔네
조심히 나래를 헤치고 온도계를 바라보는
처녀에게 랭상모 새싹들이 속삭였네
-넘려 말아요 이렇게 따뜻이 자라는걸요

땅과 봄

리일복

예로부터 농민들은 땅은 속일수 없고 계절은 막을수 없다고들 말해왔다.

여기에는 꾸준하고 근면하게 땅을 가꾸고 계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농민들의 소박한 심정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한편 여기에는 대자연의 엄혹한 법칙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자기들의 무력성을 실로하는 어쩔수 없는 하소가 깃들어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땅을 가꾸면서도 땅의 참된 주인이 돼보지 못한 농민들이 착취와 빈궁속에 살아오면서 눈물겹게 얻어낸 《생활의 진리》가 담겨진 말이다.

인간의 자주성이 깃뻛히던 착취사회에서 사회와 자연의 참된 주인으로 돼보지 못한 인간들이고보면 그것은 어쩔수 없는 생활의 법칙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기에 농민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동면하는 짐승들이 봄을 그리워하듯 눈독고 새움트는 농사계절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리워했고 달력에까지 절기를 적어가며 씨를 뿌리고 김을 댔고 오곡을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말그대로 옛말로 되고말았다. 지금은 농민들이 계절과 땅에 복종하는것이 아니라 땅과 계절이 농민들의 뜻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법칙》이 이 땅우에 생겨나게 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온갖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펼쳐주신 새롭고 독창적인 주체농법!

이 만능의 열쇠를 틀어쥐였기때문에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땅의 그 어떤 고집센 속성도 변화시키고 계절의 완강한 《법칙》도 뒤흔들어놓았으며 한랭전선의 엄혹한 기후에도 끄덕없이 자기의 뜻대로 오곡을 가꾸고 만풍년의 가을을 해마다 이끌어오는것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과 은혜로운 사랑은 이 나라 대지에 해마다 만풍년을 이끌어오는 영원한 자양분으로, 생명수로 되고있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영광스런 나날에 토지강령을 밝혀주시고 해방된 새땅우에 토지개혁의 천지

개벽을 이룩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로 이 나라 농촌이 나갈 찬란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내놓으시고 몸소 아버지 수령님께서 눈비를 가리심 없이 이 나라 농장의 들길을 걸으시며 농민들에게 안겨주신 독창적인 주체농법은 농민들이 완고한 땅을 마음대로 길들이고 번덕스런 기후에 구애됨이 없이 오곡을 가꾸어 풍년가을을 이끌어오게 하였다.

나는 농촌을 찾을 때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주체농법의 이 위대한 생활력을 똑똑히 보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해 초겨울 열두삼천벌의 어느 농장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쌀쌀한 바람은 바야흐로 닥쳐오는 겨울을 예고하고있었지만 방금 난알을 털어낸 벼짚가리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베어낸 벼그루에서 철모르고 뽕죽이 돌아나는 푸른 움들은 아직도 완전한 가을의 정취를 자아내고있었다.

말하자면 늦가을과 초겨울이 뒤범벅이 되어 일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때라고 해야 정확할것이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하면 이런 때면 농토우에 한가로운 정적이 깃들고 한해농사의 고달픔을 풀며 농민들은 따뜻한 방에 앉아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짚것이다.

그런데 내가 마을길에 들어서자 거름을 실은 트랙토르들이 통탕거리며 분주스레 들로 나가고 있었고 트랙토르들이 달려가는 그쪽 들가운데서는 오색기발이 바람에 펄펄 나뭇기고 농장원들이 활기있게 일손을 놀리고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자연히 별로 향해졌다. 가까이 질수록 흥이 난 농장원들의 일모습이 정겹게 안겨왔다.

가래장부로 된 잔등이 떡판처럼 실해보이는 청년이 어찌나 세관계 삼날을 박아대는지 가래줄을 당기는 두 처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삐 일손을 놀린다. 트랙토르가 씨레를 끌고 골고루 흙을 공그며 나가는 뒤로 이렇게 농장원들이 달라붙어 련방 흰소리들을 쳐가며 삽질을 해댄다. 한편에서는 작업장둘레로 큼직큼직한 말뚝을 박고 벼짚으로 엮은 나래를 쳐나간다.

《랭상모판을 만들고있습니다. 땅이 얼기전에 온 농장의 논에 모를 보장할수 있는 랭상모판을 다 만들 작정으루 지금 이렇게 뚫고있답니다.》

어려보이지만 야무진 목소리로 분조장처녀가 나를 이끌고 작업장을 돌며 설명하는것이였다.

올해에도 래년에 없는 풍작을 마련한 이 농장원들은 이렇게 벌써 래년농사를 시작한것이다.

모판을 고르롭게 다지며 깔깔거리는 처녀들의 머리수건이 바람에 기폭처럼 나풀거리고 푹푹 흙을 파서 고랑을 짓는 들직한 중년농장원의 삽날 밑에서 동면준비를 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훌쩍 뛰여 달아난다.

나는 마치 자기가 봄의 들판에 선것 같은 착각을 느끼며 혹시나 종다리가 올라싶어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니다, 들판에선 풀기없이 가을이 물러가고야 무진 겨울이 각일각 자기의 축수로 산과 들을 훑으며 휘몰려오고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봄일을 하고있는게 아닌가. 프락프르가 논을 갈고 농장원들은 씨앗을 뿌릴 랭상모판을 만들고있는것이다.

아니다! 이 농토를 가꾸는 주인들의 가슴엔 겨울이 아니라 벌써 봄이 온것이다. 만풍년의 가을을 싹틔우는 봄은 자연의 계절에 관계없이 주체농법 꽃피는 이 땅의 기름진 대지우에 이렇게 필요한 때 찾아오는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농사철을 이렇게 앞당겨온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철 우리 농민들을 찾아주시며 그 어떤 한랭전선의 변덕에도 끄떡없이 풍작을 이룩할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꼭 풍년이 듭니다.

옛적엔 봄 여름을 농사철이라 했지만 지금은 사시절이 다 농사철이 되였습니다.》

분조장처녀는 말도 청산류수로 잘했다. 그가 설명하는 농산기술 술어들과 기술적문제들을 다 알수는 없었으나 나는 이 나어린 처녀가 그야말로 땅을 잘 알고있으며 주체농법을 잘 알고있는 《능력있는》 농장원이라는것만은 명백히 알수 있었다.

고집스런 땅을 한손에 틀어쥐고 쥐락펴락 길들이고 계절을 앞당기며 오직 풍작이룰 오곡을 사시절 가꾸는 처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만 하면 어김없이 만풍년을 이룩한다는 그 하나의 신념으로 엄

혹한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우리의 미더운 농업근로자들!

바로 이들이 농토를 가꾸어가기에 이 땅우에 오는 계절은 모두가 농사일을 위해 필요한 계절로 되는것이며 이 강토를 이루는 한줌의 흙도 오곡을 자래우고 알찬 열매를 맺는 값진 터전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것처럼 계절을 앞당겨 농사일을 해제졌기에 대지는 오늘 이처럼 들끓으며 무르녹는 봄을 한가슴에 안고 맘껏 오곡을 자래우고있는것이 아니라!

아직 음달진 산골짜기엔 눈과 얼음이 남아있고 철이르게 핀 진달래도 찬바람에 떨고있지만 랭상모판에선 다 자란 벼모들이 푸르싱싱이 설레이고 벌써 모를 낸 논판에선 흘러온 관개수를 맘껏 빨아들이며 《푸른주단》이 봄바람에 나풀나풀 춤을 춘다.

6월이 돼야 보슬비를 맞으며 모를 내던 그것은 벌써 아득한 옛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 밝혀주신 주체농법대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이 초겨울에 벌써 모판을 만들기엔 흥성이는 돌격전을 벌린것이다.

자연법칙으로 오는 계절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때아니게 휘몰아오는 한랭전선의 변덕이 무슨 소용있으랴.

오직 위대한 수령님 밝혀주신 주체농법대로 땅을 가꾸고 계절을 길들여 만풍년의 가을을 세세년년 앞당겨오니 이 땅우에 벌어지는 이 세기적 변혁과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어떻게 다 노래할수 있으랴!

예로부터 사람들은 땅은 솔직한것이여서 가꾸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준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농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고 하였다.

이말 역시 근면한 농민들의 소박한 진정이 담긴 말이지만 오늘에 와서는 이 말이 더 새로운 진리를 담아 새롭게 울리게 되였다.

사회와 자연을 변혁하는 열쇠를 틀어쥔 자주성을 지닌 우리 인민앞에서 땅은 자기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바쳐 오곡을 싹틔우고 자래우게 되였으며 엄혹한 계절과 기후현상은 공손히 머리숙이게 되였다.

사람들이여, 설레는 오곡을 무심히 보지 말라!

이 땅우에 이룩되는 그 모든 세기적인 창조의 열매들과 함께 영그는 한이삭의 나라에도 은혜로운 햇빛이 안아온 깊고깊은 뜻이 담겨져있다.